

한신대 약술형논술

국어

목차

2026학년도 인문계열	3
문항 1~2	3
문항 3~4	6
문항 5~6	9
문항 7~10	12
2026학년도 자연계열	18
문항 1~2	18
문항 3~4	21
문항 5	24
2025학년도 인문계열	27
문항 1~2	27
문항 3~4	30
문항 5~6	33
문항 7~9	36
2025학년도 자연계열	41
문항 1~2	41
문항 3~4	44
문항 5~6	47
2024학년도 인문계열	50
문항 1~2	50
문항 3~4	53
문항 5~6	56
문항 7~9	59
2024학년도 자연계열	63
문항 1~2	63
문항 3~4	66
문항 5~6	68

2026학년도 인문계열

문항 1~2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유교 국가에서 즉위식은 천명을 양도받는 의례인 동시에 왕위 계승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백성의 지지를 이끌어 내는 국가 행사로 왕위 계승에 담긴 이상적 가치가 반영되었다. 유교 국가의 이상적인 왕위 계승 방식은 ‘선양’이라는 형태였다. 이는 유교 정치의 이상향으로 불리는 요순시대에 나타난 왕위 계승 방식으로, 형제나 장자에게 왕위를 계승하는 혈연적 세습 방식이 아니라 자격을 갖춘 자에게 왕위를 넘겨주는 것을 의미했다. 선양에서 추구하는 왕의 자격은 덕과 공공성으로 집약된다. 덕은 공손, 겸양, 효도 등 개인적인 덕성에 그치지 않고, 백성의 화목과 나라의 안정 및 번영이라는 공적인 것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민심과 민생의 안녕을 통해 하늘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점에서 왕권에 정당성을 부여해 줄 수 있었다. 국가는 왕의 개인적 소유물이 아니라 공적인 것이기 때문에 자격을 갖춘 자가 다스려야 하였고, 덕이 있는 사람이 왕위에 올라야 정당성이 부여된다고 보았던 것이다. 덕을 갖춘 자가 왕위를 계승하는 것이 공공성에 기초한 정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었고, 이를 통해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선양에 담긴 생각이었다. 많은 유교 국가에서 선양에 담긴 가치를 왕위 계승 방식에 담으려 하였으나 혈통을 중심으로 왕위가 계승되는 왕조 국가에서 선양은 불가능했고, 이는 조선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조선의 왕위 계승 방식에는 수선, 사위, 반정이 있었다. 수선은 선왕이 생전에 후계자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것이었다. 혈통 내에서의 왕권 이동이었지만 통치자로서의 최고의 자질을 갖춘 후계자로 이어진다는 점이 강조되었고, 이전의 왕이 다음 왕에게 직접 왕위를 물려준다는 점에서는 선양과 유사하였다. 수선일 때 즉위식의 절차는 선왕이 왕위를 물려준다는 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선왕이 후계자에게 대보*를 전하면 후계자는 사양하는 글을 올리고 대보를 다시 선왕에게 바쳤다. 이러한 절차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후계자가 지닌 겸양의 태도를 강조하는 것이었다. 이는 후계자가 혈통 때문에 왕위를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의 자질을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명을 받고 왕위에 오른다는 것을 보여 주는 하나의 방법이었다.

사위는 선왕이 세상을 떠난 후 후계자가 왕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었다. 조선에서 대부분의 왕위 계승은 사위를 통해 이루어졌고, 즉위식의 절차에는 선왕의 죽음이라는 특수성이 반영되었다. 수선은 즉위식이 궁궐의 전(殿)에서 행해지지만 사위는 이와 달리 문(門)에서 행해졌다. 이는 선왕의 죽음을 애통해하며 차마 왕위에 나아가지 못하는 후계자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었다. 선왕의 죽음을 막지 못한 불효자가 왕위에 오르는 의식을 전에서 편하게 치를 수 없다는 의미인 것이다. 선왕에 대한 효를 중요시하였기 때문에 왕의 즉위식은 선왕의 죽음을 애통해하는 국상 의식의 일부로 포함되었다. 새로운 왕은 왕위 계승 자체에 관심을 두지 않고 선왕의 죽음을 추모하는 데 집중하였으며, 먼저 상복을 입는 의식을 거행한 후 임시로 일반 복장을 입는 방식으로 즉위식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의식을 통해 후계자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할 애통의 마음을 지니고 있으며 그 마음을 자각하고 묵묵히 실천하는 자라는 것을 보여 주려고 하였다.

반정은 난세를 바로잡아 바른 곳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로, 군사를 일으켜서 기존의 왕을 폐위하고 새로운 왕을 세우는 방법이었다. 반정은 신하들이 새로운 왕을 추대하는 것이고, 대비의 승인을 통해 공식화됐다.

*대보: 국권의 상징으로 국가적 문서에 사용하던 임금의 도장.

1. <보기>는 뒷글을 읽은 뒤 학생들이 보인 반응이다. <보기>의 ①, ②에 들어갈 단어를 뒷글에서 찾아 각각 쓰시오.

<보 기>

민수: 유교 국가에서는 (①)(이)야말로 왕위 계승의 이상적인 형태였던 것 같아. 조선은 혈통을 중심으로 왕위를 승계하면서도 (①)이/가 지닌 가치를 추구했다고 할 수 있지.

미나: 수선은 결국 혈통을 왕위 계승의 중요한 요건으로 보면서, 유교적 덕목을 고려한 왕위 계승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어. 왕족 가운데에서 통치자로서 최고의 자질을 갖춘 후계자를 고른다는 점에서 특히 그렇지.

영미: 사위에는 선왕의 죽음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존재해. 그래서 즉위식이 선왕의 죽음을 애도하고, 추모하는 의례인 (②)의 일부로 다뤄진 거야. 궁궐의 전(殿)이 아닌 문(門)에서 즉위식을 진행했던 것도 그 때문이지. 이로써 새 임금의 효심을 드러낼 수 있었어.

①: _____ (4점)

②: _____ (4점)

2. 윗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할 때, <보기>의 ①, ②에 들어갈 단어를 윗글에서 찾아 각각 쓰시오.

<보 기>

조선의 4대 왕인 세종은 (①)(이)라는 방식에 의해 왕위에 올랐다. 이는 후계자가 선왕으로부터 직접 자리를 물려준다는 전교*를 받고 왕위에 오르는 것을 말한다. 태종은 전교에서 셋째 아들인 충녕대군(훗날 세종)을 세자로 삼고 그에게 왕위를 물려줄 것을 천명하였다. 또한 태종은 세자가 총명하고 성품이 공손하며, 효를 행한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백성을 편안하고 화목하게 할 수 있기에 자신의 후계자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태종은 이 같은 전교와 함께 대보를 세자에게 전달하였고, 세자는 사양하는 글과 함께 대보를 다시 태종에게 바치는 일을 반복하였다. 이것은 세자가 왕으로서 갖추어야 할 개인적인 덕성 가운데 특히 (②)을/를 지녔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세자는 태종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

*전교: 임금이 명령을 내림. 혹은 그 문서.

①: _____ (4점)

②: _____ (4점)

■ 예시 답안

[문항 1]

- ① 선양 (4점)
② 국상 (4점) / 국상 의식 (2점)

풀이

지문은 유교 국가에서 왕위 계승의 양상을 소개하고, 각각이 지니는 특성을 설명한 것이다. 지문에는 가장 유교적인 왕위 승계 방식인 선양과 그에 요구되는 덕과 공공성이라는 왕위 계승권자의 요건, 수선·사위·반정 등의 의미와 진행의 양상 등이 단락별로 구분되어 설명되어 있다. 민수의 발화는 유교 국가에서 가장 이상적인 왕위 계승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이고, 영미의 발화는 사위에 전제된 국왕의 죽음과 새로운 왕의 즉위식 사이에서 무엇을 우선시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문항 2]

- ① 수선 (4점)
② 겸양 (4점) / 공손 (2점) / 효도 (2점)

풀이

세종이 태종에게 왕위를 물려받아 즉위하는 방식은 지문에 제시된 즉위식의 방식 가운데 수선에 해당한다. 선왕이 살아 있는 동안 최고의 자질을 지닌 후계자를 고르고, 그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방식이 수선이다. 세종은 태종이 재위에 있는 동안 세자로 책봉되고, 태종이 내리는 교서를 받아 후계자로 공인된다. 태종은 세자에게 왕위를 이양할 것을 천명하는데, 세종은 이를 단번에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 사양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왕이 지녀야 할 덕성 가운데 겸양의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1번	※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2점 - 첫 어절과 끝 어절을 제대로 찾지 못했을 경우 - 괄호 넣기에서 앞뒤 문맥과 호응하지 못했을 경우 - 글자 수 제한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 발문이 요구하는 2가지 조건 중 1개만 어겼을 경우 - 윗글에서 찾으라는 지시를 어겼을 경우(학생이 임의로 답안 작성) * 위의 조건들이 중복되더라도 1회만 감점(-2점) * 위의 감점 기준은 이하 문항에서 모두 동일하게 적용됨. ①, ②를 각각 4점으로 배점 ① 선양 ② 국상 ②에 ‘국상 의식’이라고 쓸 경우 문제의 지시를 어긴 것이므로 2점 인정 이 외에는 오답으로 처리함. 답안 작성에서 띄어쓰기는 채점과 관련 없음.	8점
2번	①, ②를 각각 4점으로 배점 ① 수선 ② 겸양 ②에 공손 / 효도라고 쓴 경우 2점 인정	8점

문항 3~4

[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노후를 대비하는 대표적 수단인 연금은 주로 은퇴 후 사망 시까지, 매달 일정액을 수급하는 제도 또는 매달 수령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는 국민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다. 이 제도의 핵심 목적은 개인과 가구의 노후 소득 보장 측면에서의 소비 평준화이다. 소비 평준화란 경제 활동을 하는 시기에 얻은 소득을 은퇴 후의 소비에도 쓸 수 있도록 생애 소득을 배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공적 연금 제도인 국민연금 제도는 경제 활동 시기에 소득의 일정 부분을 정기적으로 납부하고 은퇴 후 사망 시까지 매달 일정액을 수급하는 제도로서, 10년 이상 가입한 사람만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수령하는 연금은 기본 연금액에 지급률을 곱하여 결정된다. 기본 연금액은 가입자 개인의 소득 평균액뿐 아니라 국민연금 제도의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을 함께 고려하여 산정한다. 이를 단순화하여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이 30, 소득 평균액이 가입자 A는 10, 가입자 B는 50이라고 하자. 가입자 개인의 소득 평균액과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을
- [A] 더한 값을 2로 나눈 만큼 연금을 받는다면, A는 20, B는 40을 받을 것이다. 이처럼 국민연금에서는 소득 평균액이 낮은 이들이 소득이 많은 이들에게서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국민연금은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하는 동시에 가입자들 간의 소득을 재분배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한편 사적 연금 제도도 있는데, 이는 기업이나 개인 차원에서 노후 준비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노후의 보충적 소득 보장을 목표로 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사적 연금 제도인 연금 저축 제도는 최소 5년 이상 납입하면 납입 금액을 만 55세 이후부터 일정 기간 연금으로 나누어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예금이나 적금으로 이자를 받을 때 일정 비율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연금 저축 계좌의 이자를 연금으로 받을 때는 이보다 훨씬 낮은 비율의 세금이 책정된다. 또한 근로자에게는 연금 저축 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세금 감면을 해 준다. 하지만 만 55세 이전에 계좌를 중도에 해지하면 납입한 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 없고, 국가가 정한 특별한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는 감면받은 세금을 반환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혜택은 국민의 노후 준비 지원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 경제 활동을 한 기간이 짧거나 없는 이는 수령할 연금이 없거나 부족할 수 있다. 이러한 이들이 노후를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많은 나라에서 기초 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초 연금 제도를 분류하는 방식은 매우 다양한데, 대표적으로 사회 수당형, 최저 소득 보장형, 최저 보장 연금형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사회 수당형은 수급 연령과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소득 및 자산 조사 없이 연금을 지급하는 범주형 방식이다. 연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제거할 수 있지만, 취약 계층을 특정하여 지원할 수 없어 효율적이지 않고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최저 소득 보장형은 연금을 비롯한 소득 및 자산을 평가하여 소득 인정액을 산출하고, 소득 인정액이 최저 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부족한 만큼 지원하는 형태이다. 이 방식은 특정 경제 수준 이하의 노인만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운용되는 재정에 비해 빈곤이 해결되는 비율이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주택, 자동차, 현금 등의 자산을 조사하는 데 행정 비용이 들 수 있고, 수급 여부와 수급 금액이 소득 및 자산을 기준으로 결정되므로 근로 의욕을 저해할 수 있다. 최저 보장 연금형은 수령 연금을 조사하여 국가가 정한 연금 수령 기준 금액보다 적은 연금을 수령하는 노인에게 차액을 보충해 주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다른 소득이나 자산을 조사할 필요 없이 연금만 조사하면 되므로 행정 업무 처리를 간단히 할 수 있지만, 수급 대상자가 많으면 소요 예산이 크기 때문에 공적 연금이 충분히 성숙하여 은퇴자 대부분이 높은 수준의 노령 연금을 수급하는 상태에서 도입할 수 있다. 또한 연금 소득은 많지만 연금 이외의 소득이 적은 사람은 수급 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반면, 연금 소득은 적지만 연금 이외의 소득이 많은 사람은 수급 대상자가 되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경제 활동 시기에 연금 저축을 할수록 기초 연금 수령 금액이 줄어들어 취약 계층의 저축 유인을 저해할 수 있다.
- [B]

3. 밑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할 때, <보기>의 ①, ②에 들어갈 말을 밑글의 [A]에서 찾아 각각 쓰시오(①은 세 음절, ②는 두 어절로 쓸 것).

<보 기>

- 청년 갑은 2014년에 취직하면서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었고, 개인 차원에서 연금 저축 제도에도 가입하여 2025년 현재까지 계속 납부하고 있다.
- 국민연금의 기본 연금액은 향후 갑이 은퇴하여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이 되었을 때, 갑의 소득 평균액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을 함께 고려하여 산정한다. 이것은 국민연금이 가입자 간의 소득을 (①)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 갑은 연금 저축 제도를 통해 (②)의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만 55세까지 연금 저축 계좌를 유지할 계획이다.

①: _____ (4점)

②: _____ (4점)

4. 밑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할 때, <보기>의 ①, ②에 들어갈 말을 밑글의 [B]에서 찾아 각각 쓰시오(①은 세 어절, ②는 세 음절로 쓸 것).

<보 기>

△△국은 사회 수당형 기초 연금 제도를 운영하다가 2022년부터 국가가 정한 연금 수령 기준 금액보다 적은 연금을 수령하는 노인들에게 차액을 보충해 주는 방식의 기초 연금 제도인 (①)(으)로 변경하였다. △△국에 사는 노인 을은 과거의 경제 활동 시기에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가입했던 연금 제도를 통해 매달 일정한 금액의 공적 연금을 수령하고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2022년부터는 이전보다 많은 금액의 기초 연금을 수령하게 되었다. 이는 노인 을이 받았던 연금이 국가가 정한 연금 수령 기준 금액보다 적었기 때문이다. 한편 제도가 변경된 이후, 소득이 동일하더라도 소득 중 연금의 비중이 적은 사람은 기초 연금을 수령하고, 연금의 비중이 큰 사람은 기초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②)에 대한 논란이 있다.

①: _____ (4점)

②: _____ (4점)

■ 예시 답안

[문항 3]

- ① 재분배 (4점) / 평준화 (4점) / 분배 (2점)
 ② 세금 감면 (4점) / 이자 (2점)

풀이

지문은 공적 연금, 사적 연금, 기초 연금 제도를 소개하고 각각의 특징을 설명한 것이다.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공적 연금 제도에는 국민연금이 있으며 가입자들 간의 소득을 재분배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개인적 차원에서 노후의 보충적 소득 보장을 위해 가입하는 사적 연금 제도에는 연금 저축 제도가 있으며 세금 감면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문항 4]

- ① 최저 보장 연금형 (4점) / 최저 보장 연금 (4점)
 ② 형평성 (4점) / 대상자 (4점) / 수급 대상자 (2점)

풀이

지문에서 [B] 단락은 다양한 기초 연금 제도를 소개하고 각각의 장단점이 설명되어 있다.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 연금 제도에는 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소득 및 자산 조사 없이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 수당형, 소득 인정액이 최저 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부족한 만큼 지원하는 최저 소득 보장형, 수령 연금이 국가가 정한 기준 금액 미만인 노인에게 차액을 보충해 주는 최저 보장 연금형이 있다. △△국은 2022년부터 국가가 정한 연금 수령 기준 금액보다 적은 연금을 수령하는 노인들에게 차액을 보충해 주는 방식의 ‘최저 보장 연금형’으로 제도를 변경하였다. 이 제도는 연금 소득은 많지만 연금 이외의 소득이 적은 사람은 수급 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반면, 연금 소득은 적지만 연금 이외의 소득이 많은 사람은 수급 대상자가 되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①은 변경된 제도가 어떤 것인지를 묻고 있기 때문에 ‘최저 보장 연금형’이 답이 되어야 하며, ②는 이 제도의 문제가 되는 ‘형평성’이 답이 된다.

■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3번	①, ②를 각각 4점으로 배점 ① 재분배 (4점) / 평준화 (4점) / 분배 (2점) ② 세금 감면 (4점) / 이자 (2점) ①에 ‘분배’라고 쓴 경우, 지문에서 찾아 쓰라는 지시를 위반한 것이므로 2점으로 인정 ②에 ‘이자’라고 쓴 경우, 지문에서 찾아 쓰라는 지시를 위반한 것이므로 2점으로 인정 이 외에는 오답으로 처리함. 답안 작성에서 띄어쓰기는 채점과 관련 없음.	8점
4번	①, ②를 각각 4점으로 배점 ① 최저 보장 연금형 (4점) / 최저 보장 연금 (4점) ② 형평성 (4점) / 대상자 (4점) / 수급 대상자 (2점) ②에 ‘수급 대상자’라고 쓴 경우, 지문에서 찾아 쓰라는 지시를 위반한 것이므로 2점으로 인정 이 외에는 오답으로 처리함. 답안 작성에서 띄어쓰기는 채점과 관련 없음.	8점

문항 5~6

[5~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통과 의례라는 용어는 1900년대 초 프랑스의 인류학자 아르놀트 방주네프가 어떤 개인이 새로운 지위, 신분, 상태를 획득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여러 가지 의식이나 의례를 총칭하기 위해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그는 『통과 의례』라는 책을 통해 사회 문화 속에서 통과 의례가 차지하는 위상을 자리매김하고, 다양하고 구체적인 사례들을 분석함으로써 통과 의례의 일반적 구조와 특성에 관한 이론을 정립하였다. 결과적으로 통과 의례를 어떤 사회를 구성하고, 지탱하는 중요한 구조로 파악한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방주네프는 통과 의례를 개인보다는 사회적 관점에서 바라보았다고 할 수 있다.

방주네프는 통과 의례가 넓은 차원에서 인간들이 구성한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며, 개인의 정체성과 사회 집단 유지에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삶이란 일률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으며 인간의 경험은 탄생, 사춘기, 혼인, 출산, 죽음 같은 일상적인 단계들과 삶의 위기들로 구성되어 있다. 즉 별다른 일이 벌어지지 않는 시기와 변화가 수반되는 시기가 교차한다는 것이다.

방주네프는 일반적으로 통과 의례가 ‘분리 → 전이 → 통합’의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하였다. 첫 번째 단계인 분리 단계는 의례의 입문자를 그가 속해 있던 세속적 시·공간으로부터 분리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입문자는 모종의 방식으로 기존 사회 구조로부터 분리된다. 그리고 그가 머무는 공간도 일상적 시·공간과 역할에서 벗어나 하나의 문화적 영역으로 구축된다. 두 번째 단계인 전이 단계는 이전 단계에서는 벗어났지만 아직 다음 단계로는 진입하지 못한 경계의 상태이다. 전이 단계에서는 모호성이나 혼동 또는 불균형이 표시되는데, 입문자는 상징적인 보디 페인팅을 한다거나 발가벗겨지는 등의 방식으로 기존 사회의 구성원들과 차별화된 위상을 드러낸다. 방주네프는 전이 단계를 과거의 자아를 버리고 새로운 자아로 태어나기 위한 과정이라고도 하였다. 마지막 단계인 통합 단계에서 입문자는 사회에 통합되며 안정되고 분명한 위치로 돌아간다. 전이 단계를 통해 존재론적 변화를 경험한 입문자는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져 온 제약에서 벗어나 통합 단계에서 새로운 사고가 가능해지는 상태에 도달했음을 인정받는 것이다.

그러나 방주네프의 이론은 일반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성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는다. 미르체아 엘리아데는 『신비로운 탄생: 입문식의 몇 가지 유형에 관한 논고』라는 그의 책에서 통과 의례를 ‘격리 → 시련 → 재생’의 세 단계로 구분하였다. 엘리아데는 통과 의례를 사회적 측면보다 개인의 실존적 측면에서 바라보았다. 그는 남성과 여성 또는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으로 차이가 나는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며 통과 의례에는 성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대표적인 경우가 소년의 성인식과 소녀의 성인식이다. 엘리아데는 소녀의 성인식과 관련해 몇 가지 주목할 점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소녀의 성인식은 고대 기록에서부터 그 증거가 발견되지만 소년의 성인식만큼 광범위하게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 소녀의 성인식은 소년의 성인식 의례들에 비해 훨씬 덜 발달되어 있다는 것, 소녀의 성인식은 개별적으로 행해진다는 것이다. 그는 소년의 성인식이든 소녀의 성인식이든 친숙한 세계로부터 떼어 놓는 단절을 강제하는 것은 같지만 소년의 성인식이 일정한 나이가 된 소년들을 대상으로 집단적으로 행해지는 반면, 소녀의 성인식은 생리적 징후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을 남성은 문화와 결부된 존재이고, 여성은 자연과 결부된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5. 윗글의 내용을 <보기>와 같이 도식화했을 때, <보기>의 ①, ②에 들어갈 말을 윗글에서 찾아 각각 쓰시오(①은 한 어절, ②는 두 어절로 쓸 것).

<보 기>

구분	아르놀드 방주네프	미르체아 엘리아데
통과 의례의 단계	• 분리 → 전이 → 통합	• 격리 → 시련 → 재생
통과 의례에 대한 견해	• 통과 의례에서 나타나는 일반성과 보편성을 토대로 이론을 정립함 • 통과 의례를 (①) 측면과 문화적 측면에서 주목함 • 통과 의례의 다양한 사례를 검토했지만, 통과 의례에서 발견되는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특별히 고려하지 않음	• 방주네프의 이론은 일반성을 지나치게 강조했다고 비판함 • 통과 의례를 개인의 실존적 측면에서 바라봄 • 통과 의례에 내재한 (②)을/를 주목한 결과 남성을 문화적 존재로, 여성을 자연적 존재로 해석함

①: _____ (4점)

②: _____ (4점)

6. 밑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할 때, <보기>의 ①, ②에 들어갈 말을 밑글에서 찾아 각각 쓰시오(①은 한 어절, ②는 두 어절로 쓸 것).

<보 기>

아프리카 콩고의 부족은 ‘응킴바’라는 사춘기 의례를 치른다. 응킴바에서 사춘기 소년들은 숲속의 오두막에 들어가 격리되며 그동안 죽어 있는 상태로 간주된다. 죽어 있는 상태로 간주되는 사춘기 소년들은 살아 있는 사람들과 구분되기 위해 옷을 벗고 다니며 스스로 남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강물에 몸을 씻고 오두막을 태워 버린 후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행동들을 다시 배우는 것처럼 행동한다. 부족 사람들은 응킴바를 거친 소년들이 주술적, 종교적으로 특별한 자질을 얻게 된다고 믿는다.

응킴바를 치르는 소년들은 살아 있으면서 죽은 것으로 여겨진다는 점, 남성이면서 비(非)남성이라고 스스로를 인식한다는 점에서 모호성과 혼동 속에서 지내는 셈이다. 방주네프에 따르면 이는 통과 의례 중 (①) 단계에 속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이 응킴바를 마친 후 특별한 자질을 지닌 존재가 된다고 믿는 것은 이 단계에서 (②)을/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①: _____ (4점)

②: _____ (4점)

■ 예시 답안

[문항 5]

- ① 사회적 / 사회 / 집단 / 집단적 (4점)
 ② 성적 차이 (4점) / 남녀 차이, 성별 차이 (2점)
 ①에 공동체 or 공동체적이라고 쓴 경우, 지문에서 찾아 쓰라는 지시를 위반한 것이므로 2점으로 인정
 ②에 남녀 차이 또는 성별 차이라고 쓴 경우, 지문에서 찾아 쓰라는 지시를 위반한 것이므로 2점으로 인정

풀이

통과 의례라는 개념을 일반론적으로 처음 정립한 아르놀트 방주네프의 견해를 1~3문단에 걸쳐 제시하고, 이를 비판하고 보완한 미르체아 엘리아데의 관점과 견해를 4문단에서 제시했다. 방주네프는 일반성과 보편성이라는 원리와 구조를 탐구했는데, 이는 사회적·문화적 관점에서 통과 의례를 바라본 것이다. 엘리아데는 방주네프가 일반성에 주목했다는 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통과 의례에 나타나는 남녀 간의 성적 차이를 주목하여 남성은 문화와 결부된 존재이며, 여성은 자연과 결부된 존재라고 하였다.

[문항 6]

- ① 전이 (4점)
 ② 존재론적 변화 / 차별화된 위상 / 경계의 상태 (4점) / 변화 (2점)

풀이

<보기>에 제시된 사례는 콩고에서 발견되는 사춘기 소년들의 성년 의례인 ‘응킴바’에 관한 것이다. 응킴바를 치르는 소년들이 마을에서 분리되어 전이를 겪고 다시 공동체에 통합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전이’ 과정에서 겪는 경계성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한다. 특히 옷을 벗고 다니거나 남자이면서 남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것에서 잘 나타난다. 이들이 통합 후 다른 존재가 되었다고 여겨지는 것은 전이 과정에서 존재론적 변화를 겪었기 때문이다.

■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5번	①, ②를 각각 4점으로 배점 ① 사회적 / 사회 / 집단 / 집단적 ② 성적 차이 / 남녀 차이, 성별 차이 ①에 공동체 or 공동체적이라고 쓴 경우, 지문에서 찾아 쓰라는 지시를 위반한 것이므로 2점으로 인정 ②에 남녀 차이 또는 성별 차이라고 쓴 경우, 지문에서 찾아 쓰라는 지시를 위반한 것이므로 2점으로 인정 이 외에는 오답으로 처리함. 답안 작성에서 띄어쓰기는 채점과 관련 없음.	8점
6번	①, ②를 각각 4점으로 배점 ① 전이 ② 존재론적 변화 / 차별화된 위상 / 경계의 상태 ②를 ‘변화’라고 쓴 경우 두 어절로 쓰라는 문제의 지시를 어긴 것이므로 2점 인정 이 외에는 오답으로 처리함. 답안 작성에서 띄어쓰기는 채점과 관련 없음.	8점

문항 7~10

[7~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김천의료원 6인실 302호에 산소마스크를 쓰고 암 투병 중인 그녀가 누워 있다
바닥에 바짝 엎드린 가재미처럼 그녀가 누워 있다
나는 그녀의 옆에 나란히 한 마리 가재미로 눕는다
가재미가 가재미에게 눈길을 건네자 그녀가 울컥 눈물을 쏟아낸다
한쪽 눈이 다른 한쪽 눈으로 훑아 붙은 야윈 그녀가 운다
그녀는 죽음만을 보고 있고 나는 그녀가 살아온 파랑* 같은 날들을 보고 있다
좌우를 흔들며 살던 그녀의 물속 삶을 나는 떠올린다
그녀의 오솔길이며 그 길에 돌아나던 대낮의 빠꾸기 소리며
가늘은 국수를 삶던 저녁이며 흙담조차 없었던 그녀 누대의 가게를 떠올린다
두 다리는 서서히 떨어져 가랑이지고
폭설을 견디지 못하는 나뭇가지처럼 등뼈가 구부정해지던 그 겨울 어느 날을 생각한다
그녀의 숨소리가 느릅나무 껍질처럼 점점 거칠어진다
나는 그녀가 죽음 바깥의 세상을 이제 볼 수 없다는 것을 안다
한쪽 눈이 다른 쪽 눈으로 캄캄하게 쏘려 버렸다는 것을 안다
나는 다만 좌우를 흔들며 헤엄쳐 가 그녀의 물속에 나란히 눕는다
산소호흡기로 들이마신 물을 마른 내 몸 위에 그녀가 가만히 적셔 준다

- 문태준, 「가재미」

*파랑: 작은 물결과 큰 물결.

(나)

[앞부분 줄거리] 다니던 회사의 폐업으로 아버지가 실직하자 어머니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 아버지에게 사업을 하게 한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업마저 실패를 하게 되고 ‘나’의 집은 산동네 전셋집으로 이사한다. 가난을 인정하기 싫었던 어머니는 ‘나’를 제외한 가족들과 함께 연탄가스를 맡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다. 그 후 ‘나’는 어머니와 달리 가난을 회피하지 않고 봉제 공장에 다니면서 미싱사가 될 꿈을 꾸며 열심히 산다. 도금 공장에 다니는 상훈을 만난 ‘나’는 생활비 절약을 위해 그와 동거를 시작한다.

아침에 나는 우리 공동의 예금 통장을 상훈이한테 주면서, 돈을 거두려면 먼저 그 주동자가 선뜻 돈을 내놓고 나서 남에게 손을 벌리는 게 순서이고, 그렇게 해야 일이 쉬울 거라고 일러 줬다. 얼마간이라도 견히는 대로 빨리 갖다주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공장에 나와서도 뭔가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걸로 온종일 마음이 흐뭇했다. 내가 살고도 남아 남을 돕는다. 생각만 해도 자랑스러웠다.

그러나 밤에 집에 돌아온 나는 기절을 할 만큼 놀랄밖에 없었다. 예금 통장에 잔고가 한 푼도 남아 있지 않았다. 몽땅 털어 폐병쟁이한테 갖다줬다는 거였다. 삼만 원이 넘는 돈을 몽땅, 그게 어떤 돈이라고. 정말이지 미치고 환장을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그럴 수는 없는 일이었고 나 역시 미치고 환장을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참아 줄 수 없는 일이었다.

[A] “미안하게 됐어. 그렇지만 말야, 네가 몰라서 그렇지 누구한테 돈을 건니? 다 말도 못 하게 지독한 가난뱅이들뿐인걸.”

“뭐라구. 모두 가난뱅이들뿐이라구? 그럼 우린 뭐니? 우린 부자니, 응? 우린 부자야?”

나는 내 분을 내가 이기지 못해 그의 먹살을 잡고 질질 끌어가다 골통을 벽에다 쿵쿵 부딪쳐 주었다. 그래도 그는 태평스레 히죽히죽 웃었다. ㉠그는 삼만여 원 중 반이 넘는 돈이 자기 돈인데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있었다. 그렇다고 그가 그 폐병쟁이를 뼈아프게 동정했던 것도 아니란 걸 나는 안다. 둘 다 그에겐 조금도 절실하지 않았다. 바로 그것이 문제였다. 따라서 도와주고 싶은데 돈은 아깝고, 그래서 돈을 꺼냈다 넣었다, 이천 원을 내놓을까, 삼천 원을 내놓을까, 천 원 상관으로 십 분도 넘어 괴로워하고 도와줄까 말까로 한 시간도 넘어 애타심과 이기심이 투쟁을 하는 그 뼈아픈 갈등을 전연 겪지 않

고, 헌신짝 버리듯 무심히 삼만여 원을 그냥 버렸던 것이다. 그걸 깨닫자 나는 오한처럼 오싹 기분 나쁜 불안감을 느꼈다.

“넌 뭐니, 넌 뭐야? 이 새끼야. 넌 부자니, 부자야?”

나는 불안을 털어 버리려고 다시 약을 썼지만 그는 여전히 히죽히죽 웃기만 했다. 나는 제풀에 지쳤다. 나는 기진맥진 지칠 대로 지쳤는데도 좀처럼 잠들지 못했는데 그는 곧 잠들었다. 나는 수명이 다 돼 침침한 20층짜리 형광등 밑에서 그의 자는 얼굴을 곰곰이 들여다보았다. 도대체 넌 뭐냐? 삼만 원이 넘는 돈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편히 잠들 수 있는 너는 뭐냐. 기가 죽지 않는 건 좋다고 치자. 그렇지만 너의 그건 가난뱅이들의 억척스럽고 모진 그 청청함하곤 확실히 다르다. 전연 이질적인 것이다. 나는 깊이 전율했다.

[중략 부분 줄거리] 폐병에 걸린 공장 동료에게 너무 큰돈을 선뜻 쥐 버린 상훈과 갈등을 벌인 후 ‘나’는 가끔 발작적으로 상훈에게 신경질을 부린다. 어느 날 아무런 예고도 없이 상훈이 집을 나가고, ‘나’는 공장에 나가 있는 동안 그가 돌아와 있을 것만 같은 확신으로 하루하루를 보낸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와 보니 상훈이 돌아와 있었는데, 그는 대학 배지를 단 좋은 옷을 입고 두꺼운 책까지 들고 있었다. 그가 도둑질을 해서 가짜 대학생 행세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 ‘나’는 겁먹은 소리로, 미쳤냐며 상훈에게 악을 쓴다.

“여봐, 이러지 말고 이제부터 내가 하는 소리를 정신 차리고 똑똑히 들어. 나는 미치지도 않았고 도둑놈은 더구나 아냐. 나는 부잣집 도련님이고 보시는 바와 같이 대학생이야. 아버지가 좀 별난 분이실뿐이야. 아들자식이 너무 고생을 모르고 자라는 걸 걱정하셔서 방학 동안에 어디 가서 고생 좀 실컷하고, 돈 귀한 줄도 좀 알고 오라고 무일푼으로 나를 내쫓으셨던 거야. 알아듣겠어?”

어떻게 그걸 알아들을 수가 있단 말인가. 우리 어머니는 부자들이 얼마나 호강들을 하며 사나에 대해 아는 척하기를 좋아했었다. 세상에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고 못 하는 게 없고, 인생의 온갖 열락이 돈 주위에 아양을 떨며 모여든다고 했다. 그렇지만 가난뱅이 짓을 장난삼아 해 보는 부자들에 대해선 들은 바가 없다.

“우리 아버지 좋은 분이야. 요즈음 세상에 보기 드문 분이지. 자식들에게 호강 대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하고 싶으셨던 거야. 덕택에 나는 이번 방학에 아주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지.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귀한 경험이었어.”

참, 생각한다. 인형 옷 만드는 집 아줌마가 텔레비전 연속극 애길 하면서, 자존심 강한 재벌의 아들이 인생 공부 삼아 물장산가 뭔가 하는 얘기를 하던 것이 생각한다. 아무리 연속극이라지만 구역질 나는 얘기라고 생각했다. 도대체 가난을 뭘로 알고 즈네들이 희롱을 하려고 해. 부자들이 제 돈 갖고 무슨 짓을 하든 아랑곳할 바 아니지만 가난을 희롱하는 것만은 용서할 수 없지 않은가. 가난한 계집을 희롱하는 건 용서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가난 그 자체를 희롱하는 건 용서할 수 없다. 더군다나 내 가난은 그게 어떤 가난이라고.

“아버진 만족하고 계셔, 내가 그동안 그 지독한 생활을 잘 견딘 걸. 그래서 친구분한테도 자식들을 그렇게 고되게 키우는 걸 권하실 모양이야. 실상 요새 있는 사람들, 자식을 너무 연하게 키우거든.”

맙소사. 이제부터 부자들 사회에선 가난 장난이 유행할 거란다. 기름진 영감님들이 모여 앉아, 자네 자식 거기 아직 안 보냈나? 웬걸, 지금 여권 수속 중이네. 누가 그까짓 미국 말인가, 빈민굴 말일세 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기분 좋아하시는 김새를 타 가지고 네 얘기를 했어. 이런저런 빈민굴의 비참한 실정을 말씀드리다가 대수롭지 않게 슬쩍 내비쳤지. 글썽 하룻밤에 연탄 반 장을 애끼자고 체온을 나누기 위한 남자를 한 이불 속에 끌어들이는 여자애가 다 있더라고 말야. 물론 끌려 들어간 남자가 나였단 소리는 빼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의외로 깊은 관심을 보이시고 집에 데려다 잔심부름이라도 시키다가 쓸만하면 어디 야학이라도 보내자고 하시잖아. 좋은 기회야. 이 기회에 이런 끔찍한 생활을 청산해. 이건 끔찍할뿐더러 부끄러운 생활이야. 연탄을 애끼기 위해 남자를 끌어들이는 생활을 너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

암 부끄럽고말고. 부끄럽다. 부끄럽다. 부끄럽다. 부끄럽다. 당장 이 몸이 수증기처럼 사라질 수 있으면 사라지고 싶게 부끄럽다. 부끄럽다.

“자, 돈 여기 있어. 다시 데리러 올 테니 옷가지라도 준비해. 당장이라도 데리고 가고 싶지만 그런 꼴로 갈 순 없잖아.”

나는 돈을 받아 그의 얼굴에 내동댕이치고 그리고 그를 내쫓았다. 여섯 방의 식구들이 맨발로 뛰어나와 구경을 할 만큼 목이 터지게 악다구니를 치고 갖은 욕설을 퍼부어 그가 혼비백산 도망치게 만들었다.

“가엾게시리, 미쳤구나.”

그는 구두짝을 주섬주섬 집어 들고 도망치면서 중얼거렸지만 아마 곧 나에 대해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폐병쟁이를 잊어버리듯이 쉬 잊어버릴 것이다.

나는 그를 쫓아 보내고 내가 얼마나 떳떳하고 용감하게 내 가난을 지켰나를 스스로 뽐내며 내 방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내 방은 좀 전까지의 내 방이 아니었다. 빗발로 얼룩얼룩 얼룩진 채 한쪽이 축 처진 반자리*, 군데군데 속살이 드러난 더러운 벽지, 지퍼가 고장 난 비닐 트렁크, 절뚝발이 날림 포마이카상, 제 몸보다 더 큰 배터리와 서로 결박을 짓고 있는 낡은 트랜지스터라디오, 우그러진 양은 냄비와 양은 식기들——, 이런 것들이 어제와 똑같은 자리에 있는데도 어제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다만 무의미하고 추했다. 어제의 그것들은 서로 일사불란 나의 가난을 구성하고 있었지만, 지금 그것들은 분해되어 추한 무용지물일 뿐이었다. 판잣집이 헐리고 나면 판잣집을 구성했던 나무 판때기, 슬레이트, 진흙덩이, 시멘트 벽돌, 문짝 등이 무의미한 쓰레기 더미가 되듯이 내 가난을 구성했던 내 살림살이들이 무의미하고 더러운 잡동사니가 되어 거기 내 동댕이쳐져 있었다. 나는 그것들을 다시 수습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았다. 내 방에는 이미 가난조차 없었다. 나는 상훈이가 가난을 흠쳐 갔다는 걸 비로소 깨달았다. 나는 분해서 이를 부르득 갈았다. 그러나 내 가난을, 내 가난의 의미를 무슨 수로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우리 집안의 몰락의 과정을 통해 부자들이 얼마나 탐욕스러운가를 알고 있는 터였다. 아흔아홉 냥 가진 놈이 한 냥을 탐내는 성미를 알고 있는 터였다. 그러나 부자들이 가난을 탐내리라고는 꿈에도 못 생각해 본 일이었다. 그들의 빛나는 학력, 경력만 갖고는 성이 안 차 가난까지를 흠쳐다가 그들의 다채로운 삶을 한 층 다채롭게 할 에피소드로 삼고 싶어 한다는 건 미처 몰랐다.

나는 우리가 부자한테 모든 것을 빼앗겼을 때도 느껴 보지 못한 째깍한 절망을 가난을 도둑맞고 나서 비로소 느꼈다.

나는 쓰레기 더미에 쓰레기를 더하듯이 내 방 속에, 무의미한 황폐의 한가운데 몸을 던지고 뼈가 저린 추위에 온몸을 내맡겼다.

- 박완서, 「도둑맞은 가난」

*반자리: 반자(지붕 밑이나 위층 바닥 밑을 편평하게 하여 치장한 각 방의 윗면.)를 바르는 종이. 흔히 여러 가지 색깔과 무늬가 박혀 있음.

7. <보기>는 심상(이미지)에 대한 설명이다.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 (가)에서 ‘청각의 시각화’라는 공감각적 심상이 드러난 시행을 하나 찾아 그대로 쓰시오.

— <보 기> —

감각적 언어는 사물에서 받은 인상이나 느낌을 보거나 듣거나 만져 보는 것처럼 표현하여 독자에게 생생한 현실감을 제공한다. 이처럼 감각에 의하여 획득한 현상이 마음속에서 재생된 것을 심상이라 하는데, 이는 인간의 오감에 해당하는 시각적 심상, 후각적 심상, 청각적 심상, 촉각적 심상, 미각적 심상으로 세분된다. 또한 하나의 감각이 다른 감각으로 전이되어 두 가지 이상의 감각이 하나의 대상 안에 나타나는 공감각적 심상이 있다. 예컨대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에서 보이는 것처럼 어떤 감각(청각)이 하나의 대상 안에서 다른 감각(시각)으로 바뀌어 나타나는 경우는 공감각적 심상에 해당한다.

_____ (8점)

8. 윗글 (가)의 시적 화자가 대상(그녀)에게 느끼는 감정과 가장 가까운 단어를 윗글 (나)의 [A]에서 찾아 쓰시오.

_____ (8점)

9. 윗글 (나)의 ㉠은 복선적 진술로 이후 전개될 내용을 암시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고려하여, ‘그가 돈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 이유’를 15자 이내로 쓰시오(단, 띄어쓰기로 인한 빈칸은 글자 수에 포함하지 않음).

(8점)

10. <보기>는 윗글 (나)에 대한 설명이다. <보기>의 ㉠에 들어갈 단어를 윗글 (나)의 [B]에서 찾아 쓰시오.

<보 기>

「도둑맞은 가난」의 배경이 되는 1970년대는 가속화된 산업화, 도시화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규모가 외적으로 성장한 시기였으나, 한편으로는 그만큼 빈부의 격차가 심화하는 시기이기도 했다. 부가 또 다른 부를 낳는 부의 확대 재생산을 통해 부유층은 점점 더 큰 부자가 되는 데 반해, 부를 창출할 자본과 수단을 갖지 못한 빈민층은 경제적 곤란과 생활의 어려움에 처했다. 또한 이러한 빈부 격차의 확대 및 심화 과정에서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힌 일부 부유층의 비인간적이고 이기적인 태도로 인해 최소한의 (㉠)마저 훼손당한 빈민층은 회복할 수 없는 절망감에 빠져드는 경우들도 있었다. 「도둑맞은 가난」이라는 소설의 제목은 이러한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 ㉠: _____ (8점)

■ 예시 답안

[문항 7]

- 그녀의 오솔길이며 그 길에 돌아나던 대낮의 빠꾸기 소리며 : 8점
- 그녀의 숨소리가 느릅나무 꺾질처럼 점점 거칠어진다 : 6점
- 가재미가 가재미에게 눈길을 건네자 그녀가 울컥 눈물을 쏟아낸다 : 4점

풀이

시 작품에서 시인은 인상을 좀 더 생동감 있게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감각적 표현과 언어를 사용한다. 즉 감정과 느낌을 구체적 형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심상’(이미지)이다. 시의 감상은 시에 나타난 화자의 정신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기에, 심상을 이해하는 것은 시를 감상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심상은 인간의 오감, 즉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과 연결되는데, 이 중 어떤 감각이 하나의 대상 안에서 다른 감각으로 전이되어 나타나는 심상을 공감각적 심상이라 한다. 제시된 발문에서는 이러한 공감각적 심상 가운데 ‘청각의 시각화’로 이루어진 시행을 찾아 쓰는 것이었다. 그렇기에 ‘그녀의 오솔길이며 그 길에 돌아나던 대낮의 빠꾸기 소리며’만이 정답으로 인정된다. ‘그녀의 숨소리가 느릅나무 꺾질처럼 점점 거칠어진다’는 공감각적 심상이지만, ‘청각의 촉각화’라는 점에서 6점에 해당한다. ‘가재미가 가재미에게 눈길을 건네자 그녀가 울컥 눈물을 쏟아낸다’는 시각과 청각이 드러나지만, 각각의 대상에 각각 하나씩의 감각이 결부되어 있는 복합 감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시행은 4점에 해당한다.

[문항 8]

- 동정 : 8점
- 애타심 : 8점
- 절실 : 4점

풀이

제시된 시 지문은 ‘가재미’라는 독특한 비유를 활용하여 죽음을 앞둔 ‘그녀’에게 건네는 따뜻한 위로와 교감을 다루고 있는 시이다. 작품은 죽음을 앞둔 채 힘없이 누워 있는 그녀를 ‘엎드린 가재미’로 나타내고 있다. 시의 화자는 그녀의 고통을 이해하고 연민과 교감을 드러내고 있는 자신 또한 ‘한 마리 가재미’로 나타냄으로써 다른 존재에게 건넬 수 있는 진정한 위로가 무엇인지를 형상화하고 있다. 발문은 이러한 시적 화자의 감정을 제시된 또 다른 지문에서 찾는 것이다. 시적 화자의 감정은 타자에 대한 연민과 이해, 공감과 교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또 다른 지문에서 제시된 ‘동정’, ‘애타심’만이 정답으로 인정된다. 다만 ‘절실’은 감정의 구체적 양태를 보여 주는 것이 아니라 상태만 드러낸다는 점에서 4점만 인정된다.

[문항 9]

- (아버지 혹은 그)가 부자(돈이 많다)이기 때문에, 가난하지 않다(절실하지 않다), 가난 경험(체험), 절실하지 않다, 가난을 희롱해서, 3만원의 가치가 낮다 : 8점
- 가난을 ‘흠치다’와 같은 진술 : 4점
- 그는 대학생 : 4점

풀이

소설에서 ‘복선’은 독자에게 궁금증과 호기심을 유발하여 독서의 몰입도를 높여 주는 기능을 한다. 또한 이후 일어날 사건을 암시하여 소설의 독해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작품 속에서 그(상훈)가 가난한 도금 공임에도 불구하고 ‘돈을 아까워하지 않’은 이유는 작품의 결미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그가 부잣집 아들이었을 뿐 아니라, 그의 가난 체험이 단지 하나의 유희적, 일회적 경험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가 나와는 다르게 부자이거나, 돈이 많거나 등 물질적 부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진술이 제시된다면, 정답으로 인정될 수 있다. 또한 가난을 하나의 이벤트성 체험으로만 여긴다는 진술 역시, 소설의 문맥상, 그가 부자라는 점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정답으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대학생’이라는 진술만 제시되면, 신분만을 객관적으로 보여 줄 뿐이라는 점에서 4점에 해당한다.

[문항 10]

- 자존심 : 8점
- 생활, 삶 : 4점

풀이

소설의 배경이 되는 1970년대 한국 현실을 제시하고 있는 <보기>의 지문은,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 속에서 점점 벌어지는 빈부격차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빈부격차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다만 물질적 부의 양극화에 따른 경제적 생활의 곤란함에만 그치지 않고, 동시에 정신적 변화를 가져온다. 즉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힌 일부 부유층의 비인간적 행태는 가난을 부끄러움으로 전락시키는 가치관의 변화를 일으킨다. 작품은 이들의 이기적인 행태가 어떻게 못 가진 사람들의 마지막 남은 존엄과 품위, 인간성을 몰락시키는지 보여 줄 뿐 아니라, 이러한 상황을 ‘도둑맞은 가난’이라는 반어적 제목으로 날카롭게 예각화시킨다. 따라서 10번 문항의 문제의 답은 ‘자존심’만이 정답으로 인정된다. 다만 ‘삶’과 ‘생활’이라는 단어는 문맥적 의미에서 어느 정도 정답에 근접하지만, 정신적 가치를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4점에 해당한다.

■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7번	‘청각의 시각화’라는 공감각적 심상 (8점) ‘청각의 촉각화’라는 공감각적 심상 (6점) 복합적 심상 (4점) 정답에 해당하는 시행의 전체를 쓰지 않는 경우 2점을 감점한다.	8점
8번	동정 (8점) 애타심 (8점) 절실 (4점)	8점
9번	그(의 아버지 혹은 집안)의 물질적 부가 충분하다는 점이 진술 안에서 확인되어야 한다.(8점) ‘부자라는 내용을 담은 문장’의 주어를 ‘나’로 쓴 경우는 오답으로 처리한다. 문항에서 ‘상훈(그)’의 행동의 이유를 묻고 있으므로 주어가 생략된 경우 ‘상훈’을 주어로 간주한다. 답안이 15자를 넘어가면 내용이 맞다고 해도 2점을 감점한다.	8점
10번	‘자존심’만 정답으로 인정함 ‘삶’, ‘생활’은 정신적 가치(존엄, 품위)에 대한 고찰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4점만 인정	8점

2026학년도 자연계열

문항 1~2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구성원들이 집합의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방식은 크게 투표와 심의로 나뉜다. 투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수단으로서 민주주의의 요체로 꼽힌다. 심의는 어떤 안건이나 일을 자세히 조사하고 논의하여 결정하는 일이다. 민주주의와 관련하여 말할 때 심의는 외적·집합적 심의를 뜻하며, 집합의 의사 결정에서 심의를 강조하는 이들을 심의 민주주의자들과 한다고 한다.

이들에 따르면, 정보의 양이 많을수록 더 나은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심의는 정보를 모으는 과정이기 때문에 합리적 의사 결정에 도달할 가능성을 높인다. 이뿐 아니라 심의는 공적이고 도덕적인 의사 결정을 도출하는 데 효과적이다. 심의는 구성원 각자의 관점을 공개하게 함으로써 사적 관점에 의한 결정을 막고 공적 관점에 의한 의사 결정을 하게 만든다. 그리고 심의는 결과의 정당성을 높여 주어 법규나 질서, 제도 등을 사회에 정착시키는 데 필요한 시간과 노력, 즉 순응 비용을 최소화하게 한다. 특히 심의를 통해 새로운 관점과 논리를 획득하는 경험은 다른 심의의 과정에서도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가능하게 한다.

심의가 갖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대 사회에서 심의가 보편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사회 규모 때문이다. 많은 구성원들이 심의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지만 수천만 명에 이르는 구성원들이 동시에 참여하는 심의는 불가능하고 설령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옳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면 심의 민주주의라는 이상과 거대 사회라는 현실을 양립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와 관련하여 가장 주목받고 있는 사람은 ‘제임스 피시킨’이다. 그에 따르면 사람들은 보통 자신과 무관한 문제에 대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정보와 지식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 앤서니 다운스는 이것이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하면서 이를 합리적 무지라고 칭하였다. 피시킨은 이처럼 합리적 무지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견을 구하는 것은 무용하다고 보았다. 그는 사안에 대해 무지하면서도 마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답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또 자신의 입맛에 맞는 정보만 취하려고 하는 확증 편향이나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에만 의존하는 가용성 편향에 기반을 둔 답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들 모두 합리적 무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인 셈이다.

이에 대안으로서 피시킨은 공론 조사를 제안하였다. 공론 조사는 표본추출에 의한 조사 방식에 참여자들의 학습과 토론 등을 통한 숙의 과정을 결합한 조사 기법이다. 공론 조사에서는 맨 먼저 숙의를 거치지 않은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 구성원 전체의 초기 의견을 파악하는 1차 조사를 실시한다. 그다음에는 숙의의 과정에 참여할 대상자를 선정한다. 표본으로 선정된 사람들은 심의의 주체가 되는데, 이때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편중되지 않게 표본을 선정하는 것이 공론 조사의 성패를 좌우한다. 그다음에는 심의의 주체가 된 사람들에게 객관적이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안에 대한 지식을 갖게 만든다. 이렇게 학습과 토론 등을 통한 숙의의 과정을 거친 참여자들에게 1차 조사 때와 동일한 조사를 함으로써 견해의 변화를 확인한다. 이 결과는 언론 발표를 통해 구성원 전체에게 공개됨으로써 효력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피시킨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을 반대하는 학자들도 존재한다. 이들은 투표 결과는 그대로 최종 결과가 되지만 공론 조사의 결과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의사 결정이 지연되지만 한다고 비판한다. 또 목적에 따라 공론 조사의 결과가 취사선택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심의의 과정을 거치면서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견해, 평판이나 사회적 압력 때문에 다양성은 제거되고 의사 결정의 질이 떨어지는 심의의 실패가 일어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내세워 투표에 의한 의사 결정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1. <보기>는 위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심의의 장점과 한계를 정리한 것이다. <보기>의 ①, ②에 들어갈 말을 위글에서 찾아 각각 두 어절로 쓰시오.

<보 기>

심의회 장점	• 정보의 취합 과정에서 정보의 양이 증대하여 합리적 의사 결정이 가능함 • 공적이고 도덕적인 의사 결정을 도출하는 데 효과적임 • 법과 제도 정착에 소모되는 시간과 노력인 (①)을/를 최소화할 수 있음
심의회 한계	• 의사 결정이 지연됨 • 수천만 명에 이르는 구성원들이 동시에 참여하는 심의는 불가능함 • (②)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심의의 결과가 옳지 않을 수도 있음

①: _____ (4점)

②: _____ (4점)

2. 밑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기>의 사례를 이해할 때, <보기>의 ①, ②에 들어갈 단어를 밑글에서 찾아 각각 쓰시오.

<보 기>

△△시에서는 관내에 원자력 발전소(원전)를 추가로 더 유치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이 여론 조사의 결과를 근거로 반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출하였다. 여론 조사의 결과는 원전을 추가 유치하는 것을 찬성하는 입장이 35%, 반대하는 입장이 54%였다. 이에 △△시는 공론 조사를 거쳐 최종적인 결정을 하겠다고 하였다. 절차에 따른 공론 조사 결과 원전을 추가로 유치하는 것에 찬성하는 입장은 59.5%로, 반대 입장을 선택한 40.5%보다 19%포인트 더 높았다. 한편, △△시가 추구하는 원전 정책의 방향에 대한 공론 조사 결과는 원전 축소가 53.2%, 원전 유지가 35.5%, 원전 확대가 9.7%로 시민들이 제출한 기존의 여론 조사와 변화가 없었다. △△시는 이 같은 결과를 참고하여 원전을 추가 유치하기로 결정했다.

이 사례에서 △△시가 공론 조사를 수행한 것은 주목할 만한 시도였다. 그렇지만 원전을 전반적으로 축소 하자는 결과와 추가 유치를 찬성한다는 결과 중, 특정한 결과만을 선택한 것이기에 일부 주민은 이 지점을 비판하기도 하였다. 즉 △△시가 목적을 정해둔 상태에서 공론 조사의 결과를 (①)했다는 것이다. 추가 원전 유치라는 결정을 두고, 일부 주민들은 숙의는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내세워 (②)(으)로 원전 유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나았겠다고 말하였다.

①: _____ (4점)

②: _____ (4점)

■ 예시 답안

[문항 1]

- ① 순응 비용 (4점)
 ② 합리적 무지 (4점) / 확증 편향 (2점) / 가용성 편향 (2점) / 무지 (2점)

풀이

제시된 지문은 민주사회에서 의사 결정의 방법인 심의의 장점과 한계, 그 대안으로 제안된 제임스 피시킨의 공론 조사의 과정과 이에 대한 반론을 종합적으로 소개한 것이다. 지문의 1~3단락에 심의의 개념을 비롯해 심의가 지니는 장점과 한계가 제시되어 있다. 이를 표로 제시한 것이 <보기>이다.

[문항 2]

- ① 취사선택 (4점) / 선택 (2점)
 ② 투표 (4점) / 1차 조사 (2점)

풀이

지문의 5~6단락은 피시킨이 제안한 공론 조사의 구체적인 방안과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정리한 것이다. 공론 조사는 여론 조사를 수행하고, 그 뒤 표본 추출을 통해 선정된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한 뒤 학습과 토론을 진행하고 다시 동일한 조사를 수행해 그 변화를 살피는 것이다. 다소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에 비용과 시간의 낭비를 지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고, 또 도출된 결과가 참고 자료로만 활용된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들은 결과의 취사선택, 시간과 비용의 낭비 등을 이유로 들어 투표의 효용을 주장한다.

■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1번	①, ②를 각각 4점으로 배점 ① 순응 비용 (4점) ② 합리적 무지 (4점) / 확증 편향 / 가용성 편향 / 무지 (2점) ②에 확증 편향 or 가용성 편향을 쓴 경우, 이들은 합리적 무지의 한 사례이므로 2점 인정 ‘무지’라고 쓴 경우 지시사항 위반으로 2점 인정 이 외에는 오답으로 처리함. 답안 작성에서 띄어쓰기는 채점과 관련 없음.	8점
2번	①과 ②를 각각 4점으로 배점 ① 취사선택 (4점) / 선택 (2점) ② 투표 (4점) / 1차 조사 (2점) ①에 선택을 쓴 경우는 2점 인정함. 문항에서 지문에서 찾아 쓰라고 요구했는데, 선택이라는 단어는 지문에 없음. 취사선택에서 특정 부분만을 취한 것이기에 2점만 인정함. ②에 1차 조사를 쓴 경우, 문맥에 따라 답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단어로 쓰라는 지시사항을 어겼으므로 2점만 인정함. 이 외에는 오답으로 처리함. 답안 작성에서 띄어쓰기는 채점과 관련 없음.	8점

문항 3~4

[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심폐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인체 내부의 여러 조직 및 기관으로 산소가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생명이 위협해질 수 있다. 심정지 상태일 때 심폐 소생술을 실시하거나 자가 호흡을 하지 못할 때 인공호흡기 등을 활용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심장이나 폐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면 응급조치나 단순한 치료만으로는 심폐 기능을 회복시킬 수 없다. 문제가 되는 부분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동안 환자의 심폐 기능을 대신하는 인공 장치를 에크모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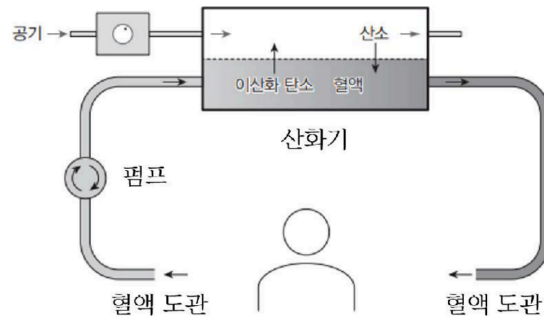
에크모는 심장과 폐를 대신하여 혈액에 산소를 공급하고 이산화 탄소를 제거하여 치료와 회복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해 준다. 심장은 순환계의 핵심 기관으로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며 압력을 생성하고 이를 통해 인체의 모든 혈관 내부에 혈액이 흐를 수 있도록 한다. 혈액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산소를 운반하여 체내의 각 조직에 공급하는 것이다. 산소는 에너지 생성, 면역, pH 균형 유지 등 인체의 생명 유지에 필수적이므로 원활한 혈액의 순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혈액은 온몸을 돌면서 산소를 공급하는 동시에 체내에서 생산된 이산화 탄소를 운반하는 역할도 한다. 이산화 탄소를 운반해 온 혈액은 대정맥을 따라 심장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우심실을 거친 후 폐동맥을 통해 폐로 들어가게 되고 폐포에서 가스 교환이 일어난다. 가스 교환이란 혈액에 있던 이산화 탄소가 제거되고 호흡을 통해 공기 중에서 체내로 들어온 산소가 혈액으로 공급되는 것이다. 새롭게 산소를 공급받은 혈액은 폐정맥을 통해 다시 심장으로 돌아온다. 이러한 과정을 폐순환이라고 하며, 폐순환을 거친 혈액은 대동맥을 따라 온몸을 순환하며 신체의 각 조직에 산소를 공급한 후 다시 체내에 있던 이산화 탄소를 가지고 대정맥으로 돌아오는 체순환을 하게 된다. 하지만 심폐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폐순환 및 체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때 에크모를 사용하여 신체의 정상적인 작용을 대신하는 것이다.

에크모는 환자의 혈액을 몸 밖으로 빼낸 후 가스 교환을 하고 다시 환자의 몸으로 주입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에크모는 혈액 도관, 펌프, 산화기로 구성되어 있다. 혈액 도관은 몸에 삽입하는 튜브 형태의 관으로 혈액을 몸에서 빼내거나 다시 넣는 통로 역할을 한다. 혈액은 유체이므로 도관의 직경이 크고 길이가 짧을수록 혈액이 더 잘 흐를 수 있다. 펌프는 혈액 도관으로 혈액이 잘 흐르게 하는 역할을 한다. 펌프에 들어온 혈액은 설정된 속도대로 회전하는데, 펌프는 회전을 통해 발생하는 힘으로 혈액을 당기거나 몸 안으로 밀어 넣게 된다. 따라서 펌프 내의 회전 속도에 따라 혈압이나 1분당 분출되는 혈액량 등이 결정된다. 만약 펌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혈액이 도관을 통해 거꾸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산화기는 혈액에 산소를 주입하고 이산화 탄소를 제거하는 기능을 하는 장치로 에크모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산화기 내부에는 성질이 다른 물질을 분리하거나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멤브레인이라는 막이 있다. 에크모에 사용되는 멤브레인은 분압차를 이용하여 산소와 이산화 탄소를 이동시킨다. 산화기에 주입하는 산소는 분압이 높은 상태로 멤브레인을 통해 반대편에 있는 분압이 낮은 혈액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다. 동시에 혈액 내에 있던 이산화 탄소는 멤브레인을 통해 반대편으로 이동하여 밖으로 배출된다.

에크모는 혈액을 빼고 다시 넣는 위치에 따라서 VA 방식과 VV 방식으로 나뉘어진다. VA 방식은 대정맥에서 혈액을 빼내어 대동맥으로 다시 넣어 주는 방식으로 환자의 심장과 폐를 대신한다. VA 방식은 심장을 통한 혈액의 정상적인 흐름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조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대정맥에서 뽑은 혈액을 산화기를 거치게 한 후 대동맥으로 넣어 주는 것이다. 즉 VA 방식은 체순환을 끝낸 혈액이 심장과 폐를 거치지 않고 다시 체순환을 하게 된다. 몸 밖으로 빼낸 혈액을 대동맥으로 넣어 줄 때는 펌프를 활용하는데 펌프는 심장의 기능을 대신하여 혈액의 흐름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고 체순환이 원활히 이루어지게 하는 역할을 한다. VV 방식은 대정맥에서 혈액을 빼내어 산화기를 거치게 한 후 다시 대정맥 내로 넣어 주는 방식이다. 따라서 이 방식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심장이 반드시 제 기능을 하고 있어야 한다. 심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산화기를 거친 혈액을 다시 대정맥으로 넣어 주면 폐순환을 하게 되고 폐포에서의 가스 교환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산소를 품은 혈액을 온몸으로 공급하는 것이 가능하다.

3. <보기>는 윗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에크모의 구조와 역할을 설명한 것이다. <보기>의 ①, ②에 들어갈 말을 윗글에서 찾아 각각 쓰시오(①은 두 음절, ②는 두 어절로 쓸 것).

<보 기>



심폐 기능에 문제가 생겨 폐순환 및 체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환자의 심장과 폐를 대신하는 인공 장치를 에크모라고 한다. 산화기는 혈액에 산소를 공급하고 이산화 탄소를 제거하는 기능을 한다. 심폐 기능이 정상인 사람이라면 (①)에서 혈액에 산소를 공급받고 혈액 내부의 이산화 탄소를 제거하지만 심폐 기능에 문제가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산화기에서 이를 대신한다. 펌프는 회전을 통해 발생하는 힘으로 혈액을 당기거나 밀어 넣게 된다. 펌프는 심장이 (②)을/를 반복하며 압력을 생성하고 인체의 모든 혈관 내부에 혈액이 흐를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같은 기능을 한다. 혈액 도관은 튜브 형태의 관으로 혈액을 몸에서 빼내거나 다시 주입하는 통로 역할을 담당한다.

①: _____ (4점)

②: _____ (4점)

4. <보기>는 윗글을 읽은 뒤 학생들이 보인 반응이다. <보기>의 ①, ②에 들어갈 단어를 윗글에서 찾아 각각 쓰시오.

<보 기>

은우: 에크모의 산화기 내부에 있는 (①)이/가 분압차를 이용해 산소와 이산화 탄소를 이동시키면서 가스 교환이 일어나는 거였군.

보라: VA 방식은 심장과 폐가 모두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않을 때 활용하고, 대정맥에서 뽑은 혈액을 산화기를 거쳐 대동맥으로 넣어 주는 거구나.

중기: VV 방식은 대정맥에서 혈액을 빼내어 산화기를 거쳐 (②)(으)로 넣어 준다는 점에서 VA 방식과 차이가 있네.

지은: VA 방식과 VV 방식 모두 신체 외부의 산화기에서 가스 교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폐순환이 정상적으로 일어나지 않더라도 환자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겠군.

①: _____ (4점)

②: _____ (4점)

■ 예시 답안

[문항 3]

- ① 폐포 (4점) / 폐 (2점) / 심폐 (2점)
 ② 수축과 이완 (4점) / 수축 이완 / 수축, 이완 / 이완과 수축 (2점)

풀이

제시된 지문은 심폐 기능을 대신하는 장치인 에크모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에크모는 심폐 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 단기간에 기능 회복이 어려운 경우, 신체에 직접 연결하여 혈액을 외부로 빼낸 후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하여 다시 신체 내부로 넣어 주는 역할을 한다. 에크모는 산화기, 펌프, 혈액 도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심폐 기능이 정상인 사람은 폐포에서 가스 교환이 일어나는데 심폐 기능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산화기에서 가스 교환이 일어난다. 펌프는 회전하며 발생하는 힘으로 혈액을 흐르게 하는데 이는 심장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며 압력을 생성하고 인체의 모든 혈관 내부에 혈액이 흐를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문항 4]

- ① 멤브레인 (4점) / 막 (2점)
 ② 대정맥 (4점)

풀이

은우는 에크모의 산화기에서 가스 교환이 이루어지는 원리를 말하고 있는데, 이는 산화기 내부에 있는 멤브레인이라는 막이 분압차를 이용해 혈액 내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이동시키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빈칸 ①에 들어갈 단어는 ‘멤브레인’이다. 에크모의 VV 방식과 VA 방식의 차이는 혈액 주입 위치가 다르다. VA 방식은 대정맥에서 뽑은 혈액을 대동맥으로 넣어 주지만 VV 방식은 대정맥에서 혈액을 빼내어 산화기를 거쳐 다시 대정맥으로 넣어 준다. 따라서 ②에 들어갈 단어는 ‘대정맥’이 되어야 한다.

■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3번	①, ②를 각각 4점으로 배점 ① 폐포 (4점) / 폐 (2점) / 심폐 (2점) ② 수축과 이완 (4점) / 수축 이완 / 수축, 이완 / 이완과 수축 (2점) ①에 ‘폐’라고 쓴 경우, 지문에서 두 음절로 쓰라고 한 지시를 위반한 것이므로 2점으로 인정. ‘심폐’는 폐를 포함하기에 유사 답안 2점으로 인정. ② 지문에 제시된 단어를 찾아서 쓰는 것으로 ‘수축과 이완’ 외에 ‘수축 이완’, ‘수축, 이완’, ‘이완과 수축’ 등으로 쓴 답은 모두 2점으로 인정 이 외에는 오답으로 처리함. 답안 작성에서 띄어쓰기는 채점과 관련 없음.	8점
4번	①과 ②를 각각 4점으로 배점 ① 멤브레인 (4점) / 막 (2점) ② 대정맥 (4점) ① 지문에 제시된 단어는 ‘멤브레인’이므로 철자를 잘못 쓴 경우에는 2점 인정함. 또한 ①에 ‘막’이라고 쓴 경우, 막의 명칭인 ‘멤브레인’을 찾아서 쓰는 것이므로 2점으로 인정 이 외에는 오답으로 처리함. 답안 작성에서 띄어쓰기는 채점과 관련 없음.	8점

문항 5

[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오늘도 또 우리 수탉이 막 쪼이었다. 내가 점심을 먹고 나무를 하러 갈 양으로 나올 때였다. 산으로 올라서려니까 등 뒤에서 푸드득, 푸드득 하고 닭의 헛소리가 야단이다.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려보니 아니나 다를까 두 놈이 또 얼렀다.

점순네 수탉(은 대강이가 크고 똑 오소리같이 실팍하게 생긴 놈)이 덩저리 적은 우리 수탉을 함부로 해내는 것이다. 그것도 그냥 해내는 것이 아니라 푸드득, 하고 면두를 쪼고 물러섰다가 좀 사이를 두고 또 푸드득, 하고 모가지를 쪼았다. 이렇게 멧을 부려 가며 여지없이 닭아 놓는다. 그러면 이 못생긴 것은 쪼일 적마다 주둥이로 땅을 받으며 그 비명이 킁, 킁, 할 뿐이다. 물론 미처 아물지도 않은 면두를 또 쪼여 붉은 선혈은 똑똑 떨어진다.

이걸 가만히 내려다보자니 내 대강이가 터져서 피가 흐르는 것같이 두 눈에서 불이 버쩍 난다. 대뜸 지게 막대기를 메고 달려들어 점순네 닭을 후려칠까 하다가 생각을 고쳐먹고 헛매질로 때어만 놓았다.

이번에도 점순이가 쌈을 붙여 났을 것이다. 바짝바짝 내 기를 올리느라고 그랬음에 틀림없을 것이다. 고놈의 계집애가 요새로 들어서서 왜 나를 못 먹겠다고 그렇게 아르릉거리는지 모른다.

나를 전 감자 쪼간만 하더라도 나는 저에게 조금도 잘못한 것은 없다.

계집애가 나물을 캐러 가면 갔지 남 울타리 엮는 데 썰이질을 하는 것은 다 뭐냐. 그것도 발소리를 죽여 가지고 등 뒤로 살며시 와서

“애! 너 혼자만 일하니?” 하고 긴치 않은 수작을 하는 것이다.

어제까지도 저와 나는 이야기도 잘 앓고 서로 만나도 본 척 만 척하고 이렇게 점잖게 지내던 터이런만 오늘로 갑작스레 대견해졌음은 웬일인가. 항차 망아지만 한 계집애가 남 일하는 놈 보구…….

“그럼 혼자 하지 때루 하디?”

내가 이렇게 내뱉는 소리를 하니까

“너 일하기 좋니?” / 또는

“한여름이나 되거든 하지 벌써 울타리를 하니?”

잔소리를 두루 늘어놓다가 남이 들을까 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는 그 속에서 깔깔댄다. 별로 우스울 것도 없는데 날씨가 풀리더니 이놈의 계집애가 미쳤나 하고 의심하였다. 게다가 조금 뒤에는 즈 집계를 할금할금 돌아다보더니 행주치마의 속으로 꺾던 바른손을 뽑아서 나의 턱밑으로 불쑥 내미는 것이다. 언제 구웠는지 아직도 더운 김이 뿜 끼치는 감자 세 개가 손에 뿌듯이 쥐였다.

“느 집엔 이거 없지?” 하고 생색 있는 큰소리를 하고는 제가 준 것을 남이 알면 큰일 날 테니 여기서 얼른 먹어 버리란다. 그리고 또 하는 소리가

“너 봄 감자가 맛있단다.”

“난 감자 안 먹는다, 니나 먹어라.”

나는 고개도 돌리려 하지 않고 일하던 손으로 그 감자를 도로 어깨 너머로 쑥 밀어 버렸다.

그랬더니 그래도 가는 기색이 없고 뿐만 아니라 썩은썩은하고 심상치 않게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진다. 이 건 또 뭐야, 싫어서 그때에야 비로소 돌아다보니 나는 참으로 놀랐다. 우리가 이 동리에 온 것은 근 삼 년째 되어 오지만 여태껏 가무잡잡한 점순이의 얼굴이 이렇게까지 홍당무처럼 새빨개진 법이 없었다. 게다가 눈에 독을 올리고 한참 나를 요렇게 쏘아보더니 나중에는 눈물까지 어리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바구니를 다시 집어 들더니 이를 꼭 악물고는 엎디어질 듯 자빠질 듯 눈독으로 흥하게 달아나는 것이다.

어쩌다 동리 어른이 / “너 얼른 시집가야지?” 하고 웃으면 / “염려 마서유, 갈 때 되면 어련히 갈라구…….”

이렇게 천연덕스레 받는 점순이었다. 본시 부끄럼을 타는 계집애도 아니거니와 또한 분하다고 눈에 눈물을 보일 얼병이도 아니다. 분하면 차라리 나의 등어리를 바구니로 한번 모질게 후려 썰리고 달아날지언정.

그런데 고약한 그 꼴을 하고 가더니 그 뒤로는 나를 보면 잡아먹으려고 기를 북북 쓰는 것이다.

설혹 주는 감자를 안 받아먹은 것이 실례라 하면 주면 그냥 주었지 ‘느 집엔 이거 없지’는 다 뭐냐. 그러잖아도 저희는 마름이고 우리는 그 손에서 배재를 얻어 땅을 부치므로 일상 굶질거린다. 우리가 이 마을에 처음 들어와 집이 없어서 곤란으로 지낼 제 집터를 빌리고 그 위에 집을 또 짓도록 마련해 준 것도 점순네의 호의였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농사 때 양식이 달리면 점순네한테 가서 부지런히 꾸어다 먹으면서 인품 그런 집은 다시없으리라고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열일곱씩이나 된 것들이 수군수군하고 붙어 다니면 동리의 소문이 사납다고 주의를 시켜 준 것도 또 어머니였다. 왜냐하면 내가 점순이하고 일을 저질렀다가는 점순네가 노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땅도 떨어지고 집도 내쫓기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까닭이었다.

- 김유정, 「동백꽃」

5. <보기>는 윗글에 대한 설명이다. <보기>의 ①을 잘 보여 주는 소재를 윗글에서 찾아 단어로 쓰고, ②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추론해서 쓰시오(②는 ‘구체적’과 같이 ‘-적’으로 끝나는 세 음절의 단어로 쓸 것).

<보 기>

「동백꽃」은 1936년에 발표된 단편 소설로, 1930년대 농촌을 배경으로 소작농의 아들인 ‘나’와 마름의 딸인 ‘점순이’의 관계와 갈등을 그린 단편 소설이다. 이 소설은 역순행적 구성을 통해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하면서 사건이 시작된다. ‘점순이’는 ‘나’에게 호감을 표시하지만, 거절을 당하고 ①야속함을 표현한다. 그런데 이는 모두 ‘나’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관심을 어리숙하고 순박한 ‘나’가 이해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상황이 이 소설의 재미이다.

1930년대 식민지 조선 대부분의 사람들은 농촌에서 농사를 지었지만, 이들 중 대부분은 소작농이었고 지주에게 땅을 빌렸다. 이때 소작료를 관리하고 소작농의 농사 활동을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마름이었다. 마름이 큰 부자는 아니지만 마을 단위에서는 가진 자이고 그 마름에 의지하여 사는 소작인은 못 가진 자이다. 못 가진 자는 의식에서나 행동에서나 소극적일 수밖에 없도록 길들여지는 것이 세상 물정이다. 즉 어리숙하고 소극적으로 보이는 ‘나’의 행동의 이면에는 (②) 차이에서 발생하는 생존의 문제가 존재한다.

①을 잘 보여 주는 소재: _____ (4점) ②: _____ (4점)

■ 예시 답안

① 수탉, 닭, 찜, 눈물 (4점) / 닭 찜, 닭찜 (2점)

② 계급적, 계층적, 신분적 (4점) / 구조적, 환경적, 문화적, 경제적, 위계적, 물질적, 금전적, 지위적, 빈부적, 재정적, 현실적, 권력적, 자본적, 재산적, 배경적, 대조적, 생계적 (2점)

풀이 <동백꽃>은 1930년대 농촌을 배경으로 소작농의 아들인 ‘나’와 마름의 딸인 ‘점순이’와의 관계와 갈등을 그린 소설이다. 점순이는 나에게 관심을 보이며 감자를 주지만, 거절을 당한다. 이에 야속함을 느낀 점순이는 닭 싸움을 통해 이를 표현하지만, 이 모든 행동은 나에게 대한 관심과 호감을 바탕으로 두고 있다. 이러한 호감을 어리숙하고 순박한 내가 못 느끼는 것이 이 작품의 재미이지만, 나의 행동은 단지 무지함에서만 오는 것은 아니다. 즉 점순이와 나는 마름과 소작인이라는 계급적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존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나의 소극성은 못 가진 자의 전형적인 자기방어로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야속함을 보여 주는 소재는 ‘수탉’, ‘닭’, ‘찜’, ‘눈물’만 인정된다. 그리고 나와 점순이의 관계를 결정짓고, 행동을 가름하는 중요한 기준은 마름과 소작농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므로 계층적, 계급적, 신분적만이 정답으로 인정된다. 다만 구조적, 환경적, 문화적, 경제적, 위계적, 물질적, 금전적, 지위적, 빈부적, 재정적, 현실적, 권력적, 자본적, 재산적, 배경적, 대조적, 생계적 등도 정확히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둘 사이의 관계를 표현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2점으로 인정한다.

■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5.	수탉, 닭, 씹, 눈물 (4점) ‘닭 씹’, ‘닭씹’은 지시 사항 위반으로 2점 감점한다. 계급적, 계층적, 신분적 (4점) 구조적, 환경적, 문화적, 경제적, 위계적, 물질적 (2점)	8점

2025학년도 인문계열

문항 1~2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세기 조선은 대내적으로 주자학의 사상 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도덕 국가 이념이, 대외적으로는 중국 중심의 문화 의식에 의거하여 서구의 음침하고 해로운 기운으로부터 조선을 지켜야 한다는 위정척사(衛正斥邪) 사상에 입각한 쇄국 정책이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주자학에 입각한 당시 유림들이 중심이 된 위정척사론자들은 서구의 과학 기술 수용을 비판하였다. 위정척사론자들의 사상적 기반을 제시하였던 이항로(1792~1868)는 과학 기술 수용에 대해 강경하게 비판하였다. 그는 성리학적 세계관을 토대로 한 이기론을 바탕으로 강상 윤리*를 모르는 사학(邪學)*을 배척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는 리(理)를 중시하는 입장을 견지하여 리가 기(氣)에 대해 명령하는 상명하복의 위계적 질서가 잘 유지되어야 선(善)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서구의 과학 기술은 리를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기에 해당하는 현상에 천착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었고, 이는 제거해야 할 대상인 인욕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흐를 위험이 다분했다. 이에 따라 이항로는 이들과 더불어 화친(和親)을 논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한편 조선의 현실 문제를 인식하고, 인류가 지향해야 할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였던 박은식(1859~1925)은 러시아와 일본을 비롯한 주위 제국주의 열강들의 한반도 쟁탈전이 더욱 노골화되던 20세기를, 세력이 우월한 나라가 열등한 나라에 대포와 거함을 선봉으로 삼아 밀어닥치는 시기로 인식하였다. 그리고 이로 인해 세력이 열세인 나라는 자신의 나라를 식민지로 바칠 수밖에 없다고 인식하여 과학 기술의 중요성을 제기하고 청년이라면 마땅히 과학 기술에 힘을 써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박은식은 과학적 실용을 요구하는 시대가 되었으므로 과학 기술이 학문의 중심에 있어야 하며 과학 기술에 대한 연구가 가장 시급한 공부임을 인정하였다. 그는 과학 기술을 풍요와 발전의 원천으로 이해하였으며, 문명 진화의 핵심이 과학 기술의 진화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고 보았다. 따라서 객관적 사물에 대한 초경험적이고 추상적인 연구보다는 경험과 실증을 진리 탐구의 방법으로 제시하여 감각 작용과 실험 실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면서도 박은식은 과학 기술이 제국주의의 침략과 직결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하고 맹목적인 서구화는 주체성을 잃어버리는 위험을 초래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를 경계하기 위해 인격을 수양할 철학이 필요하며 이는 과학 기술처럼 서구의 것을 가져와 수용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을 중심으로 주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 같은 그의 입장은 서구의 과학 기술을 수용하되 우리의 정신적인 지주를 지키자는 동도서기(東道西器)론적 입장과 닿아 있다. 그가 선택한 것은 주자학이 아닌 양명학이었다. 그는 밀려 들어오는 서구의 문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민중적인 이론 체계가 필요하며 그것이 양명학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주자학은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고 행동할 수 있는 ‘간이직절(簡易直截)’함을 결여했다고 비판하였다. 양명학의 입장에서 주체성을 지키는 방편으로 그가 주목한 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양지(良知)’였다. 그는 양지를, 끊임없이 흐르면서 현실의 문제와 조우하고 그러한 문제 속에서 항상 막히지 않는 앎이라고 생각했다. 즉 양지는 고정된 앎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여 현실과 현상에 따라 옳은 일을 추구하는 능력이다. 따라서 과학 기술에 대한 수용 역시 양지를 중심으로 한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은식은 양지를 실현하여 대인(大人)이 되면 자신의 마음과 모든 사물 및 타자를 하나로 여기는 만물일체의 단계로 이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양지가 타인에게까지 미침으로써, 도덕성이 타자에게까지 발현되는 것이다. 박은식은 이를 바탕으로 국가와 민족은 물론 인류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대동(大同) 사회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양명학을 중심으로 당대의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

*강상 윤리(綱常倫理): 유교 문화에서 사람이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

*사학(邪學): 조선 시대에, 주자학에 반대되거나 위배되는 학문을 이르던 말.

*양지(良知): 양명학에서 말하는 정신, 마음의 본체, 주체성, 타고난 지혜 등을 아우르는 개념.

1. <보기> 는 이항로와 박은식의 대비되는 주장을 정리한 것이다. <보기> 의 ①, ②에 들어갈 말을 뒷글에서 찾아 각각 쓰시오.

<보 기>		
구분	이항로	박은식
사상의 기반	• 주자학, 성리학	• 양명학
세계 인식 및 서구에 대한 입장	• 중화 중심의 사유 • 서구에 대한 쇄국 • (①)	• 근대화된 서구(제국주의)에 대한 인지 • 조건적 수용 • 동도서기
(②)에 대한 관점	• 사학(邪學) • 현상을 중요시하는 학문	• 학문의 중심이자 시급한 연구의 대상 • 경험과 실증을 중요시하는 학문
결론적 입장	• 서구와 화친을 논할 수 없다.	• 주체성을 지니고 서구 문물을 수용해야 한다.

2. <보기> 는 박은식과 관련된 기록이다. <보기> 의 ①에 대한 박은식의 직접적인 비판이 무엇인지 뒷글에서 찾아 15자 이내로 쓰시오(단, 띄어쓰기로 인한 빈칸은 글자 수에 포함시키지 않음).

<보 기>

박은식은 청년기에 주자(朱子)를 큰 스승이자 성인(聖人)으로 생각해 그의 학문적 세계를 따라 수학하였다. 그러나 박은식은 후에 애국계몽운동을 전개하면서, 학문적 방향을 바꾸어 양명학을 수용하였다. 그러면서 조국의 현실에 대해 다음과 같은 말을 하기도 했다. “세계의 바람과 조수는 이같이 흘러넘치고 학계의 빛나는 흐름이 저같이 발달하는데, ①옛 학문을 지키는 것을 숭상하여 새로운 변화를 막고 거부하더니, 마침내 결과가 여기에 이르렀다. 이는 그 해로움이 진시황(秦始皇)의 분서갱유(焚書坑儒)보다 더욱 심하다. ‘학술로써 천하를 죽였다.’라는 육상산(陸象山)의 말이 바로 이를 뜻함이 아니겠는가?”

■ 예시 답안

1.
- ① 위정척사, 위정척사론
- ② 과학, 과학기술
- 풀이** 이 글은 구한말에서 개화기의 대표적인 사상가인 이항로와 박은식의 주장을 개략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이항로는 위정척사론자들의 사상적 기반을 제공한 학자로 주자학의 입장에서 서구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지니고 있었다. 반면 그보다 조금 늦은 시기에 등장한 박은식은 동양의 도를 지키며 서구를 수용하자는 입장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동양의 도를 지키는 방법으로 주자학이 아닌 양명학을 수용하였고, 양명학의 주요 개념인 ‘양지’를 통해서 세상을 개혁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2.
- 간이직절함을 결여
- 간이직절함을 결여함
- 간이직절함을 결여했다.
- 간이직절함을 결여했다고 비판했다.
- 쉽게 받아들이고 행동하기 어렵다.
- 풀이** 보기의 ①이 가리키는 대상은 주자학이다. 실제 박은식은 다양한 사상적 전환을 보여주는 인물이다. 이 문항의 본문에서 제시된 내용은 박은식이 이항로로 대표되는 기존의 사상가들과 달리 양명학을 택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서 주자학이 지닌 한계를 지적·비판한다. 구체적으로는 4문단에서 박은식이 주체성을 지키며 서양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한 방법으로 양명학을 선택하며 주자학을 비판한다는 내용이 기술된다. “그는 주자학은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고 행동할 수 있는 ‘간이직절(簡易直截)’함을 결여했다고 비판하며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렵고 복잡하지 않아야 함을 강조했다.”

■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1.	※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2점 - 첫 어절과 끝 어절을 제대로 찾지 못했을 경우 - 괄호 넣기에서 앞뒤 문맥과 호응하지 못했을 경우 - 글자 수 제한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 발문이 요구하는 2가지 조건 중 1개만 어겼을 경우 - 윗글에서 찾으라는 지시를 어겼을 경우(학생이 임의로 답안 작성) * 위의 조건들이 중복되더라도 1회만 감점(-2점) * 위의 감점 기준은 이하 문항에서 모두 동일하게 적용됨. ①, ②를 각각 4점으로 배점 ① - 위정척사 / 위정척사론 - 위정척사를 포괄하면 정답으로 인정 ② - 과학 / 과학기술 - ‘서구의 과학기술’과 같이 과학기술을 설명하는 것이면 정답으로 인정 ‘과학기술의 ○○’과 같이 ○○에 방점이 있다면, 2점 인정	8점
2.	간이직절함을 결여 간이직절함을 결여함 간이직절함을 결여했다. 간이직절함을 결여했다고 비판했다. 쉽게 받아들이고 행동하기 어렵다. 이 문항에서 요구한 답안은 “간이직절함을 결여했다.”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간이직절함의 결여”라는 내용을 포괄하며 15자 이내라면 8점으로 인정한다. “쉽게 받아들이고 행동한다”가 간이직절함을 본문에서 풀어 설명한 내용이므로 이를 비판한 “쉽게 받아들이고 행동하기 어렵다.”역시 정답으로 인정한다. “간이직절함의 결여”를 키워드로 삼았지만 ※에 해당하면 2점 감점. 그 외 주자학 일반에 대한 내용(ex. ‘초경험적이고, 추상적이다’), 성리학의 특징을 제시한 경우는 0점 처리함.	8점

문항 3~4

[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조선의 궁중에서 거행하던 의식에는 정재*가 수반되어야 했는데, 조선의 개국 초에는 의식에 걸맞은 정재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세종 대왕이 이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제작한 정재 중 하나가 〈봉래의〉이다. 〈봉래의〉는 조선조 최대의 가·무·악이 어우러진 종합 예술 작품으로, 「용비어천가」의 일부 장을 노랫말로 삼아 관현악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는 구성이었다.

〈봉래의〉는 ‘전인자’, ‘여민락’, ‘치화평’, ‘취풍형’, ‘후인자’로 구성되어 있다. 전인자는 〈봉래의〉의 시작을 알리고 후인자는 〈봉래의〉의 마침을 알리는 관현악곡이다. 〈봉래의〉의 핵심이 되는 부분은 여민락, 치화평, 취풍형인데, 각각 서두, 본론, 돌장의 세 부분으로 나뉜다. 이 세 악곡은 여민락, 치화평, 취풍형의 순서대로 연행되며, 좌우로 배열된 악공 및 의물*을 든 사람, 그리고 연향에 참여한 모든 기녀가 「용비어천가」를 부르고 무용수들도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다.

〈봉래의〉의 노랫말인 「용비어천가」는 모두 125장으로 이루어진 서사시로, 처음부터 궁중 연향에 사용할 것을 염두에 두고 제작되었다. 「용비어천가」의 내용은 조상의 업적 가운데 포괄적이고 핵심적인 사항만을 부각하여 조선 왕조 창업의 당위성을 제시한 1~16장, 왕조 창업이 마땅하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예시한 17~109장, 후대 왕이 지켜야 할 도리를 담고 있는 110~125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용비어천가」 125장 전체를 한자리에서 연주하기 어렵다는 제약 때문에 〈봉래의〉에서는 이 중 일부 악장만 선택하여 여민락, 치화평, 취풍형에 사용하였는데, 치화평과 취풍형에서는 국문 가사로, 여민락에서는 한문 가사로 불렀다. 각 악곡의 서두는 춤 없이 노래만 부르고, 본론은 무용수들이 각각 대형을 갖추고 춤을 추며 노래 부르고, 돌장에서는 무용수들이 춤을 추던 대형에서 다음 대형으로 이동하며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다.

〈봉래의〉의 춤은 여민락, 치화평, 취풍형에 따라 한 가지 대형으로 춘다. 여민락은 대형을 형성하여 2명이 마주 보며 춤을 추고, 치화평은 동서남북에 무용수 2명이 각각 서 있고 무용수 2명이 차례로 돌아가며 북쪽에서 춤을 추고, 취풍형은 2명이 마주 보며 북쪽에서 남쪽으로 늘어선 대형을 형성하여 춤을 춘다. 여민락, 치화평, 취풍형 모두 각각의 대형에서 무용수들이 북쪽을 향하여 춤추는 북향무, 서로 마주 보고 춤추는 대무, 서로 등을 향해 서서 춤추는 배무 등의 춤을 공통으로 추고, 각 대형으로의 전환은 무용수 전원이 원을 그리며 돌면서 춤추는 회무로 한다.

세종 대왕은 〈봉래의〉에 자신의 정치적 염원과 예술적 이상을 담았다. 「용비어천가」는 조선이 천명으로 건국되었으며 영속되어야 할 당위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만들어졌다. 세종 대왕은 그 주제를 후대의 임금을 비롯해 백성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가·무·악이 어우러진 〈봉래의〉를 제작한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봉래의〉는 공사(公私) 연향, 조참*, 출궁이나 환궁할 때, 왕이 중국 황제의 조서나 칙서를 받으러 가고 올 때 등에 연행되었는데, 이때 여민락, 치화평, 취풍형 중 일부만 연행되기도 하였다. 세종 대왕 이후에도 〈봉래의〉는 궁중의 의례에서 연행되다가 중단되었고, 근대에 이르러 복원되었다.

*정재: 고려와 조선의 궁중에서 공연되었던 기악, 노래, 춤이 어우러진 종합 예술.

*의물: 의식에서 상하를 구별하고, 위엄을 드러내기 위해 쓰는 여러 가지 물건을 이르던 말.

*조참: 중앙에 있는 문무백관이 한 달에 네 번 정전(正殿)에 모여 임금에게 문안을 드리고 정사(政事)를 아뢰던 일.

3. 밑글의 내용을 〈보기〉와 같이 도식화했을 때, ①에 해당하는 〈봉래의〉의 세부 구성과, ②에 해당하는 춤이 무엇인지 밑글에서 단어를 찾아 각각 쓰시오.

<보 기>

연행 순서		여민락	치화평	취풍형
세부 구성	서두	춤 없이 노래만 부름.		
	본론	무용수들이 대형을 갖추고 춤을 추며 노래를 부름.		
	(①)	무용수들이 다음 대형으로 바꾸면서 춤을 추며 노래를 부름.		
춤 대형				
「용비어천가」의 노랫말		한문	국문	

*▷◁: 무용수 2명이 마주 보고 서 있는 것을 의미함.

*舞: 무용수.

4. <봉래의>와 「용비어천가」의 관계를 고려할 때, 「용비어천가」의 주제적 특성을 설명한 문장을 밑줄에서 찾아 첫 어절과 끝 어절을 각각 쓰시오.

■ 예시 답안

3.

- ① 돌장
② 회무

무용수 전원이 원을 그리며 돌면서 추는 춤(-2)

풀이 세종 대왕이 만든 정재인 <봉래의>는 ‘전인자’, ‘여민락’, ‘치화평’, ‘취풍형’, ‘후인자’로 구성되어 있고, 핵심이 되는 부분은 ‘여민락’, ‘치화평’, ‘취풍형’이다. 그리고 이 부분은 각각 한 가지 대형에서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고 대형의 전환은 구성 중 돌장에서 이뤄지며, 그 춤은 회무로 한다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또한 정재에서 부르는 노래는 「용비어천가」인데 한문과 한글로 된 노랫말로 연행된다. 이 같은 내용을 시각화하여 제시한 것이 <보기>에 제시된 표이다.

4.

「용비어천가」는, 만들어졌다.(8점)

「용비어천가」의, 있다(4점)

“「용비어천가」는 조선이 천명으로 건국되었으며 영속되어야 할 당위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문장에서 첫 어절과 끝 어절 중 하나를 어기면 2점 감점.

“「용비어천가」의 내용은 조상의 업적 가운데 포괄적이고 핵심적인 사항만을 부각하여 조선 왕조 창업의 당위성을 제시한 1~16장, 왕조 창업이 마땅하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예시한 17~109장, 후대 왕이 지켜야 할 도리를 담고 있는 110~125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문장에서 첫 어절과 끝 어절 중 하나를 어기면 2점 감점.

풀이 <봉래의>와 「용비어천가」는 모두 세종이 만든 것이다. 세종은 국가 성립기에 공식적인 의례에서 연행될 정재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봉래의>를 만들었고, 「용비어천가」는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노랫말로 삼는 노래이다. 또한 「용비어천가」는 악장으로 궁중에서의 연행을 목적으로 지어진 것이기도 하다. <봉래의>와 「용비어천가」는 조선 왕조의 정당성과 위엄을 알린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용비어천가」의 주제는 5단락에서 “「용비어천가」는 조선이 천명으로 건국되었으며 영속되어야 할 당위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만들어졌다.”라고 「용비어천가」의 특징을 제시하고 있다.

■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3.	①, ②를 각각 4점으로 배점 ① 돌장 (4점) ② 회무 (4점) 회무를 설명하는 “무용수 전원이 원을 그리며 돌면서 추는”이라는 내용을 답안으로 썼다면 2점 감점(ex. 원을 그리는). 3단락의 내용에 근거할 때 ①에 들어갈 〈봉래의〉의 구성 단계는 ‘돌장’에 해당한다. 4단락에서는 여민락, 치화평, 취풍형에서 무기(舞妓)들이 추는 여러 가지 춤에 대해 설명하는데, “각 대형으로의 전환은 무용수 전원이 원을 그리며 돌면서 춤추는 회무로 한다.”고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②는 회무이다. 단어로 쓰라는 문항의 요구를 어기고 회무의 구체적인 모습을 설명한 “무용수 전원이 원을 그리며 돌면서 추는”이라는 내용을 답안으로 작성하면 2점을 감점한다. ②에 복수의 답 (ex 대무, 회무)을 썼다면 오답처리. ③을 자의적으로 만들어 썼다면 해당 부분은 채점하지 않음.	8점
4.	- 「용비어천가」는, 만들어졌다.(8점) “「용비어천가」는 조선이 천명으로 건국되었으며 영속되어야 할 당위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문장에서 첫 어절과 끝 어절 중 하나를 어기면 2점 감점. - 「용비어천가」의, 있다.(4점) “「용비어천가」의 내용은 조상의 업적 가운데 포괄적이고 핵심적인 사항만을 부각하여 조선 왕조 창업의 당위성을 제시한 1~16장, 왕조 창업이 마땅하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예시한 17~109장, 후대 왕이 지켜야 할 도리를 담고 있는 110~125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문장에서 첫 어절과 끝 어절 중 하나를 어기면 2점 감점. 낫표와 문장 부호는 채점에 영향 없음.	8점

문항 5~6

[5~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흔히 애덤 스미스를 국가 권력의 간섭을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사유 재산과 기업의 자유를 옹호하는 자유방임론자라고 하나 그는 결코 당대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무조건 이를 찬미하는 소극적 자유방임론자가 아니었다. 공정성을 담보한 규율과 질서가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이러한 질서의 내용으로 독점의 철폐와 경쟁의 확립을 들었다. 그는 현실을 그대로 두면 독점과 노사 간 교섭력의 차이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항상 경계하였고, 독점을 줄이고 노사 간 교섭을 균등하게 하여 경쟁적 시장조건, 즉 자유방임 정책이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 것을 강조하였다. 애덤 스미스는 이러한 조건의 성립을 전제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유방임을 주장하였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당시의 노동 시장에 대한 그의 견해에도 잘 나타난다.

애덤 스미스의 노동 시장론은 노동 시장이 경쟁적 시장이 되기 어렵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한다. 그는 『국부론』에서 노동 시장에서 노사 간 교섭상 지위에는 구조적으로 비대등성이 있음을 지적한다. 노동 시장이 경쟁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노사 간의 교섭상 지위가 대등해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사용자의 단결이 노동자의 단결보다 쉽기 때문에 교섭상 지위의 비대등성이 커져 노동 시장이 경쟁적 시장이 되지 못한다. 그리고 경쟁 시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 조건이 열악해지는 것이다. 교섭상 지위의 비대등성이 존재하는 경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동자의 단결은 노동 시장의 경쟁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결국 애덤 스미스의 관점에서 볼 때 산업화 초기 단계에서는 노동자의 단결을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이 경쟁 촉진적인 면이 있었다.

산업화 초기 무제한적 노동 공급의 단계에서는 과잉 노동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임금의 수준은 최저 생계비 수준을 벗어나기 힘들었다. 이 시기에는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동법이 필요했다. 애덤 스미스는 노동 시장에서 나타나는 교섭상 지위의 구조적 비대등성은 노동자들이 단결하여도 완전히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경제 성장을 통한 노동 수요의 지속적 확대에서 그 답을 찾고 있다.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국민 경제가 대량 생산, 대량 유통, 대량 소비의 단계로 들어가면 노동력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 노동법의 시대는 끝나게 되고, 노동 시장에도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산업 생산에 비해 노동 공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노동 시장의 여건이 사용자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게 된 것이다. 노동자들 사이의 구직 경쟁 못지않게 사용자들 간의 구인 경쟁이 나타남으로써, 즉 ①무제한적 노동 공급의 단계에서 벗어나 제한적 노동 공급의 단계로 넘어감으로써, 노사 간의 교섭력이 대등해지기 시작했다. 또한 제한적 노동 공급의 단계에서는 임금의 변화율이 노동 공급량의 변화율보다 더 커지게 되어 임금 탄력성에도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노동 공급의 임금 탄력성이란 노동 공급량의 변화율을 임금의 변화율로 나눈 것이다. 보통 이 값이 0에서 1 사이일 때는 비탄력적이라고 하고, 1보다 크면 탄력적이라고 한다. 탄력성이 무한대인 상태는 완전 탄력적이라고 한다.

5. 윗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애덤 스미스의 견해를 〈보기〉와 같이 정리할 때, ①, ②에 들어갈 말을 윗글에서 찾아 각각 쓰시오.

<보 기>

애덤 스미스는 노사 간 교섭력의 균등함이 자유방임 정책이 성공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노사 간 교섭 지위에는 구조적 (①)이/가 존재했다. 따라서 대등하지 못한 관계를 대등한 관계로 전환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노동자의 단결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노동자가 단결한다고 해서 관계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 노동자의 교섭권이 고용자의 교섭권과 대등해지기 위해서는 노동을 필요로 하는 시장이 계속해서 커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산업화와 관련하여 대량 생산, 대량 유통, 대량 소비 등을 포괄하는 (②)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6. 윗글 ㉠의 결과로 노동자와 사용자의 교섭에서 ‘① 노동자의 지위’와 ‘② 임금 탄력성’은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를 각각 〈보기 1〉, 〈보기 2〉에서 찾아 쓰시오.

<보 기 1>

낮아진다, 변화 없다, 높아진다

<보 기 2>

완전 탄력적이 된다, 탄력적이 된다, 비탄력적이 된다

① 노동자의 지위: _____

② 임금 탄력성: _____

■ 예시 답안

5.

① 비대등성 (4점)

② 경제 성장 (4점) / 국민경제 (2점)

풀이 제시된 지문은 애덤 스미스가 주장한 노동시장론에 대한 것이다. 노동시장론은 애덤 스미스가 생각한 자유방임주의의 중요한 전제가 되는 것이다. 초기 산업화 사회의 노동시장에서 사용자와 노동자가 일자리와 임금을 둘러싼 교섭을 벌일 때 구조적 비대등성이 존재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이 비대등한 관계를 대등한 관계로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단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노동자들의 단결을 통해서 사용자와의 교섭상의 비대등함을 일정하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것이다. 그러나 이는 산업화의 활성화로 인한 경제 성장, 그 결과로 이뤄진 큰 노동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6.

① - 높아진다. (4점)

② - 비탄력적이 된다. / 비탄력적 / 비탄력 (4점)

둘을 섞어서 답안을 쓴 경우(ex ① 높아지고 비탄력적이 된다.)는 오답처리함.

보기에서 골라 쓰지 않은 경우(ex ② 완전비탄력적)와 같은 경우 오답처리함.

풀이 지문에 제시된 ㉠은 “무제한적 노동 공급의 단계에서 벗어나 제한적 노동 공급의 단계로 넘어”갔다는 것이다. 무제한적 노동 공급 단계는 일자리에 비해 노동력의 제공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는 노동 시장에서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에서 사용자가 유리한 입장에 놓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제한적 노동 공급 단계가 되었다는 것은 일자리의 양이 많아져서 노동자들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교섭할 수 있는 상황으로 전환되었다는 의미이다. 결국 ㉠에 따르면 노동자의 교섭상의 지위는 이전보다 높아지게 된다.

또한 노동 공급량은 거의 변화가 없고, 구인자가 많아진 노동 시장에서 임금의 변화율이 커진다는 추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노동 공급량의 변화율을 임금의 변화율로 나누는 방식으로 산출하는 임금 탄력성은 비탄력적이 된다.

■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5.	①, ②를 각각 4점으로 배점 ① 비대등성 (4점) ② 경제 성장 (4점) / 국민경제 (2점) 이 외에는 오답으로 처리함 띄어쓰기는 채점과 관련 없음	8점
6.	①과 ②를 각각 4점으로 배점 ① - 높아진다. (4점) ② - 비탄력적이 된다. / 비탄력적 / 비탄력 (4점) 둘을 섞어서 답안을 쓴 경우(ex ① 높아지고 비탄력적이 된다.)는 오답처리함. 보기에서 골라 쓰지 않은 경우(ex ② 완전비탄력적)와 같은 경우 오답처리함. 띄어쓰기와 문장부호는 채점과 관련없음	8점

문항 7~9

[7~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4·19가 나던 해 세밑* / 우리는 오후 다섯 시에 만나
반갑게 악수를 나누고 / 불도 없이 차가운 방에 앉아
하얀 입김 뿜으며 / 열띤 토론을 벌였다
어리석게도 우리는 무엇인가를 / 정치와는 전혀 관계없는 무엇인가를
위해서 살리라 믿었던 것이다 / 결론 없는 모임을 끝낸 밤
혜화동 로터리에서 대포*를 마시며 / 사랑과 아르바이트와 병역 문제 때문에
우리는 때 묻지 않은 고민을 했고 /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노래를
누구도 흥내 낼 수 없는 노래를 / 저마다 목청껏 불렀다
돈을 받지 않고 부르는 노래는 / 겨울밤 하늘로 올라가
별똥별이 되어 떨어졌다 / 그로부터 18년 오랜만에
우리는 모두 무엇인가 되어 / 혁명이 두려운 기성세대가 되어
넥타이를 매고 다시 모였다 / 회비를 만 원씩 걷고
처자식들의 안부를 나누고 / 월급이 얼마인가 서로 물었다
치솟는 물가를 걱정하며 / 즐겁게 세상을 개탄하고
익숙하게 목소리를 낮추어 / 떠도는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모두가 살기 위해 살고 있었다 / 아무도 이젠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
적잖은 술과 비싼 안주를 남긴 채 / 우리는 달라진 전화번호를 적고 헤어졌다
몇이서는 포커를 하러 갔고 / 몇이서는 춤을 추러 갔고
몇이서는 허전하게 동승동 길을 걸었다 / 돌돌 말은 달력을 소중하게 옆에 끼고
오랜 방황 끝에 되돌아온 곳 / 우리의 옛사랑이 피 흘린 곳에
낯선 건물들 수상하게 들어섰고 / ㉠플라타너스 가로수들은 여전히 제자리에 서서
아직도 남아 있는 몇 개의 마른 잎 흔들며 / 우리의 고개를 떨구게 했다
부끄럽지 않은가 / 부끄럽지 않은가
바람의 속삭임 귓전으로 흘러 / 우리는 짐짓 중년기의 건강을 이야기했고
또 한 발짝 깊숙이 늙으로 발을 옮겼다

- 김광규,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세밑: 한 해의 마지막 때.

*대포: 술을 별 안주 없이 큰 그릇으로 마시는 일.

[나]

1964년 겨울을 서울에서 지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겠지만, 밤이 되면 거리에 나타나는 선술집—오뎅과 군참새와 세 가지 종류의 술 등을 팔고 있고, 얼어붙은 거리를 휩쓸며 부는 차가운 바람이 펄럭거리게 하는 포장을 들치고 안으로 들어서게 되어 있고, 그 안에 들어서면 카바이트 불의 길쭉한 불꽃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고, 염색한 군용 잠바를 입고 있는 중년 사내가 술을 따르고 안주를 구워 주고 있는 그러한 선술집에서, 그날 밤, 우리 세 사람은 우연히 만났다. 우리 세 사람이란 나와 도수 높은 안경을 쓴 안(安)이라는 대학원 학생과 정체는 알 수 없지만, 요컨대 가난뱅이라는 것만은 분명하여 그의 정체를 알고 싶다는 생각은 조금도 나지 않는 서른대여섯 살짜리 사내를 말한다.

[A]

먼저 말을 주고받게 된 것은 나와 대학원생이었는데, 뭐 그렇고 그런 자기소개가 서로 끝났을 때는 나는 그가 안씨라는 성을 가진 스물다섯 살짜리 대한민국 청년, 대학 구경을 해 보지 못한 나로서는 상상이 되지 않는 전공을 가진 대학원생, 부잣집 장남이라는 걸 알았고, 그는 내가 스물다섯 살짜리 시골 출신, 고등학교는 나오고 육군 사관 학교를 지원했다가 실패하고 나서 군대에 갔다가 임질에 한 번 걸려 본 적이 있고 지금은 구청 병사계(兵事係)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아마 알았을 것이다.

자기소개들은 끝났지만 그러고 나서는 서로 할 얘기가 없었다. 잠시 동안은 조용히 술만 마셨는데 나는 새카맣게 구워진 군참새를 집을 때 할 말이 생겼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군참새에게 감사하고 나서 얘기를 시작했다.

“안 형, 파리를 사랑하십니까?”

“아니오, 아직까진…….” 그가 말했다. “김 형은 파리를 사랑하세요?”

“예.”라고 나는 대답했다. “날 수 있으니까요. 아닙니다. 날 수 있는 것으로서 동시에 내 손에 붙잡힐 수 있는 것이니까요. 날 수 있는 것으로서 손안에 잡아 본 적이 있으세요?”

“가만 계서 보세요.” 그는 안경 속에서 나를 멀거니 바라보며 잠시 동안 표정을 꼼지락거리고 있었다. 그리고 말했다. “없어요, 나도 파리밖에는…….”

낮엔 이상스럽게도 날씨가 따뜻했기 때문에 길은 얼음이 녹아서 흙물로 가득했었는데 밤이 되면서부터 다시 기온이 내려가고 흙물은 우리의 발밑에서 다시 얼어붙기 시작했다. 소가죽으로 지어진 내 검정 구두는 얼고 있는 땅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찬 기운을 충분히 막아 내지 못하고 있었다. 사실 이런 술집이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잠깐 한잔하고 싶은 생각이 든 사람이나 들어올 데지, 마시면서 곁에 선 사람과 무슨 얘기를 주고받을 만한 데는 되지 못하는 곳이다.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지만 그 안경잡이가 때마침 나에게 기특한 질문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놈 그럴듯하다’고 생각되어 추위 때문에 저려 드는 내 발바닥에게 조금만 참으라고 부탁했다.

[중략 부분 줄거리] 아무런 의미가 없는 대화를 주고받던 ‘나’와 안은 외교원* 일을 하는 사내를 만난다. 사내는 ‘나’와 안에게 자신과 함께 있어 주기를 청하고, 세 사람은 중국집으로 자리를 옮겨 대화를 나눈다.

“아내의 시체를 병원에 팔았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난 서적 월부 판매 외교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돈 사천 원을 주더군요. 난 두 분을 만나기 얼마 전까지도 세브란스 병원 율타리 곁에 서 있었습니다. 아내가 누워 있을 시체실이 있는 건물을 알아보려고 했습니다만 어딘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율타리 곁에 앉아서 병원의 큰 굴뚝에서 나오는 희끄무레한 연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어떻게 될까요, 학생들이 해부 실습하느라고 톱으로 머리를 가르고 칼로 배를 찢고 한단데 정말 그러겠지요?”

우리는 입을 다물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사환이 단무지와 파가 담긴 접시를 갖다 놓고 나갔다.

“기분 나쁜 얘길 해서 미안합니다. 다만 누구에게라도 얘기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한 가지만 의논해 보고 싶은데, 이 돈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오늘 저녁에 다 써 버리고 싶은데요.”

“쓰십시오.” 안이 얼른 대답했다.

“이 돈이 다 없어질 때까지 함께 있어 주시겠어요?” 사내가 말했다. 우리는 얼른 대답하지 못했다. “함께 있어 주십시오.” 사내가 말했다. 우리는 승낙했다.

“멋있게 한번 써 봅시다.”라고 사내는 우리와 만난 후 처음으로 웃으면서 그러나 여전히 힘없는 음성으로 말했다.

중국집에서 거리로 나왔을 때는 우리는 모두 취해 있었고, 돈은 천 원이 없어졌고 사내는 한쪽 눈으로는 울고 다른 쪽 눈으로는 웃고 있었고, 안은 도망갈 궁리를 하기에다 지쳐 버렸다고 내게 말하고 있었고, 나는 “악센트 짙은 문제를 모두 틀려 버렸단 말야, 악센트 말야.”라고 중얼거리고 있었고, 거리는 영화 광고에서 본 식민지의 거리처럼 춥고 한산했고, 그러나 여전히 소주 광고는 부지런히, 약 광고는 게으름을 피우며 반짝이고 있었고, 전봇대의 아가씨는 ‘그저 그래요.’라고 웃고 있었다.

- 김승옥, 「서울 1964년 겨울」

*외교원(外交員): 은행이나 회사에서 교섭이나 권유, 선전, 판매를 위하여 고객을 방문하는 일이 주된 업무인 사원.

7. 윗글 (가)의 ㉠에 제시된 ‘여전히 제자리에 서 있는 플라타너스 가로수들’은 시적 화자가 현재의 삶을 반성하는 계기로 작용한다. 윗글 (가)의 시적 상황을 고려하여 그 이유를 10자 이내로 쓰시오(단, 띄어쓰기로 인한 빈칸은 글자 수에 포함시키지 않음).

8. <보기 1> 은 윗글 (가)에 등장한 시어들이고, <보기 2> 는 윗글 (나)를 해설하고 있는 글이다. <보기 2> 의 ①의 모습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단어 하나를 윗글 (가)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기 1> 에서 찾아 쓰시오.

<보 기 1>

겨울밤, 별뚱별, 기성세대, 넥타이, 월급, 포커, 달력, 늑

<보 기 2>

이 작품은 4·19 혁명의 실패와 5·16 군사 정변 후 정치적, 사회적 부조리가 팽배한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4·19 정신을 좌절시킨 군사 정부는 굴욕적인 외교를 거듭했고, 이에 항의하는 민주 인사들을 억압하였다. 또한 급격히 진행된 근대화, 산업화, 도시화는 당대 시민들의 심리적 방황과 인간적 연대감의 상실을 초래하였다. 이와 같은 암울한 현실에서 사람들은 패배 의식, 무력감에 빠져 사회에 대한 질은 회의를 나타냈다. 이는 ①타인에 대한 무관심이 팽배해지면서 내면적 교감이나 연대에 대한 당대의 시대적 요구가 외면당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9. <보기> 는 윗글 (나)에 대한 설명이다. <보기> 의 ①을 윗글 (나)의 [A]에서 찾아 첫 어절과 끝 어절을 각각 쓰시오.

<보 기>

김승옥의 소설에서 확인되는 사물 주어 구문들과, 특정 단어나 구절로 이어지는 문장의 연쇄 그리고 ①의 인이나 활유를 활용해 자신의 몸을 타자화하는 문장들은, 단지 수사적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부터조차 소외되는 현대 개인의 모습, 나아가 개인 간의 단절과 의사소통의 불능이라는 소설적 주제와도 연결된다.

■ 예시 답안

7.

변하지 않아서, 나(우리)는 변해서

풀이 김광규의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는 1979년에 발표되었다. 이 시는 크게 과거와 현재,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1960년 4·19 혁명이 일어난 해를 배경으로 열정과 이상을 지녔던 젊은 날에 대한 회고가 시의 전반부를 형성하고 있다면, 후반부는 하루하루 아무 생각 없이 다만 ‘살기 위해 살고 있’는 현재의 삶을 보여준다. 젊은 날의 꿈과 열정, 이상이 ‘별뚱별’처럼 사라진 채, ‘기성세대’이자 소시민으로 변해버린 시적 화자가 다시 과거의 공간으로 되돌아가 여전히 변하지 않은 ‘플라타너스 가로수’를 보면서 이제는 현실에 안주하고 아무 고민과 생각 없이 살아가는 자신의 삶과 생활을 반성하고 성찰하고 있는 작품이다.

8.

늑 - 8점

겨울밤, 기성세대, 넥타이, 월급, 달력 - 4점

별뚱별 - 2점

포커 - 0점

풀이 <보기 2> 의 밑줄 친 ① 부분은 소설적 배경에 대한 설명이다. 그 시대는 인간 관계의 단절, 타인에 대한 무관심, 연대에 대한 열망의 좌절 등 암울한 현실에 대한 패배 의식이나 무력감이 팽배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가)에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단어는 ‘늑’이다.

9.

‘그런, 부탁했다’ 8점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지만 그 안경잡이가 때마침 나에게 기특한 질문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놈 그럴듯하

다’고 생각되어 추위 때문에 저려 드는 내 발바닥에게 조금만 참으라고 부탁했다.” -> 이 문장에서 첫 어절과 끝 어절 중 하나를 어기면 2점 감점.

(ex. ‘내, 부탁했다’, ‘나는, 부탁했다’, ‘(그) 안경잡이가 부탁했다’)

‘소가죽으로, 있었다’ 4점

“소가죽으로 지어진 내 검정 구두는 열고 있는 땅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찬 기운을 충분히 막아 내지 못하고 있었다.” -> 이 문장에서 첫 어절과 끝 어절 중 하나를 어기면 2점 감점.

(ex. ‘검정구두는, 있었다.’)

낫표와 문장 부호는 채점에 영향 없음. 위 문장을 벗어나면 0점. 두 문장 이상으로 늘어져서 위 문장을 포함하면, 2점 감점

풀이 어떤 대상을 직접 설명하지 않고 그와 유사한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인 비유는 사물을 새롭게 바라보는 시각을 제공할 뿐 아니라,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강조하기도 한다. 의인이나 활유는 무생물을 마치 생물처럼 표현함으로써 참신함과 새로운 관점을 독자에게 제공한다. 또한 자신의 몸을 타자화하는 소설의 독특한 문장은 ‘자기 소외’라는 소설적 주제와 긴밀히 연결되어 말하고자 하는 바를 한층 명료하게 만들어 준다. 이처럼 작품의 형식과 내용은 긴밀히 조응한다.

■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7.	플라타너스는 변하지 않아서 / 나(우리)는 변해서 (8점) 주체가 제시되지 않은 경우 ‘플라타너스’로 보고 ‘변하지 않아서’와 같은 경우도 정답으로 인정. - 채점에 핵심은 ‘변했다/변하지 않았다’에 있는 것임. - 그 외 ‘똑같다’, ‘변모하지 않았다’ 등도 정답으로 인정. - 시에 제시된 구절을 그대로 쓴 경우 오답처리 (ex. ‘혁명이 두려운 기성세대가 되어’, ‘여전히 제자리에 서서’,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 ‘혁명이 두려워졌다’)	8점
8.	이 문항의 정답은 현재라는 시점, 부정적 현실, 무기력한 주체, 비유적 표현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어여야 한다. 4점에 해당하는 단어들은 이 가운데, 두 가지를 충족한다는 점에서 부분 점수를 인정할 수 있다. 별똥별은 현재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앞으로 사라질 젊은 날의 이상과 열정에 대한 비유라는 점에서 2점만을 인정한다. 높 - 8점 겨울밤, 기성세대, 넥타이, 월급, 달력 - 4점 별똥별 - 2점 포커 - 0점 - 복수의 답을 작성한 경우(ex. 높, 기성세대 - 배점이 높은 것을 정답으로 인정하고, 문항의 요구를 어긴 것으로 간주하여 2점 감점)	8점
9.	이 문항은 문학의 비유 방법인 의인이나 활유를 정확히 이해하는지(4점), 그리고 형식과 내용이 긴밀히 연관되어 있음을 잘 이해하는지(4점)를 묻고 있다. 따라서 두 가지가 정확히 결합된 문장을 (나)의 A에서 찾아야 한다. 4점에 해당하는 문장은 이 가운데 전자만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분 점수만을 인정한다. ‘그런, 부탁했다’ 8점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지만 그 안경잡이가 때마침 나에게 기특한 질문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놈 그럴듯하다’고 생각되어 추위 때문에 저려 드는 내 발바닥에게 조금만 참으라고 부탁했다.” -> 이 문장에서 첫 어절과 끝 어절 중 하나를 어기면 2점 감점. (ex. ‘내, 부탁했다’, ‘나는, 부탁했다’, ‘(그) 안경잡이가 부탁했다’) ‘소가죽으로, 있었다’ 4점 “소가죽으로 지어진 내 검정 구두는 얼고 있는 땅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찬 기운을 충분히 막아 내지 못하고 있었다.” -> 이 문장에서 첫 어절과 끝 어절 중 하나를 어기면 2점 감점. (ex. ‘검정구두는, 있었다.’) 낫표와 문장 부호는 채점에 영향 없음. 위 문장을 벗어나면 0점. 두 문장 이상으로 늘어져서 위 문장을 포함하면, 2점 감점	8점

2025학년도 자연계열

문항 1~2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타인으로부터 예금 계좌 대여나 예금 인출 심부를 제안을 받게 된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보이스 피싱 범죄에 연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이스 피싱 범죄에서는 대개 타인 명의의 예금 계좌를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송금을 받아 돈을 가로채는데 이때 타인 명의 예금 계좌를 사용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보이스 피싱 범죄자를 ‘갑(甲)’, 피해자를 ‘을(乙)’이라고 하고, ‘을’이 돈을 입금하는 계좌의 명의인을 ‘병(丙)’이라고 가정할 때, 첫 번째 방법은 ‘갑’이 ‘병’ 몰래 ‘병’ 명의의 예금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는 것이고, 두 번째 방법은 ㉠‘병’이 개설한 예금 계좌를 ‘갑’이 빌려서 사용하는 예금 계좌 대여이다. ‘병’이 자신의 예금 통장과 도장을 ‘갑’에게 넘겨주고 비밀번호를 알려 주면 예금 계좌 대여로 인정된다. 세 번째 방법은 ‘병’이 ‘갑’의 부탁을 받고 ‘병’ 자신의 예금 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해서 ‘갑’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다. 이들 중 첫 번째 경우에는 ‘병’이 처벌될 가능성이 없지만 두 번째 경우와 세 번째 경우에는 ‘병’도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어떤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려면 반드시 그 행위가 ‘구성 요건’에 해당해야 하는데, 구성 요건이란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로 미리 정해 둔 것을 뜻한다. 처벌 대상 행위는 미리 법률로 정해져야 하며 이것을 ‘죄형 법정주의’라고 한다. 보이스 피싱 범죄에서 피해자를 속여서 돈을 가로채는 행위는 형법에 규정된 사기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 그러나 예금 계좌의 대여나 개설과 관련한 구성 요건은 금융실명제법에 규정되어 있다. 금융실명제법에 의하면 타인 명의로 예금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의 구성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다. 금융실명제법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예금 계좌의 명의인과 실제로 그 예금 계좌를 사용하여 금융 거래를 하는 사람이 일치하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예금 계좌의 대여, 즉 ‘병’이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예금 계좌를 ‘갑’에게 빌려주어 ‘갑’이 사용하게 하는 것도 독립된 구성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와 달리 예금 계좌의 명의인이 타인의 부탁을 받고 스스로 금융 거래를 하는 것은 금융실명제법에 규정된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이런 행위가 타인의 범죄 행위에 가담한 것이면 범죄 행위가 될 수도 있다. 형법에는 타인에게 범죄 행위를 하라고 부추긴 교사범이나 타인의 범죄 행위를 도와준 방조범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조문이 있기 때문이다. 이때 교사범과 방조범을 통틀어 공범이라고 하고, 교사범이 부추긴 범죄나 방조범이 도와준 범죄를 저지른 자를 정범이라고 한다. 범죄 중에는 성질상 적어도 두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도 있다. 이러한 범죄 유형 가운데 하나가 필요적 공범이다. 이 경우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은 모두 그 범죄의 정범으로 처벌된다. 예를 들어 뇌물 수수 범죄에서는 뇌물을 준 사람과 뇌물을 받은 사람, 적어도 두 사람이 있어야만 성립할 수 있으므로 필요적 공범에 해당하고, 그 두 사람은 모두 정범으로 처벌된다.

교사범은 범죄가 발생하도록 원인을 제공했으므로 이미 범죄 행위를 하기로 결심한 정범을 도와준 것에 불과한 방조범보다 더 나쁘다. 따라서 교사범은 정범과 같은 형벌을 받는 데 비해 방조범은 정범보다 가벼운 형벌을 받는다.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의 범죄 실행이라는 요건 이외에도, 방조 행위와 방조의 고의라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첫 번째 요건인 ‘방조 행위’는 정범이 범죄 행위를 하기 쉽게 해 주는 모든 행위를 가리킨다. 범행 도구를 제공하는 등의 물질적 방조뿐 아니라 이미 범행을 결심한 정범을 격려하는 정신적 방조도 여기에 해당한다. 두 번째 요건인 ‘방조의 고의’는 두 가지 고의로 구성된다. 우선 정범이 저지려고 하는 범죄 행위 자체에 대한 고의인 정범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고, 방조범 자신이 하고 있는 행위가 정범의 범죄 실행을 돕는 행위라는 것에 대한 고의도 인정되어야 한다.

1. <보기>는 뒷글의 ㉠에 대한 설명이다. <보기>의 ①, ②에 들어갈 말을 뒷글에서 찾아 각각 쓰시오(①은 다섯 음절, ②는 여섯 음절로 쓸 것).

<보 기>

㉠은 ‘갑’이 ‘병’에게서 ‘병’의 예금 계좌를 빌려 사용한 경우이므로 예금 계좌 대여 범죄에 해당한다. 예금 계좌 대여 범죄는 최소 두 명, 즉 계좌를 대여해 준 자와 대여받은 자가 존재하여야만 성립하므로 (①)에 해당하고, ‘병’은 정범으로 처벌받는다. 이때 ‘병’은 예금 계좌의 명의인과 예금 계좌의 사용자가 달라지게 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법률 중에서 (②)에 규정된 범죄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처벌될 수 있다.

2. <보기> 는 어느 마을에서 일어난 절도 사건에 대한 설명이다. <보기> 의 ①, ②에 들어갈 말을 밑글에서 찾아 각각 쓰시오.

<보 기>

어느 마을의 곡식 창고에 돈이 될 만한 곡식이 가득 있는 것을 안 A는 B에게 이 정보를 주고 곡식 창고를 털도록 지시했다. A의 말을 들은 B는 곡식 창고를 털기로 결심하고, C의 도움을 얻어 곡식을 운반할 트럭을 구했다. 범행 당일 B는 곡식 창고의 곡식을 모두 훔치는 데 성공했다.

이 사건에서 B는 정범이고 A와 C는 공범인데, A는 B에게 절도를 부추긴 (①)이고, C는 B에게 절도한 곡식의 운반에 필요한 트럭을 제공하여 (②) 방조를 한 방조범이다.

■ 예시 답안

1.

- ① 필요적 공범
- ② 금융 실명제법

(띄어쓰기 관계없이 정답 처리함.)

풀이 밑글의 ㉠은 ‘병’이 개설한 예금 계좌를 ‘갑’이 빌려서 사용하는 예금 계좌 대여 범죄로, 이 예금 계좌 대여 범죄에는 계좌를 대여해 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 두 사람이 존재하여야 한다는 것을 <보기> 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밑글의 3문단에서 범죄 중에는 성질상 두 사람을 필요로 하는 범죄가 ‘필요적 공범’이라는 것과 이때의 두 사람은 ‘정범’으로 처벌된다는 내용을 이해하였다면 ①의 자리에는 ‘필요적 공범’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②는 2문단을 통해 타인의 예금 계좌를 개설하고 사용하는 것 자체가 ‘금융 실명제법’의 구성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읽고 이해하였다면 ②가 바로 ‘금융 실명제법’이라는 것을 도출할 수 있다.

2.

- ① 교사범
- ② 물질적

풀이 지문의 3문단의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보조문에 주어진 사례에서 A는 타인의 곡식을 절도하도록 지시한 ‘교사범’, B는 타인의 곡식을 절도한 ‘정범’, C는 절도 행위를 도와준 ‘방조범’이다. 또한 4문단의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방조범인 C가 도와준 행위의 형태는 B가 절도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트럭’과 같은 물질적 도구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물질적 방조’에 해당한다. 따라서 ①의 자리에는 ‘교사범’을, ②의 자리에는 ‘물질적’을 써야 한다.

■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1.	※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2점 - 첫 어절과 끝 어절을 제대로 찾지 못했을 경우 - 괄호 넣기에서 앞뒤 문맥과 호응하지 못했을 경우 - 글자 수 제한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 발문이 요구하는 2가지 조건 중 1개만 어겼을 경우 - 윗글에서 찾으라는 지시를 어겼을 경우(학생이 임의로 답안 작성) * 위의 조건들이 중복되더라도 1회만 감점(-2점) * 위의 감점 기준은 이하 문항에서 모두 동일하게 적용됨. • ①, ②를 각각 4점으로 배점함. ① 필요적 공범: 4점 (그 외는 모두 0점) ② 금융 실명제법: 4점 (그 외는 모두 0점) • 발문에 ‘①은 5음절, ②는 6음절’이라는 요구 사항이 있으므로 이를 준수해야 함.(미준수 시 위 조건에 따라 -2점)	8점
2.	• ①, ②를 각각 4점으로 배점함. ① 교사범: 4점 (그 외는 모두 0점) ② 물질적: 4점 (그 외는 모두 0점) • 보조문의 ②의 뒤에 ‘방조’가 있으므로 ‘물질적’이 아니라 ‘물질적 방조’라고 ‘방조’까지 쓴 경우는 괄호 넣기의 문맥을 미준수한 것이므로 감점 조건에 따라 -2점	8점

문항 3~4

[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남세균은 조류 중 지구상에 최초로 존재하였으며, 약 35억 년 전의 지층에서 화석으로 발견되었다. 남세균은 지구에서 햇빛을 이용하여 물과 이산화 탄소를 산소와 영양분으로 만든 광합성 생물로, 산소가 거의 없던 과거 지구의 대기는 남세균으로 인해 산소의 농도가 증가하게 되었다. 남세균으로 만들어진 산소는 지구 대기 중에서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과 만나 오존을 형성하였고, 이렇게 만들어진 오존은 20~25km 상공에서 오존층을 형성하였다. 오존이 자외선을 흡수하면 산소 원자를 방출하는데, 산소 원자는 다른 산소 분자와 결합하면서 열을 방출한다. 즉 지구 대기 상층부에 형성된 오존층은 지구에 존재하는 생명체에게 해로울 수 있는 자외선을 흡수하는 동시에 지구 온도를 조절하는 기능을 한다. 결국 남세균으로 인해 과거 지구 대기에 산소가 생겨나면서 산소가 필요한 호기성 생물이 탄생할 수 있었고, 오존층이 형성되어 지표면에 닿는 자외선이 약해지면서 물속이 아닌 육지에서도 생명체가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남세균은 지구상에서 오래전부터 존재한 만큼 환경 변화에 뛰어난 적응력을 가지고 있다. 일부 남세균은 대기 중의 질소를 유기 질소로 전환하여 저장하는 질소 고정 능력이 있어, 양분이 되는 질소가 부족한 환경에서도 생존할 수 있다. 또한 생존에 불리한 환경에서는 포자를 형성해 물속 퇴적층에 가라앉아 있다가, 생존에 좋은 환경이 되면 다시 포자가 발아하여 성장하기도 한다. 남세균은 세포 내에 공기 주머니를 갖고 있어 상하로 수직 이동을 하는데, 이를 통해 성장에 필요한 햇빛이나 양분이 많은 곳으로 이동한다.

[나]

녹조 현상은 강이나 호수에 남세균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물의 색깔이 짙은 녹색으로 변하는 현상이다. 남세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영양물질과 수온 및 일사량, 물의 흐름이 있다.

도심에서 나오는 하수, 각종 농축산 시설 등에서 배출하는 폐수, 비가 올 때 빗물과 함께 흘러내리는 비료 등에는 질소나 인과 같은 여러 영양물질이 들어 있다. 이런 영양물질은 남세균의 증식에 필수적이며, 남세균이 영양물질을 이용하여 대량으로 증식하게 되면 녹조 현상이 발생한다.

수온은 남세균의 성장을 좌우하는 요인이며, 햇빛은 남세균의 광합성을 위해 필수적 요소이다. 녹조 현상의 원인이 되는 남세균은 20~30℃의 수온에서 가장 왕성하게 성장하며, 햇빛을 많이 받을수록 잘 자란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수온이 높아지고 일사량이 증가하는 여름철에 남세균이 성장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다.

또한 물의 흐름이 약하거나 정체되어 있으면 남세균이 더 많이 증식할 수 있다. 물의 흐름이 빠르면 물 표면에 떠다니는 남세균이 하류로 쓸려 내려가기 때문에 한곳에서 대량으로 증식하기 어렵다. 수심이 깊고 흐름이 정체된 강이나 호수에서는 여름철에 성층 현상이 나타난다. 성층 현상이란 따뜻하고 밀도가 낮은 물이 위에 놓이고 차갑고 밀도가 높은 물이 아래에 놓여 밀도 차에 의해 수층이 분리되어 물이 수직으로 잘 이동하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성층 현상이 일어나 물이 잘 섞이지 않으면 수면의 온도가 더욱 올라가게 되어 남세균이 성장하기 더 좋은 여건이 만들어진다.

남세균은 수생태계에서 생산자의 역할을 하지만, 남세균이 과다하게 증식하여 녹조 현상이 일어나면 수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남세균이 과다하게 증식하면 물속으로 들어가는 햇빛을 차단하여 물속의 수생 식물이 광합성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 이로 인해 물속의 생물들이 산소 부족으로 폐사하기도 하고, 폐사한 생물들이 부패하면서 악취와 독소가 발생해 수생태계가 점점 파괴된다.

3. <보기>는 남세균에 대한 설명이다. <보기>의 ①, ②에 들어갈 단어를 밑글 (가)에서 찾아 각각 쓰시오.

<보기>

지구의 대기에 산소의 농도를 증가시킨 남세균은 호기성 생물을 탄생시켰다. 또한 남세균으로 인해 지구의 대기에 (①)이/가 형성되어 지표면에 닿는 자외선이 약해지면서 수중뿐 아니라 육지에서도 생명체가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한편 남세균은 질소 고정 능력을 통해 질소가 부족한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고, 생존에 필요한 환경이 악화될 경우 (②)을/를 형성하였다가 환경이 좋아지면 다시 성장할 수 있으며, 공기 주머니를 통해 수직 이동을 하는 등 환경 변화에 뛰어난 적응력을 가지고 있다.

4. 밑글 (나)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기 1>의 환경에 대해 <보기 2>와 같이 가정하였을 때, <보기 2>의 ①, ②에 들어갈 단어를 밑글 (나)에서 찾아 각각 쓰시오.

<보기 1>

- A 강 주변에는 인구 밀집 지역이 없으며, 폐수 처리 시설이 미흡한 다수의 축산 시설이 자리 잡고 있다.
- B 호수 인근에는 과수 농원이 많아, 비가 오면 땅에 있는 질소나 인 등의 비료 성분이 B 호수로 유입된다.

<보기 2>

- A 강 주변에 있는 축산 시설의 폐수 처리 장치를 개선한다면, 남세균이 발생할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다.
- 수심이 깊은 A 강 하류에 댐을 만든다면, 날씨가 더운 계절에 (①) 현상이 발생하여 남세균이 잘 성장할 것이다.
- B 호수에 비가 내린 뒤에도 물의 온도, 물의 흐름 등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②) 현상의 발생 가능성이 증가할 것이다.

■ 예시 답안

3.

- ① 오존층 / 오존
- ② 포자

풀이 (가)의 1문단을 읽고 남세균으로 만들어진 산소가 오존을 형성하고 이로 인해 지구의 20~25km 상공에 ‘오존층’이 형성됨으로써 지표면에 닿는 자외선이 조절되는 순기능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구의 대기에 형성되어 지표면에 닿는 자외선을 약해지게 만든 것을 뜻하는 보조문 ①에 들어갈 말은 ‘오존층’이다. 또한 남세균이 만든 산소가 자외선과 만나 오존을 형성하였고 이 오존이 모여 층을 이루어 결과적으로 오존층을 형성한 것이므로, 포괄적 의미에서 ①은 ‘오존’도 정답이 된다.

한편 (가)의 2문단을 읽고 남세균은 질소 고정 능력을 통한 생존, ‘포자’ 형성을 통해 변화하는 환경에의 생존, 공기 주머니를 통해 상하 이동을 통한 이동의 용이성이라는 세 가지의 환경 변화 적응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남세균이 생존에 필요한 환경이 악화될 때 형성하는 것은 ‘포자’이므로 보조문 ②에 들어갈 말은 ‘포자’이다.

4.

- ① 성층
- ② 녹조

풀이 (나)에서 녹조 현상을 일으키는 남세균은 영양물질이 많고, 수온이 높으며, 일사량이 풍부하고, 물의 흐름이 약하거나 정체될 때 더 많이 증식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보기 2>에 따라 만일 A 강 하류에 댐을 만든다면 A 강은 물의 흐름이 정체될 것이라는 점과, A 강은 수심이 깊다는 점, 날씨가 더운 계절, 즉 여름철이라는 점에서 지문 (나)의 4문단의 내용에 따라 ‘성층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①의 자리에는 ‘성층’으로 답해야 한다.

<보기 1>에 따르면 B 호수는 비가 오면 질소나 인 등의 영양물질이 호수로 유입되는데, <보기 2>의 상황에 따라 수온, 일사량, 물의 흐름 등 녹조 현상의 발생 조건이 유지된다면, 지문 (나)의 전체적인 내용에 따라 남세균의 발생 요인인 영양물질, 수온, 일사량, 물의 흐름이 모두 갖추어진 것이므로, B 호수에는 ‘녹조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②의 자리에는 ‘녹조’로 답해야 한다.

■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3.	• ①, ②를 각각 4점으로 배점함. ① 오존층/오존: 4점 (그 외는 모두 0점) ② 포자: 4점 (그 외는 모두 0점)	8점
4.	• ①, ②를 각각 4점으로 배점함. ① 성층: 4점 (그 외는 모두 0점) ② 녹조: 4점 (그 외는 모두 0점) • 보조문의 ①과 ②의 뒤에 모두 ‘현상’이 적혀 있으므로 각각 ‘성층’, ‘녹조’가 아니라 ‘성층 현상’, ‘녹조 현상’이라고 쓴 경우는 괄호 넣기의 문맥을 미준수한 것이므로 감점 조건에 따라 -2점	8점

문항 5~6

[5~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민도식이 나서서 험악해진 분위기를 간신히 가라앉혔다.

“준비 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소집한 건 처음부터 요식 행위에 지나지 않았던 거야. 경영자 독단으로 처리하지 않고 직원들의 의사를 물어서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 가지고 결정했다는 인상을 대내외에 풍길 필요가 있었던 거야. 이제 길은 두 가지뿐야. 나머지 절반을 찾아서 마저 몸에 꿰든가, 아니면 기왕 우리 몸에 입혀진 절반을 아예 벗어 버리든가 각자가 알아서 결정할 일이야. 저기 좀 보라고. 저 사람이 아까부터 우릴 비웃고 있어. 제복 얘기 앞으로는 그만하기로 하지.”

생산부 공원 복장을 한 사내가 엇비슷한 자세로 이쪽을 돌아다보며 야릇한 웃음을 입가에 물고 있었다. 그를 보더니 장상태가 화를 벌컥 내면서 큰 소리로 미스 윤을 불렀다.

“이봐, 저기 앉은 저 사람 내가 좀 보잔다구 전해!”

눈이 휘둥그레진 미스 윤이 종종걸음으로 그에게 다가가기 전에 그쪽에서 자진해서 먼저 일어섰다. 그가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장의 목소리가 컸던 것이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여전히 웃음기를 입에 문 얼굴이 장을 정면으로 상대했다.

“당신 뭐야? 뭔데 어제부터 남의 애길 엿듣고 비웃지, 비웃길?”

“비웃음으로 보셨다면 용서하십시오. 엿듣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들릴 정도로 선생님들 말소리가 컸습니다. 말씀 내용이 동림 산업에 계신 분들 같아서 저도 모르게 관심이 컸나 봅니다.”

“오오라, 그러고 보니 당신도 동림 가족의 일원이 분명하군. 부서가 어디야?”

“생산부 제1 공장입니다. 거기서 잡역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 “권입니다.”

[A]

“이름이 권이다? 그럼 성까지 아주 짝을 채워 보게.” / “성이 권입니다.”

만만한 상대를 만난 장은 권 씨를 노리개감으로 삼아 화풀이할 작정임을 분명히 하면서 동료들에게 은밀히 눈짓을 보냈다. 함께 놀이에 끼어들라는 뜻일 것이다. 그러나 도식이 보기엔 첫눈에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그는 참을성 좋게 여전히 웃고 있었다. 그것은 생산부 공원들이 본사의 사무직을 대할 때 일반적으로 갖는 비굴한 표정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적대감도 아닌 그것은 일종의 자신감의 표현임이 분명했다. 두툼한 입술과 커다란 눈이 얼핏 눈에 띄는 특징이었다. 장상태하고 비교해서 둘이 서로 어금어금할* 정도로 작은 체구였다. 실제 나이는 장보다 두세 살쯤 위일 것 같은데 적어도 이 삼십 년은 더 세상을 살아 냈을 법한 관록 같은 게 엿보이는 얼굴이었고, 그것이 교양이라는 것하고도 연결되어 잡역부라던 자기소개가 아무래도 믿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

“짝을 채우기 싫다 이거지? 좋았어. 그런데 자네가 하는 잡역일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서 우리 얘기에 이틀 동안이나 관심을 갖지?”

“물론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쪽에선 작업 중에 팔이 몽텅 잘려져 나간 사람이 있고 그 팔값을 찾아 주려고 투쟁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다른 한쪽에선 몸에 걸치는 옷 때문에 거기에 자기 인생을 걸려는 분들도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장상태의 얼굴색이 하얗게 질리는 것 같았다. 장이 어물거리는 사이에 우기환이 나섰다. 우 역시 장처럼 권 씨의 나이를 전혀 셈해 주지 않는 말투였다.

“팔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옷도 중요해. 옷을 지키려는 건 다시 말해서 팔을 찾으려는 거나 마찬가지 일이야. 팔이 옷에 우선한다 생각하고 우릴 비웃었다면 당신은 분명히 덜떨어진 사람이야.”

“그래서 다방에 앉아서 투쟁을 하신다 이런 말씀이지?”

우의 응원에 힘입어 전열을 가다듬고 난 장이 입꼬리를 비틀면서 이렇게 말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옷도 중요하고 팔도 중요하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을 찾으려는 사람이라고 함부로 대하는 자세만큼은 삼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선생님들한테 팔이 있듯이 옷은 우리들도 필요하니까요. 이제 또 들어가 봐야죠.”

팔과 옷을 한참 주고받던 권 씨가 장과 우를 향해 차례로 목례를 보낸 다음 평하니 다방을 나가 버렸다.

[중략 부분 줄거리] 회사 창업 기념일 행사를 앞두고 모든 직원들의 제복을 맞추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지만, 민도식과 우기환 둘은 이를 거부하기로 의기투합한다. 이에 두 사람은 사장과 면담을 하게 되는데, 사장은 두 사람을 다독이면서 회사의 뜻에 따라 줄 것을 요구한다.

사장실로 들어서기 무섭게 권 씨는 민도식을 향해 눈자위를 하얗게 부릅뜨 보였다. 우기환의 돌연한 행동에 초벌 놀랐던 도식은 권 씨의 험악한 표정에 재벌 놀라면서 엉거주춤 궁둥이를 들었다. 빨리 자리를 비켜 달라는 권 씨의 무언의 협박이 빗발치고 있었다.

“죄송해요, 사장님. 한사코 안 된다는데도 부득부득 우기면서 이 사람이…….”

뒤쫓아 들어온 여비서를 손짓으로 내보낸 다음 사장이 말했다. / “어서 오게, 권 군.”

자기보다 더 ㉠사정의 절박한 사람을 위해서 민도식은 사장실에서 물러나지 않을 수 없었다.

“잘 생각해서 스스로 결정을 내리도록 하게.”

도어가 채 닫히기 전에 사장의 꺾꺾한 목소리가 도식의 등 뒤에 따라붙는다.

“장 선생 집에 전화 걸었더니 부인이 받데요. 새로 맞춘 유니폼 입구 아침 일찍 출근했다구요.”

아내의 바가지 긁는 소리로 창업 기념일의 아침은 시작되었다. 체육 대회가 열리는 제1 공장까지 가자면 다른 날보다 더 일찍 나서야 되는데도 여전히 멍기적거리고만 있는 남편 곁에서 아내는 시종 근심스런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제복 때문에 총각 사원 하나가 사표를 던졌다는 소문을 아내는 믿지 않았다. 사표를 제출한 게 아니라 강제로 모가지가 잘린 거라고 굳게 믿었다.

[B] “까짓것 난 필요 없어. 거기 아니면 밥 빌어먹을 데 없는 줄 알아? 세상엔 아직도 유니폼 안 입는 회사가 수두룩하단 말야!”

거듭되는 재촉에 이렇게 큰소리로 대거리는 했지만 결국 민도식은 뒤늦게나마 집을 나서고 말았다.

시내를 멀리 벗어나서 교외에 널찍하게 자리 잡은 제1 공장 앞에 당도했을 때는 벌써 개회식이 시작된 뒤였다. 공장 정문 철책 너머로 검정 곤색 일색의 운동장을 넘어다보는 순간 민도식은 갑자기 숨이 턱 막혀 옴을 느꼈다. 새로 맞춘 제복으로 단장한 남녀 전 사원이 각 부서별로 군대처럼 질서 정연하게 도열해 서서 연단에 선 지휘자의 손끝을 우러러보며 사가(社歌)를 제창하기 직전의 예비 운동으로 목청을 가다듬는 헛기침들을 하고 있었다. 이윽고 공장 일대를 한바탕 들었다 놓는 우렁찬 노래가 터지기 시작했다. 노래 부르는 사원들 모두가 작당해서 지각한 사람을 야유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검정 곤색의 제복들이 일치단결해 가지고 사복 차림으로 꿈무늬에 따라붙으려는 유일한 사람을 완강히 거부하는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세상 전체가 온통 제복투성이인 가운데 저 혼자만 외톨이로 떨어져 있는 셈이었다. 자기 한 사람쯤 불참한다 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체육 대회 개회식은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이 민도식을 무척 화나면서도 그지없이 외롭게 만들었다. 정문으로 들어서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뒤돌아서서 나오지도 못한 채 그는 일단 멈춘 자리에 붙박여 버린 듯 언제까지고 움직일 줄을 몰랐다.

- 윤홍길, 「날개 또는 수갑」

*어금어금하다: 표준어로는 ‘어금버금하다’. 서로 엇비슷하여 정도나 수준에 큰 차이가 없다.

5. 윗글의 ㉠에 나타난 ‘절박한 사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윗글의 [A]에 근거해서 10자 이내로 쓰시오(단, 띄어쓰기로 인한 빈칸은 글자 수에 포함시키지 않음).

6. <보기>는 윗글에 대한 설명이다. <보기>의 ①, ②에 들어갈 단어를 윗글의 [B]에서 찾아 각각 쓰시오.

<보기>

1970년대 국가 권력은 국가 발전의 명목으로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며 개인의 희생, 규율과 복종을 강요했다. 이 과정에서 국가 권력은 정치적 정당성을 가장하여 국민을 획일화시키면서 통제하기 위한 각종 의례나 행사의 시행, 장발이나 미니스커트 단속, ‘공연 활동 정화’를 위한 공연윤리위원회 설치 등과 같은 다양한 제도를 동원하였다. 이런 제도적 장치들은 개인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것은 물론, 국가 권력에 의한 개인의 통제를 합리화하는 수단이 되었다. 소설은 제목을 통해 (①)을/를 ‘날개’에, (②)을/를 ‘수갑’에 비유하면서 1970년대의 현실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 예시 답안

5.

‘(동료가) 팔을 잃음’, ‘동료를 위한 투쟁(싸움)’

풀이 이 작품은 한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제복 제도를 도입하면서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을 통해 1970년대 개인의 자유보다 국가주의를 앞세워 국민을 통제하던 국가 권력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회사의 사무직들은 이에 맞서 불만을 토로하는데, 우연히 이 장면을 팔을 잃은 동료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같은 회사의 생산부 공원인 권 씨가 바라본다.

6.

①: 사복(4점), 사표(2점)

②: 제복, 유니폼(4점), 사가, 노래(2점)

풀이 이 작품은 1970년대 한국 사회의 전체주의적, 획일주의적, 국가주의적 모습을 한 회사에서 벌어진 제복을 둘러싼 구성원들의 갈등을 통해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작품의 제목이기도 한 「날개 또는 수갑」은 모든 사원을 통제하고자 하는 제복을 ‘수갑’에, 그리고 이에 반발하는 개인의 자유와 개성을 ‘날개’에 비유, 대비하면서 작품의 주제 의식을 선명하게 표현하고 있다.

■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5.	이 문항은 절박한 사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묻고 있기 때문에 ‘(동료가) 팔을 잃음’ 또는 ‘동료를 위한 투쟁(싸움)’이라는 두 가지 내용 중 반드시 어느 하나가 있어야만 8점으로 인정된다. ‘팔을 찾는다’, ‘팔이 필요하다’ 등은 팔의 절단을 구체화한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2점만 인정함.	8점
6.	①, ②를 각각 4점으로 배점함. ① 사복(4점) ② 제복, 유니폼(4점) ①에 ‘사표’는 자유를 의미하지만, 개성이 표현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부분 점수인 2점만 인정한다. ②의 경우 ‘사가’, ‘노래’ 역시 획일성이라는 의미가 어느 정도 인정되기 때문에 2점으로 인정한다. 참고로 사표나 사가는 상징성이 약하고, 대비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정답으로는 미흡하다.	8점

2024학년도 인문계열

문항 1~2

신화학자인 캠벨은 융의 관점을 도입하여 수많은 신화들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융은 무의식의 영역을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으로 나누었다. 전자는 후천적이며 개인의 체험이 쌓여 있는 곳으로 꿈과 관련된 영역이고, 후자는 선천적으로 주어진 인류의 보편적 지층(地層)으로 신화적인 원형 이미지들로 이루어진 영역이다. 캠벨은 인간의 일생이 서로 유사한 과정으로 진행되며 이 과정의 오랜 반복에서 이루어진 것을 집단 무의식으로 보고 이것이 신화의 보편 구조로 승화되었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전제에서 그는 신화 전체에 적용될 수 있는 동질적이고 보편적인 기본 구조가 인간의 성장과 발전을 상징하는 통과 의례의 구조에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신화의 핵심은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인간으로 살아가는 힘을 주는 ‘재생의 삶’을 가르쳐 주는 데 있으며, “신화는 어느 곳에서 채집된 것이든 그 다양한 의상 아래로는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 ‘똑같은 얼굴’을 ‘원질 신화’라고 하였다.

캠벨은 통과 의례를 ‘분리-입문-회귀’의 과정으로 보았다. 그가 말한 원질 신화는 이 과정을 기본 구조로 가지고 있는데, 그는 신화에 따라 이 세 단계 중의 어떤 과정은 생략되기도 하고 또 어떤 과정의 내용들은 보다 복잡하고 세밀하게 서술되기도 하지만, 신화들의 영웅이 겪는 모험의 표준 궤도는 대개 이 구조를 기본으로 하는 확대판으로 보았다. 따라서 원질 신화는 바로 신화 속 영웅의 삶에서 나타난다. 영웅은 삶의 세계에서 초자연적인 경이의 세계로 떠나고 여기에서 엄청난 세력과 만나 승리를 거둬서, 동료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현실 세계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원질 신화에서 영웅의 삶은 ‘출발’, ‘입문’, ‘귀환’의 순차적 흐름을 보이며 이 흐름은 통과 의례의 ‘분리-입문-회귀’의 과정에 대응된다. 각 단계에서는 기본적인 이야기의 요소들이 있다. 출발 단계에서 영웅은 어떤 존재를 만나고 그 존재로부터 영웅으로서의 소명을 전해 듣는다. 이를 통해 영웅은 자아를 각성하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준비를 하거나, 그 소명을 거부하여 가족을 잃는 것과 같은 희생을 치르기도 한다. 어떤 경우이든 영웅은 낯선 세계로 떠나게 된다.

입문 단계는 낯선 세계에서 귀환하기 전까지의 과정이다. 이 세계에서 영웅이 겪는 첫 번째 시련은 어떤 공간에 갇히는 것이다. 이는 낡은 자기가 죽어야 새로운 자기로 태어날 수 있다는 의미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후 영웅은 혼자 또는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온갖 난관이 기다리고 있는 모험을 시작한다. 예를 들면 보기만 해도 사람을 돌로 만드는 메두사를 처치하는 일, 머리를 자르면 그곳에서 두 개의 머리가 솟아 나오는 아홉 머리의 뱀 히드라를 죽이는 일 등등……. 영웅이 물리치는 (㉠)들은 인간 내부의 비합리적인 야만성을 상징한다. 이 과정에서 조력자는 대체로 (㉡)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인생에서 일정한 모험을 거친 사람들, 즉 삶을 살아 낸 사람들이야말로 조력자로서의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인류의 보편적 발상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온갖 장애물을 극복한 영웅이 마지막으로 치르는 과정은 여신과의 결혼이다. 여신은 모성성과 악마성을 동시에 포함한 존재로 영웅을 구원하기도 하고 파멸로 이끌기도 하는데, 여신이 숭한 성취와 위험이 동시에 도사리고 있는 삶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한편 영웅과 여신의 결혼은 영웅이 이제 온전히 삶의 전체성을 이해할 정도로 성숙한 자아로 성장했다는 것으로, 이것은 출발 단계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이롭게 할 수 있을 정도의 존재로 성장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하지만 영웅이 이와 같은 존재가 되었어도 귀환 단계에서는 입문 단계 이전의 세계로 귀환하는 모험을 치러야 한다. 이때 영웅은 귀환의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도 많다. 그런 영웅은 불로불사 여신의 축복받은 섬에 아예 눌러앉아 버린 것으로 전해진다. 그렇지 않을 경우 영웅은 귀환을 방해하는 적대 세력에 맞서게 된다. 영웅은 이 세력을 물리치거나 따돌려서 출발 단계의 세계로 귀환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외부의 조력을 받기도 한다. 외부의 조력은 출발 단계의 세계 자체가 영웅의 귀환을 고대하기 때문에 전혀 이상하지 않다. 귀환 관문의 통과는 낯선 세계에서 변화한 영웅이 그 변화를 출발 단계의 세계에 적용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영웅은 처음에 자기가 떠났던 세계와 시련을 주었던 낯선 세계를 통합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고, 출발 단계의 세계를 새로운 질서의 세계로 변화시킨다.

원질 신화의 이와 같은 서사 구조는 ‘출발 단계의 세계’와 ‘입문 단계의 세계’의 대립 구조, ‘출발’과 ‘귀환’의 대립 구조와 같이 이항 대립 구조 속에서 나타난다. 영웅은 이러한 이항 대립 구조를 갖고 있는 서사 속에서 이 대립을 통일시킨다. 이와 같은 이항 대립 구조의 서사 구조는 대중문화 영역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할리우드를 비롯한 문화 콘텐츠계는 원질 신화의 서사 구조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1. 윗글의 ㉠과 ㉡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각각 쓰시오.

2. <보기>의 내용을 참고로 하여 윗글을 이해할 때, ‘영웅의 귀환 단계’의 의미를 10자 이내로 쓰시오(단, 띄어쓰기로 인한 빈칸은 글자 수에 포함시키지 않음).

<보기>

이집트 신화에서 호루스와 세스는 서로 투쟁하는 적대적 신이다. 세스는 호루스에 의해 영속적으로 지배되지만 결코 파괴되지 않는다. 이 둘은 투쟁 과정에서 상처를 입지만 결국에는 화해가 이루어진다. 이집트 신화 연구자들은 이 대립 쌍을 우주 안의 모든 갈등의 신화적 상징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캠벨은 갈등하는 대립 쌍의 의미에서 더 나아가 화해의 의미에 주목한다. 그에 의하면 “호루스와 세스는 일시성의 불가피한 변증법 —여기에서는 모든 것이 쌍으로 나타난다—을 신화적으로 표상하면서 영원한 갈등 관계에 있다. 그러나 시간과 공간의 베일을 넘어서 영원성의 영역에서는 이중성이 사라지며 그것이 하나가 된다. 죽음과 삶이 하나이며, 모든 것이 평화이다.” 시공의 베일을 넘어서 비가시적 세계에서는 죽음이 곧 삶이고 삶이 곧 죽음이다. 다시 말해서 대립물이 서로 꼬리를 물며 합일되어 있는 세계, 영원한 존재의 평화가 깃들여 있는 세계이다. 캠벨은 호루스와 세스의 갈등이 화해로 이어지는 신화적 상징을, 이러한 비밀스러운 지식을 알려주는 “존재의 신비”의 메타포로 읽는다.

■ 예시 답안

1.

㉠ - 괴물, 괴수, 몬스터

㉡ - 노인, 노파, 늙은이, 현인, 현자, 조상, 선조, 할아버지, 할머니

2.

대립의 통일

풀이 캠벨에 의하면 마지막 귀환 단계에서 영웅은 귀환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귀환을 방해하는 세력에 맞서 승리하거나 그 세력으로부터 탈출하여 자신의 출발지였던 세계를 새로운 질서의 세계로 만든다. 이러한 영웅의 귀환의 의미는 이항 대립 구조의 통일이다. 제시된 <보기>의 지문은 영웅 신화에서 영웅의 귀환 단계가 가지는 본질적 의미에 대한 캠벨의 견해를 보여 준다. 그에 의하면 신화적 상징은 삶이 곧 죽음이며, 죽음이 곧 삶인 세계, 즉 대립물이 서로 꼬리를 물고 합일되어 있는 세계 인식에 다름 아니다.

■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1.	㉠, ㉡을 각각 4점으로 배점 ㉠ - 괴물, 괴수, 몬스터 (4점) - 크리쳐, 모험, 난관 (0점) ㉡ - 노인, 노파, 늙은이, 현인, 현자, 조상, 선조, 할아버지, 할머니 (4점) - 연장(자), 어르신 (2점) - 어른, (산)신령 (0점) ※ 이하 모든 문항에 대하여 - 요구된 제한 사항(글자수, 문장, 어절, 음절 등)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 0점 처리함. - 맞춤법이나 어미 활용이 잘못 되었을 경우 0점 처리함.	8점
2.	두 개의 키워드, 키워드1과 키워드2를 설정하고 ‘키워드1이 키워드2로 된다’는 구조로 진술하는 것이 정답으로 8점 부여함. - 키워드 1 : (‘(이항)대립(구조)’, ‘대립 쌍’, ‘대립물’, ‘대결’, ‘갈등’) - 키워드 2 : (‘통일’, ‘통합’, ‘합일’, ‘지양’, ‘화해’) - 키워드 1에 ‘모순’으로 답했을 경우에는 2점 - 키워드 2에 ‘병립’으로 답했을 경우에는 0점 단 키워드 1, 2가 혹은 둘 중 하나가 정확히 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키워드1과 키워드 2의 관계(키워드1이 키워드2가 된다)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0점 처리함.	8점

문항 3~4

‘신(新)박물관학’이라는 용어가 알려지게 된 것은 피터 버고의 『신박물관학』이라는 저서에 의해서이다. 이 책에서 버고는 박물관학이 박물관 전문가들에게 특화된 영역이라는 인식을 넘어, 박물관학의 대상이 사람들의 관심사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특히 버고는 박물관의 행정, 관리, 운영과 관련된 방법론에 집중하고 연구하는 학문을 ‘구(舊)박물관학’이라고 일컫고, 구박물관학에서는 박물관의 목적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박물관의 목적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학문으로서 ‘신박물관학’을 주창한다. 박물관에 있는 전시품을 보존하거나 관리하는 데 주력하는 것이 아니라, 박물관의 사회·문화적 역할을 연구하는 데 집중하자는 것이다.

버고로 대표되는 신박물관학의 주창자들은 박물관 르네상스, 즉 박물관 건설 붐을 통해 박물관이 전시품 보존의 목적을 수행하는 특수 시설이라는 제한된 의미에 머물지 않고 사회 변동에 따라 변화하는 취향과 가치를 담아내는 문화 기관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음이 드러난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1980년대의 영국의 박물관은 대형 쇼핑몰이나 놀이공원과 경쟁하면서 수익성이 높은 전시를 개최하고 박물관 안에 상점을 들이는 등 변화를 도모하였다. 구박물관학자들은 박물관이 쇼핑몰이나 놀이공원처럼 여겨진다는 것은 박물관이 표방하는 고급문화의 가치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극렬하게 비판했지만, 신박물관학자들은 박물관의 관람객을 소비자로 간주하는 상업화 경향은 사회 변동에 따른 자연스러운 흐름으로서, 박물관을 배타적인 고급문화의 공간이 아니라 대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신박물관학자들에게 박물관이 ‘사회적 은유’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근거로 여겨진다.

신박물관학자들은 더 이상 박물관에는 구박물관학자들이 기대하고 상상하는 표준화되고 전형적인 관람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박물관을 지탱해 온 가치 체계의 해체를 주장하였다. 박물관을 기득권층의 의례와 가치를 교육하는 기능을 하는 기관, 몇몇 연구자들과 컬렉터들을 위한 보관 창고로 인식하면서 전시품의 보존이나 관리 등 박물관의 방법론에 집중하는 구박물관학을 변화해야 할 대상으로서 규정한 것이다. 나아가 신박물관학자들은 구박물관학자들의 박물관에 대한 고정 관념을 극복하고 박물관의 사회·문화적 역할을 연구하는 근본적인 박물관학을 마련할 것을 강조하였다. 박물관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박물관이 사회 변동을 담아내는 방식에 관심을 가지고 박물관에서 가시화되거나 전시되는 부분만이 아니라 박물관에 관련된 역학 관계, 즉 박물관의 운영 주체나 박물관의 관람객 등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박물관의 사회·문화적 역할을 제고하는 데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신박물관학자들은 우선 누가 박물관을 통제하고 있는지, 그들이 어떤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박물관을 운영하는지 관심을 가지는 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특권 계층의 사적 컬렉션이 공공 박물관으로 전환되어 기득권층의 의례와 가치를 답습하게 하는 사례를 언급하였다. ‘박물관의 전시품은 스스로 말해야 한다’라는 말은 특정한 가치와 이데올로기를 배제하고 사회·문화를 객관적으로 비추어 주는 거울이라는 박물관의 역할을 강조하는 신박물관학자들의 시각을 잘 보여 준다. 한편 신박물관학자들은 박물관과 관람객 사이에 개방적이고 상호적인 관계 형성을 위해서 큐레이터의 역할 변화를 강조하기도 하였다. 즉 큐레이터가 특권 계층이나 기득권층을 위한 전시 기획 전문가에서 벗어나 박물관을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문화 기관으로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박물관 외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박물관 내에서 사회·문화를 보여 주는 ‘저자’로서 발언할 수 있도록 하여, 박물관을 소수의 기득권층이 아닌 다수의 대중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박물관을 사회 구성원 모두의 대화 공간으로 변모시켜 다원적이고 차별화된 발언들이 그 안에서 조화를 이루며 공존하게 하자는 말로 평가된다.

3. <보기>는 윗글을 바탕으로 구박물관학자와 신박물관학자의 견해를 정리한 것이다. <보기>의 ①, ②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윗글에서 찾아 각각 쓰시오.

<보기>

	구박물관학자	신박물관학자
박물관의 주체	전문가의 영역	(①)의 영역

	구박물관학자	신박물관학자
박물관에 대한 인식	고급문화의 향유 공간이자 특권 계층, 기득권층의 의례와 가치를 교육하는 공간	변화하는 사회 모습을 담는 복합 문화적 공간
박물관학의 목적	박물관의 행정, 운영, 전시품의 보존 및 관리	박물관의 (②)에 대한 연구로 확장

4. <보기>에 나타난 주장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신박물관학자들의 견해가 드러난 문장을 윗글에서 찾아 첫 어절과 마지막 어절을 각각 쓰시오.

<보기>

‘픽처레스크(Picturesque)’는 ‘그림과 같은’, ‘그림이 될 만한’이라는 뜻으로, 실제 자연 풍경보다 더 자연인 것처럼 보이는 풍경화의 효과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런데 풍경화가 어원적으로 틀(frame)을 의미하며 풍경화 속에는 이미 자연을 구획 짓는 인공성이 내재해 있고 풍경화 속의 자연은 인간의 시각에 의해 재단된 것이라는 점이 강조되면서, 픽처레스크는 재현된 자연이 실제 자연을 바라보는 틀과 준거(reference)로 작용하는 것을 가리키게 되었다. 박물관에 대해 연구하는 몇몇 학자들은 박물관 안에 놓여 있는 전시물이란 누군가에 의해 선택된 것으로서, 풍경화 속의 풍경과 같이 픽처레스크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박물관은 여전히 ‘헤게모니적 의례가 집행되는 극장’이라는 것이다.

■ 예시 답안

3.

① (다수(의), 모든) 대중(들), 사람들, (박물관) 관람객, 많은/다수의/대부분의 사람(들), 일반인, 보통 사람, 사회 구성원 (모두), 모든 사회 구성원

② 사회·문화적 역할, 사회문화적 역할

풀이 신박물관학자들의 견해 속에서 구박물관학자들이 박물관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박물관의 목적을 무엇에 두고 있는지를 대비적으로 확인하여 답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대표적인 신박물관학자인 버고는 구박물관학자들이 박물관을 기득권층과 같은 특정 집단과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보고, 박물관의 역할은 전시품을 보존하거나 관리하는 데 힘을 기울인다고 주장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신박물관학에서는 박물관은 보다 많은 대중의 복합 문화 공간으로 인식하고, 상업성의 추구하고 같은 현상도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점을 역설한다. 또한 박물관의 본연의 기능은 박물관이 사회·문화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역할 자체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라는 점을 거듭 이야기하고 있다.

4.

박물관의, 준다

풀이 <보기>에서는 픽처레스크의 개념을 설명하고, 이를 박물관과 박물관의 전시물로 끌어들이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박물관의 전시물은 특정한 누군가에 의해 선택된 것으로서 이미 그 안에는 특정한 시각이나 가치, 의미 등이 담기게 된다. 결국, 특정한 가치와 이데올로기가 배제되고, 객관적인 박물관·전시는 존재할 수 없다는 지적인 셈이다. 이와 배치되는 주장이 담긴 문장을 본문에서 찾으려면, “‘박물관의 전시품은 스스로 말해야 한다’라는 말은 특정한 가치와 이데올로기를 배제하고 사회·문화를 객관적으로 비추어 주는 거울이라는 박물관의 역할을 강조하는 신박물관학자들의 시각을 잘 보여 준다.”가 된다. 또한 정답에 해당하는 문장을 지문에서 찾아 첫 어절과 마지막 어절을 쓰라는 문제의 요구 사항도 준수하여야 한다.

■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3.	①, ②를 각각 4점으로 배점 ① (다수(의), 모든) 대중(들), 사람들, (박물관) 관람객, 많은/다수의/대부분의 사람(들), 일반인, 보통 사람, 사회 구성원 (모두), 모든 사회 구성원 (4점) - ‘사람’과 같이 다수의 개념이 들어있지 않은 경우 0점 - ‘사람, 대중, 구성원’ 등 다음에 불필요한(이미 문제에 나타나 있어서 중복되면 결과적으로 비문을 만들어내는) 조사 ‘-의’를 넣으면, 그리고 그 뒤를 이어 ‘관심사, 영역’ 등을 추가하면 0점 ② 사회·문화적 역할, 사회문화적 역할 (4점) - ‘사회적 역할’ 혹은 ‘문화적 역할’과 같이 1개만 적었을 경우 부분 점수 인정 (2점) - 문제에 이미 있는 ‘박물관의’를 앞에 추가한 경우 0점 - ‘사회·문화적 역할’ 다음에 ‘제고’ 붙인 경우 0점	8점
4.	박물관의, 준다(8점) (작은)따옴표와 같은 문장 부호를 사용한 경우 채점에 영향 없음.	8점

문항 5~6

미국의 클레멘트 그린버그는 모더니즘 미술에 대한 강력한 이론을 제시한 미술 평론가이다. 그는 사회와 미술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근간으로 하여 자신의 관점에 부합하는 미술가나 미술 운동을 이론적으로 지지함으로써 1940년대에서 1960년대에 걸쳐 미술가들의 작업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린버그는 1930년대 후반 스탈린과 히틀러와 같은 독재 정권에 의해 유럽 문명이 붕괴되는 것을 목격하고 당시 사회와 문화에 대해 위기의식을 느꼈다. 더불어 그는 근대 산업 사회에서 도시의 대중이 문화를 오락으로만 여기고 있는데 자본가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러한 문화를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이러한 문화적 위기 속에서 지속적인 변화와 진보를 고집하는 것이 혁명적인 것이라고 말하며, 아방가르드를 적극적으로 옹호하였다. 아방가르드는 본래 적군의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목숨을 걸고 적진으로 가장 먼저 뛰어드는 선발대를 지칭하는 말인데, 미술사에서 아방가르드는 사회나 정치와 거리를 두고 심미적 표현의 절대적 자유를 추구하는 미술적 경향을 일컫는다. 그린버그는 사회와 정치에 대한 철학을 드러낸다는 것은 현실과 관련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혁명적이지 않고, 아방가르드는 현실과 거리를 두면서 변화와 진보를 지향하기 때문에 ‘미술을 위한 미술’로서 가치 있다고 하였다. 여기서 그린버그가 말하는 ‘미술을 위한 미술’이란 미술가가 미술만의 독자적 매체를 기법적으로 어떻게 다루는가에 관심을 두는 것이다.

그린버그에 따르면, 미술을 위한 미술의 궁극적인 형태는 순수 추상 미술이다. 그는 순수한 미술만이 문화의 질을 유지하고 문화를 진보할 수 있게 한다고 하면서, 회화의 독자적인 효과를 위해 회화 고유의 매체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의 관점에서 회화만이 가지는 매체의 성격은 캔버스의 네모 형태와 회화 면(面)의 평면성이다. 그는 회화의 매체적 성격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우선 원근법을 없애야 한다고 하였다. 과거에 원근법을 적용시켜 화면에 구축한 회화적 깊이를 알파카게 압축시켜 실제 캔버스의 표면과 만나는 것처럼 평면의 2차원적 성격을 강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명도 차이를 통해 대상의 입체감을 표현하는 명암법을 배제함으로써 회화의 평면성을 부각했다. 그리고 그는 회화 안에 담겨 있는 문학적인 요소들을 배제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회화에 문학에서나 다루어질 법한 요소를 활용하는 것은 미술이 문학적 관습에 얽매어 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변화나 진보와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그는 현실과 무관하게 회화의 매체적 성격을 극대화하는 순수 추상 미술만이 문화를 진보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순수 추상 미술의 우월성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증명될 것이라는 설명 외에 다른 설명을 할 수 없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순수 추상 미술에 대한 그의 확신을 잘 보여 준다.

이러한 그린버그의 이론은 그린버그가 가장 만족할 만한 미학적 근거를 제공했다고 인정한 칸트의 형식주의와 맥이 닿아 있다. 칸트는 『판단력 비판』에서 순수한 미적 판단이란 본질적으로 그 내용이 도덕적, 윤리적인지와는 별개로 작품의 형식적 성격에서 나온다고 하면서 미술의 독자적 성격을 인정하였다. 칸트는 내용의 영역과 형식의 영역은 다르고 형식은 그 자체로 독자적이고 비타협적이기 때문에 내용과 무관하게 미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칸트의 이러한 주장을 토대로 그린버그는 형식을 통해 작품의 미적 측면이 드러나는 것임을 강조하였는데, 혹자들은 순수 추상 미술에는 형식만 있고 내용은 없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그린버그는 순수 추상 미술 작품에서 내용은 형태, 색채 등과 결합하여 작품의 형식으로 남아 있으며, 주제란 문학적인 요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배제되어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는 아무것도 재현하지 않은 거대한 색면을 제시한 뉴먼과 로스코의 작품을 내용이 형식에 녹아든 작품으로서 극찬하고, 사실주의 미술, 민속 미술, 일화적 미술 등의 장르는 감상자에게 회화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는 어렵고 복잡한 과정, 즉 회화의 매체적 성격에 집중하는 과정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부정적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또한 캔버스 위에 페인트를 붓거나 떨어뜨리는 드리핑 기법을 구사한 잭슨 폴록을 마네에서부터 시작된 화면의 평면성을 강조하는 모더니즘의 후계자로 일컬었다.

그린버그는 자신만의 독자적인 시각을 통해 여러 미술 작품에 대해 평론했는데, 그는 미술 평론의 대상은 미적 문제만으로 한정되어야 하며 미술 평론에 주관적인 감정이 끼어 들어갈 자리는 없다고 강조하였다. 그린버그의 이러한 관점은 당대 미술계의 지배적 서사로 인정될 만큼 학자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 미술관이나 미술 잡지에서도 그린버그의 형식주의 이론을 옹호하였고, 그린버그적 모더니즘이라는 주제로 전시가 열리는 일도 잦았다. 그러나 그린버그가 한 시대에는 단 하나의 올바른 양식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여 형식

주의적 규범에 맞지 않는 미술을 폄하하고 있다는 비판 역시 거셌다. ㉠그린버그는 미술의 역사적 진행 과정에 관심을 가지면서 마네, 인상주의, 구성주의, 추상 표현주의로 이어지는 단선적인 역사의 진보를 믿고 순수 추상 미술의 역사적 필연성을 주장하였는데, 그 주장에 따르면 상징주의, 미래주의, 다다, 초현실주의는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그의 이론은 미술 감상에서 중요한 감정의 문제, 관람자의 반응이나 심리적인 효과를 간과하였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었다.

5. 윗글을 바탕으로 회화의 독자성과 순수성을 추구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린버그가 제안한 세 가지 전략을 쓰시오(단, 윗글에 쓰인 어휘만 사용할 것).

6. 윗글의 ㉠과 <보기>를 통하여 그린버그가 바라본 근현대 미술의 역사적 진행 과정을 알 수 있다. 그 핵심 내용을 ‘(①)(으)로부터 (②)(으)로의 변화’라고 요약했을 때, ①, ②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보기>에서 찾아 각각 쓰시오.

<보기>

그림이 2차원의 평면에 그려지는 것이라는 사실의 확인에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지 않다. 바탕으로 종이를 쓰긴, 천을 쓰긴, 나무를 쓰긴, 그림의 표면(Picture surface)이 모두 2차원임은 상식인 것이다. 그러나 르네상스 이후의 전통적인 회화는 그것이 보여주는 깊은 공간감과 실물 같은 형태감을 통해 이 상식을 망각하게 한다. 즉 그림의 물리적 평면성은 부정되었는데, 사실은 ‘불투명한’ 것인 그림의 표면이 마치 ‘투명한’ 유리창인 것처럼 가정되었던 것이다. 물리적 평면성을 부정한 전통 회화의 바탕에는 특정한 그림 개념이 자리하고 있었다. 묘사되는 내용이 어떤 것이든 간에, 즉 그림의 소재가 천상에 속하든 지상에 속하든, 또는 과거에 속하든 현재에 속하든, 그림이란 2차원의 표면에 3차원의 환영을 ‘실물처럼’ 또 ‘입체적으로’ 구축하는 일이라는 생각, 환영주의(Illusionism)가 그것이다.

이렇게 부정되었던 물리적 평면성이 시인되면서 그림의 전통적 개념인 환영주의가 부정되기 시작하는 것, 또한 물리적 평면성이 극대화됨으로써 환영주의가 완전히 제거되고, 그림의 개념적 평면성이 완전하게 실현되는 것, 이것이 그린버그가 인정한 미술 역사의 진보이다. 즉, 회화의 역사는 점증하는 물리적 평면성이 그림의 개념을 바꾸어간 역사라고 할 수 있다.

■ 예시 답안

5.

원근법 배제, 명암법 배제, 문학적(인) 요소 배제

풀이 그린버그는 미술의 독자성과 순수성을 위해서는 미술 외적인 요소들, 즉 문학적 요소들을 미술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미술만의 고유한 매체, 즉 작품의 평면성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평면성을 저해하는 미술의 기법들, 즉 재현의 사실성을 높이기 위해 고안된 원근법이나 명암법 역시 없애야 한다고 말한다.

6.

① - 3차원, 입체(성), 환영(주의) (4점)

② - 2차원, 평면(성) (4점)

풀이 제시된 <보기>는 그린버그가 바라본 근현대 미술의 역사 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그에 따르면 서양 미술의 역사는 르네상스 이후 현실의 사실적 재현을 위한 원근법이 발명되면서, 회화의 표면이 2차원이라는 상식이 망각되기 시작한다. 이처럼 그림이란 2차원의 표면에 3차원의 환영을 ‘실물처럼’ 또 ‘입체적으로’ 구축하는 환영주의의 대두는 이후 마네, 인상주의, 구성주의, 추상 표현주의로 이어지는 순수 추상 미술의 역사적 필연성에 의해 부정되면서, 그림의 개념적 평면성을 점차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그린버그는 말했다. 그리고 이러한 방향성이야말로 미술 역사의 진보라고 그는 주장했다. 이러한 방향성을 요약한다면, ‘환영에서 평면으로의 변화’가 될 것이다.

■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5.	다음과 같이 배점한다. 양쪽의 키워드를 조합해야 각 점수를 획득할 수 있음. 총합 8점 2점 - (‘원근법’) + (‘배제’, ‘없애기’). 2점 - (‘명암법’) + (‘배제’, ‘없애기’). 4점 - (‘문학적(인) 요소’, ‘주제’) + (‘배제’, ‘없애기’) - 원근법, 명암법, 문학적 요소를 지문에 있는 대로 풀어 써도 각각 맞는 것으로 인정함	8점
6.	①과 ②를 각각 4점으로 배점 ① - 3차원, 입체(성), 환영(주의) (4점) ② - 2차원, 평면(성) (4점)	8점

문항 7~9

[가]

어머니는 말을 둥글게 하는 버릇이 있다

오느냐 가느냐라는 말이 어머니의 입을 거치면 웅가 강가가 되고 자느냐 사느냐라는 말은 장가 상가가 된다 나무의 잎도 그저 푸른 것만은 아니어서 밤낭구 잎은 푸르딩딩해지고 밭에서 일 하는 사람을 보면 일 항가 땡가 하기에 장가 가는가라는 말은 장가 강가가 되고 애기 낳는가라는 말은 아 낭가가 된다

강가 낭가 당가 랑가 망가가 수시로 사용되는 어머니의 말에는
한사코 ○이 다른 것들을 떠받들고 있다

남한테 해꼬지* 한 번 안 하고 살았다는 어머니
일생을 흙 속에서 산,

무장* ①허리가 굽어져 한쪽만 뚫린 동그라미 꼴이 된 몸으로
어머니는 아직도 당신이 가진 것을 퍼 주신다
머리가 밭에 닿아 둥글어질 때까지
C자의 열린 구멍에서는 살리는 것들이 쏟아질 것이다

우리들의 받침인 어머니
어머니는 한사코
오손도순* 살어라이 당부를 한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둥글게 하는 버릇이 있다

- 이대흠, 「동그라미」

*해꼬지: 표준어로는 ‘해코지’.

*무장: ‘점점 더, 갈수록 더’라는 뜻의 방언.

*오손도순: 표준어로는 ‘오순도순’ 또는 ‘오손도손’.

[나]

“그래 내 돈을 곱게 먹겠는가 생각을 해 보렴. 매달린 식솔은 많구 병들어 누운 늙은 영감의 약값이라두 뜯어 쓰려구, 이렇게 찢찢거리구 다니는, 이년의 돈을 먹겠다는 너 같은 의리가 없는 년은 욕을 좀 단단히 빼야 정신이 날 거다마는, 제 사정 보아서 짠 변리*에 좋은 자국을 지시해 바친 밖에! 그것두 마다니, 남의 돈 생으루 먹자는 도둑년 같은 배짱 아니구 뭐냐?”

오고 가는 사람이 우중우중 서며 구경났다고 바라보는데, 원체 히스테리증이 있는 줄은 짐작하지마는, 창피한 줄도 모르고 기가 나서 대든다. 히스테리는 고사하고, 이것도 빗쟁이의 돈 받는 상투 수단인가 싶었다.

“누가 안 갚는대나? 돈두 중하지만 이게 무슨 꼬락서니냐 말이야.”

정례 어머니는 그래도 달래서 뒷골목으로 끌고 들어가려 하였다.

“난 돈밖에 몰라. 내일모레면 거리에 나왔게 된 년이 체면은 뭐고, 우정은 다 뭐냐? 어쨌든 내 돈만 내놓으면 이러니저러니 너 같은 장래 대신 부인에게 나 같은 년이야 감히 말이나 붙여 보려 들겠다면!”

하고 허청 나오는 코웃음을 친다. 구경꾼은 자꾸 피어드는데, 정례 모친은 생전 처음 당하는 이런 봉욕에 눈앞이 아찔하여지고 가슴이 꼭 메어 올랐으나, 언제까지 이리고 섰다가는 예서 더 무슨 창피한 꼴을 볼까 무서워서 선뜻 몸을 빼쳐 옆의 골로 줄달음질을 쳐 들어갔다. 뒤에서 발소리가 없으니 욕임이는 저대로 간 모양이다. 정례 모친은 눈물이 핑 돌았다.

스물예닐곱까지 동경 바닥에서 신여성 운동이네, 연애네, 어찌네 하고 멋대로 놀다가, 지금 영감의 후실로 들어앉아서, 세상 고생을 알까, 아이를 한번 낳아 보았을까, 사십 전의 젊은 한때를 도지사 대감의 실내 마님으로 떠받들려 제멋대로 호강도 하여 본 욕임이다. 지금도 어디가 사십이 훨씬 넘은 중늙은이로 보이랴. 머리를 곱게 지지고 얹은 얼굴 단장에, 번질거리는 미국제 핸드백을 착 끼고 나선 맵시가 어느 댁 유한마담이지, 설마 일할, 일할 오피스로 아귀다툼을 하고 어려운 예전 동무를 쫓아다니며 울리는 고리대금업자로야 누

가 짐작이나 할까. 해방이 되자, 고리대금이 전당국 대신으로 터놓고 하는 큰 생화*가 되었지마는, 옥임이는 반민자(反民者)의 아내가 되리라는 것을 도리어 간판으로 내세우고 부라퀴*같이 덤빈 것이다. 증경* 도지사요, 전쟁 말기에는 무슨 군수품 회사의 취체역*인가 감사역을 지냈으니 반민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날이면, 중풍을 삼년째나 누웠는 영감이, 어서 돌아가 주거나 하기 전에야 으레 걸리고 말 것이요, 걸리는 날이면 떠메어다가 징역은 시키지 않을지 모르되, 지니고 있는 집간이며 땅섬지기나마 몰수를 당할 것이니, 비록 자신은 없을망정 자기는 자기대로 살길을 차려야 하겠다고 나선 길이 이 길이였다. 상하 식솔을 혼자 떠맡고 영감의 약값을 제 손으로 벌어야 될 가련한 신세같이 우는 소리를 하지마는 그래야 남의 욕을 덜 먹는 발뺌이 되는 것이다.

옥임이는 정례 모친이 혼쫓이 나서 달아나는 꼴을 그것 보라는 듯이 결눈으로 흘겨보고 입귀를 샅룩하여 비웃으며, 버젓이 사람 틈을 헤치고 종로 편으로 내려갔다. 의기양양할 것도 없지마는, 가슴속이 후련하니 머릿속이고 가슴속이고 무언지 뭉치고 비비 꼬이고 하던 것이 확 풀어져 스러지고 회가 제대로 도는 것 같아서 기분이 시원하다. 그러나 그 뭉치고 비비 꼬인 것이라는 것이 반드시 정례 어머니에게 대한 악감정은 아니었다. 옥임이가 그 오랜 동무에게 이렇다 할 감정이 있을 까닭은 없었다. 다만 아무리 요새 돈이라도 이 십여만 원이라는 대금을 받아 내려면은 한번 혼을 단단히 내고 제독을 주어야* 하겠다고 버르기는 하였지마는, 얼떨결에 나온다는 말이 짧은 서방을 둔 떠세*냐 무어냐고 한 것은 구석 없는 말이었고 지금 생각하니 우스웠다. 그러나 자기보다도 훨씬 늙어 보이고 살림에 찌든 정례 모친에게는 과분한 남편이라는 생각은 늘 하던 옥임이기는 하였다. 남의 남편을 보고 부럽다거나 샘이 나거나 하는 그런 몰상식한 옥임이도 아니지마는 자식도 없이 군식구들만 들썩거리는 집에 들어가서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늙은 영감의 방을 들여다보면 공연히 짜증이 나고, 정례 어머니가 자식들을 공부시키느라고 어려운 살림에 얹매고 고생하나, 자기보다 팔자가 좋다는 생각도 나는 것이었다. 내년이면 공과 대학을 나오는 맏아들에, 중학교에 다니는, 어머니보다도 키가 큰 둘째 아들이 있고, 딸은 지금이라도 사위를 보게 다 길러 놓았고, 남편은 번동번동 놀며 마누라가 조리차*를 하는 용돈이나 받아 쓰고, 자동차로 땅뺨기는 까불었을망정 신수가 멀쩡한 호남자가 무슨 정당이랴나 하는 곳의 조직부장이니 훈련부장이니 하고 돌아다니니, 때를 만나면 아닌게 아니라 장래 대신이 되지 말라는 법도 없을 것이다. 팔구 삭 동안 장사를 하느라고 매일 들러보면, 젊은 영감을 등이라도 두드리고 머리를 쓰다듬어 줄 듯이 지성으로 고이는 꼴이란 아닌게 아니라 옆에서 보기에다 부러운 생각이 들 때가 없지 않았지마는, 결혼들을 처음 했을 예전 시절이나, 도지사 관사에 들어서 드날릴 때에야 어디 존재나 있던 위인들이나? 그것이 처지가 뒤바뀌어서 관 속에 한 발을 들여 놓은 영감이나마 반민자로 지목이 가다니, 이런 것 저런 것을 생각하면 쪽쪽 뽑아놓은 자식들과, 한참 활동적인 허위대* 좋은 남편에 둘러싸여 재미있고 기운차게 사는 양이 역시 부럽고, 저희만 잘 된다는 것에 시기도 나는 것이었다. 보기 좋게 이년 저년을 붙이며 한바탕 해대고 나서 속이 후련한 것도 그러한 은연 중의 시기였고, 공연한 자기 화풀이였는지 모른다.

- 염상섭, 「두 파산」

*변리: 남에게 돈을 빌려 쓴 대가로 치르는 일정한 비율의 돈. 이자.

*생화: 장사를 함.

*부라퀴: 언행이나 일처리가 빈틈이 없고 웅골차며 다부진 사람.

*증경: 일찍이 어떤 일을 함. 전임(前任).

*취체역: 예전에, 주식회사의 이사(理事)를 이르던 말.

*반민법: 반민족 행위 처벌법.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에 협력한 친일파의 행위를 반민족 행위로 규정하고 처벌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

*제독을 주다: 상대방의 기운을 꺾어서 감히 다른 마음을 먹지 못하게 하다.

*떠세: 돈이나 세력을 믿고 잘난 체하고 억지를 쓰는 것.

*조리차: 알뜰하게 아껴 쓰는 일.

*허위대: 표준어로는 '허우대'. 보기 좋게 큰 몸집.

7. <보기>는 윗글의 (가)를 해설하고 있는 글이다. <보기>의 ①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두 음절의 말을 쓰시오.

<보기>

이 시는 시의 제목이기도 한 ‘동그라미’가 어머니의 생의 여러 국면에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첫째는 어머니의 말투. 어머니의 말에서는 수시로 이응 받침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 부드러운 이응 소리는 어머니의 모나지 않은 삶을 드러내면서 어머니의 평생의 일터를 채우고 있는 흙의 부드러움으로 이어진다. 그 이응 자의 모습이 바로 동그라미 아닌가? 다음은 흙 속에서 살아온 어머니의 굽어져만 가는 허리. 알파벳 C 자로도 표현되는 어머니의 허리는 한쪽이 뚫린 동그라미의 모습으로 표상된다. 그런데 왜 한쪽이 뚫려 있을까? 그 “열린 구멍”으로 어머니는 “당신이 가진 것”을 “퍼 주시”기 때문이다. 그 다음은 “오손도순 살”라는 어머니의 당부. 오손도순 산다는 것은 서로가 두루두루 사이 좋게 지내는 것이니 바로 (①) 한 삶을 당부하고 있는 것이다. ((①))(이)라는 말에는 말 자체에 ‘동그라미’가 들어 있지 않은가? 이와 같이, 말에서 몸 혹은 삶으로, 나아가 미래에의 당부로 점층적으로 이어지는 시상의 심화는, “‘말’을 둥글게 하는 버릇”으로 시작하여 “‘모든 것’을 둥글게 하는 버릇”으로 끝맺는 구조와 대응하고 있다.

8. <보기>는 윗글의 (나)를 해설하고 있는 글이다. <보기>의 ①, ②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각각 쓰시오(두 단어 모두 ‘구체적’과 같이 ‘-적’으로 끝나는 세 음절의 단어).

<보기>

1949년 8월에 발표된 이 소설은 해방 후의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 군상의 대표적인 두 유형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옥임’이 시대 변화에 따라 재빨리 적응해 가며 배금주의적 사고 방식에 빠져 인간의 기본적인 윤리와 도덕을 내팽개친 유형의 대표 인물이라면, ‘정례 모친’은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시대의 흐름에 올라탄 약삭빠른 인물들에게 패배하는 유형의 대표 인물이다. 소설 제목의 ‘파산’은 사전적으로는 채무자가 그 빚을 완전히 갚을 수 없는 상태에 빠졌을 경우에 진행되는 일련의 조치를 가리키는 법률적인 용어로 여기서는 비유적으로 사용된 것이다. 이 용어를 빌려 표현하자면 ‘두 파산’은 옥임의 (①) 파산과 정례 모친의 (②) 파산을 함께 가리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두 파산’을 낳은 당시 현실의 황폐함과 모순을 여실히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9. 윗글의 (가)의 ㉠에 담긴 ‘어머니’의 마음씨에 가장 가까운 태도를 나타내는 명사를 윗글의 (나)에서 찾아 쓰시오.

■ 예시 답안

7.

원만

풀이 이대흠의 시 「동그라미」는 시 전체를 통하여 ‘동그라미’ 이미지가 일관되고 있음이 특징적이다. ‘어머니’의 말투의 이응 받침, ‘어머니’의 동그랗게 굽은 허리, ‘어머니’의 원만한 삶의 당부에서 모두 ‘동그라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동그라미’는 모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응 받침이 들어가는 ‘어머니’의 부드러운 말투는 “남한테 해꼬지 한 번 안 하고 살았던” ‘어머니’의 삶의 자세와 연결된 것이고, 가족과 다른 사람들을 향한 헌신과 봉사의 삶이 빚어낸 ‘어머니’의 삶의 마모가 끝내 만들어낸 굽은 허리로 표상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과 맞서지 말고 두루 잘 지내라는 당부 속에 담긴 인생의 지침으로서의 원만함과 동질적인 형상(즉 원=동그라미)으로 표현된 것이다.

8.

- ① 정신적, 혹은 성격적, 혹은 인격적, 혹은 윤리적, 혹은 도덕적, 혹은 심리적, 혹은 인성적, 혹은 인간적
② 물질적, 혹은 경제적, 혹은 금전적, 혹은 재정적, 혹은 재무적

풀이 소설은 해방 직후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헤쳐나가는 인물들이 그 과정 속에서 어떤 훼손된 모습을 드러내는지 잘 보여준다. 등장인물의 타락상은 ‘옥임’과 ‘정례 모친’이라는 두 대표 인물을 통하여 정신적 타락과 물질적 타락이라는 유형화된 양상으로 드러난다.

9.

지성

풀이 (가)의 밑줄 친 ㉠ 부분에 담겨 있는 ‘어머니’의 마음은 가족과 타인을 향한 노력, 배려, 헌신, 봉사이다. 그에 가장 가까운 마음씨가 드러나는 (나)의 부분은 남편을 대하는 ‘정례 모친’의 ‘지성으로 고이는’ 태도이다. ‘지성’(至誠)은 지극한 정성을 뜻하고 ‘고이다’는 ‘봉양하다’라는 뜻이다. 문항이 요구하는 것은 명사인 만큼 ‘지성’을 찾으면 된다.

■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7.	‘동그라미’의 형상과 의미를 담아내면서 시의 맥락 속에서의 적절함을 두루 갖춘 ‘원만’을 정답으로 간주하여 만점인 8점을 부여한다.	8점
8.	①과 ②에 각각 4점씩 배점한다. 그리고 ①, ② 모두 세 음절의 ‘-적’으로 끝나는 다음 단어들을 정답으로 인정한다. 뜻이 통하더라도 일상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개인적인 조어(예컨대 ‘마음적’)는 인정하지 않는다. ① - ‘정신적’, ‘성격적’, ‘인격적’, ‘윤리적’, ‘도덕적’, ‘심리적’, ‘인성적’, ‘인간적’ (4점) ② - ‘물질적’, ‘경제적’, ‘금전적’, ‘재정적’, ‘재무적’ (4점)	8점
9.	8점을 배점하고 ‘지성’만을 유일한 정답으로 인정한다.	8점

2024학년도 자연계열

문항 1~2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세기 말에는 공공 기관에서의 의사 결정을 분석하기 위해 조직을 하나의 유기체로 보는 기능주의 이론이 주로 활용되었다. 하지만 기능주의로는 공공 기관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이 대두하면서 공공 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인 관료의 행동 동기를 분석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베버는 관료가 주어진 정치적 목표를 최대한 달성하고자 하며, 사익이 아닌 공익을 추구한다고 가정하였다. 또한 관료는 정책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오직 정치인의 결정을 충실히 집행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는 관료 개인의 특성은 정책의 실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여기고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하지만 관료의 특성에 따라 정책의 실현 여부가 달라지기도 하고,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무조건 복종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의 이론은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비판 속에 공공 부문에서의 의사 결정을 분석하기 위해 경제학적 방법을 적용한 공공 선택론이 대두하기 시작했다. 공공 선택론은 관료를 공공재와 행정 서비스를 능동적으로 공급하는 존재이자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고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려는 존재로 간주한다. 그리고 의사 결정의 주체는 집단이 아니라 개인이라고 여긴다. 공공 선택론은 관료와 정치인 사이에는 일종의 교환 관계가 형성되고 교환의 매개체는 예산이라고 가정하였다. 관료는 공공재와 행정 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급자이고,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인은 이에 대한 수요자라고 볼 수 있는데, 공공 선택론자들은 관료가 일련의 활동과 예상 결과를 정치인에게 공급하고, 정치인은 서비스 공급의 대가로 예산을 지급하는 시장이 형성된다고 보았다. 공공 선택론을 바탕으로 관료의 행동 동기를 분석한 대표적인 학자로 니스카넨과 던리비가 있다.

니스카넨은 시장에서의 협상에서 관료가 유리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보았다. 그는 마치 독점 기업처럼 관료가 공공재와 행정 서비스의 가격과 수량을 모두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이 원인을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찾았다. 관료는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인들이 서비스 공급의 대가로 어느 정도까지 예산을 지급할 용의가 있는지 알고 있지만, 선거로 인해 자주 교체되는 정치인들은 공공재나 행정 서비스 생산의 최소 비용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 따라서 정치인은 이러한 정보를 관료에게 의존하게 된다. 니스카넨은 관료가 이러한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부서 예산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보았다. 그는 관료가 예산을 극대화하려는 동기를 합리성과 생존이라는 측면에서 설명하였다. 관료 역시 사익을 추구하는 인간이므로 효용을 최대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효용의 결정 요인은 소득이라는 금전적 요소와 명성, 부서 관리의 용이성 등 비금전적 요소를 합친 것인데, 일반적으로 예산 규모가 커질수록 두 요소는 모두 커진다. 따라서 관료의 입장에서는 예산을 극대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관료는 직원 충원, 복지 등을 원하는 조직원으로부터 예산 획득에 대한 압박을 받는데 이에 부응하지 못하는 관료는 조직에서 도태하게 된다. 니스카넨은 이러한 이유로 관료가 소속 부서의 예산을 극대화하고자 노력하는데, 이로 인해 공공재가 과잉 생산되어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나타난다고 보았다.

던리비는 니스카넨이 관료나 기관을 지나치게 일반화하고, 관료 행동의 동기를 예산에서만 찾았다고 비판하며 예산 극대화와 관련된 여러 요소 간의 상관관계를 설명하였다. 그는 기관의 유형에 따라 관료의 예산 극대화 추구 정도가 달라진다고 보았는데, 예를 들어 영리 활동을 하는 거래 기관의 관료는 예산 확보의 동기가 강하지만, 하위 조직의 자금 사용 및 집행 방식을 감독하는 통제 기관의 관료는 하위 조직의 성과에 따른 책임을 지므로 예산 확보의 동기가 약하다고 보았다. 또한 그는 관료의 지위에 따라 예산 극대화의 동기는 물론이고, 극대화하기를 원하는 예산의 유형도 다르다고 보았다. 일반적으로 예산이 늘면 직업 안정성이 증대되어 비상근직 등을 포함한 하위 관료의 효용이 커지지만, 고위 관료는 회의 참석, 예산 증가를 위한 증거 제시 등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얻는 효용이 작다. 따라서 고위 관료들은 하위 관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예산 극대화에 소극적이라고 보았다. 한편 예산에는 기관 자체의 운영비로서 관료의 수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핵심 예산, 해당 기관이 민간 부문에 쓰는 지출액과 핵심 예산을 합친 관청 예산

등이 있다. 던리비는 하위 관료의 효용은 직위의 수, 직업의 안정성과 관련이 깊고, 고위 관료의 효용은 부서의 위신, 민간의 고객과의 관계 형성 등과 관련이 깊기 때문에 하위 관료는 핵심 예산을, 고위 관료는 관청 예산을 극대화하려 한다고 보았다.

던리비는 고위 관료가 예산 극대화의 동기를 갖는 것은 맞지만, 고위 관료의 효용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소속 부처의 최적화라고 보았다. 부처의 최적화는 부처의 크기, 직무 관련 권한 등과 관련이 있다. 그는 고위 관료가 관리 회피 성향을 갖고 있어 많은 부하 직원을 통솔하기보다 소수의 유능한 직원들과 근무하기를 원하고, 자신의 재량으로 정책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내부 구조를 개편하려 한다고 보았다.

실제로 관료들이 선택을 내리는 과정에는 많은 요소가 작용하기 때문에 선택을 일반화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 동기를 추적하려는 노력을 통해 관료들이 조직의 하위 구성 요소로서 기능한다고 본 기능주의 이론에서는 설명할 수 없었던 많은 부분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문항 1] 윗글의 내용을 <보기>와 같이 정리할 때, <보기>의 ①, ②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윗글에서 찾아 그대로 각각 쓰시오.

<보기>

공공 기관에서의 의사 결정에 대하여 종래의 기능주의 이론이 비판받으면서 베버는 관료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베버는 관료가 공익을 추구하고 수동적인 존재에 머무른다고 보아 정작 관료보다는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공공 선택론자들은 베버의 견해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관료가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능동적 존재라고 분석하였다. 특히 니스카넨은 관료가 예산의 극대화를 통하여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며, (①)(으)로 인하여 정치인에 대하여 주도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관료가 예산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경향은 (②)(이)라는 역설적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던리비는 관료의 행동 동기에는 여러 요소가 개입하기 때문에 예산의 극대화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는 점에서 니스카넨과 구별된다.

[문항 2] 윗글에 나타난 던리비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보기>에 제시된 A~D 가운데 예산을 확보하고 극대화하는데 가장 적극적일 것이라고 예상되는 사람과 가장 소극적일 것이라고 예상되는 사람을 순서대로 쓰시오.

<보기>

A는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고위 관료이고, B는 A와 같은 기관의 하위 관료이다. C는 하부 조직들의 자금 사용을 감독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고위 관료이고, D는 C와 같은 기관의 하위 관료이다.

■ 예시 답안

[문항 1]

- ① 정보의 비대칭성
- ② (공공재가 과잉 생산되어)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

풀이

베버는 관료가 공익을 추구한다고 전제한 뒤, 정책 형성과정에서 배제되고 정치인의 결정을 집행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즉 관료보다는 관료제를 중요하게 여긴 것이다. 이를 비판한 연구(공공 선택론)에서는 관료가 그러한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한다. 관료 역시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고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려는 능동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 특히 니스카넨은 관료가 정치인에 대해 공공재와 행정 서비스의 가격과 수량을 모두 결정할 수 있는 유리한 입장에 놓인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그 근거를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찾았다. 관료는 자신이 점한 유리한 위치를 적극 활용하여 예산의 극대화를 추구하는데 그것은 합리성과 생존 때문이라고 하였다. 니스카넨은 관료의 이 같은 특성으로 인해 공공재가 과잉 생산되어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라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하였다. 이 문항에서는 정치인에 대해 주도성을 갖게 되는 근거인 정보의 비대칭성과 예산 극대화 추구의 부작용인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답안으로 도출하여야 한다.

[문항 2]

B, C

* 순서를 반드시 지켜야 함

풀이

던리비는 니스카넨의 주장이 예산의 극대화에 집중되어 있어, 관료나 기관이 지닌 다양한 점을 다루지 못했음을 비판하였다. 던리비는 기관의 유형, 관료의 지위, 예산의 종류와 관료 지위의 상관성 등을 검토하고, 고위 관료의 효용은 예산의 극대화보다는 소속 부처의 최적화와 더 관련이 깊다고 보았다. 이 과정에서 던리비는 거래 기관의 관료는 예산 확보 동기가 강하지만 통제 기관의 관료는 예산 확보의 동기가 약하다고 했다. 또 고위 관료는 하위 관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예산 극대화에 소극적이라고 하였다. 이 주장에 따르면 거래 기관의 고위 관료(A), 거래 기관의 하위 관료(B), 통제 기관의 고위 관료(C), 통제 기관의 하위 관료(D) 가운데 예산 확보와 극대화에 가장 적극적인 사람은 거래 기관의 하위 관료(B)이고 가장 소극적인 사람은 통제 기관의 고위 관료(C)가 된다. 물론 이는 상황을 매우 단순화한 가정의 상황이기에 가능한 것이다.

■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문항 1	①, ②를 각각 4점으로 배점. 문제에 ‘그대로’라는 요구 사항이 있기에 이를 준수해야 함. ① 정보의 비대칭성 ② (공공재가 과잉 생산되어)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	8점
문항 2	순서대로 써야 하는 두 답을 각각 4점으로 배점. 정답은 B, C. 반드시 순서를 지켜야 함. 앞뒤 한쪽만 맞춰도 인정하여 부분 점수 부여. 예) B, D (4점) A~D 네 개를 다 늘어놓은 것은 B, C가 제자리에 있어도 0점 처리함(A와 D의 대소 관계는 비교 불가능하기 때문)	8점

문항 3~4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화학전지란 화학 반응으로 전기를 발생시키는 장치로,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건전지는 화학전지의 한 종류이다. 건전지를 사용할 때 양극과 음극을 올바르게 맞추어 사용해야 한다. 이는 화학전지의 전극은 전자를 얻는 환원이 일어나는 쪽이 양극, 전자를 잃는 산화가 일어나는 쪽이 음극이며 전자가 음극에서 양극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화학전지의 양극과 음극은 전극을 구성하는 금속의 이온화 경향에 따라 결정된다. 이온화 경향이란 금속이 용액 속에서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기 ‘쉬운’ 정도를 뜻한다. 따라서 이온화 경향이 큰 금속은 전기가 잘 통하는 전해질 용액에 쉽게 녹아서 양이온이 된다. 묽은 황산 수용액에 구리판과 아연판을 넣어 전극으로 삼으면 화학전지가 된다. 아연은 구리보다 이온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아연판 표면의 아연 원자는 양이온이 되고 아연 원자에서 떨어져 나온 전자들은 도선을 따라 구리판으로 이동한다. 전류는 전자와 반대 방향으로 흐르므로 구리판이 양극, 아연판이 음극이 된다. 만약 아연판을 은판으로 바꾸고, 황산 용액을 염화나트륨 수용액으로 바꾼 후 구리판과 은판을 도선으로 연결하면, 구리판이 음극이 되고 은판이 양극이 된다. 이는 (㉠) 때문이다. 이처럼 화학전지에서 양극과 음극은 두 금속의 이온화 경향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금속의 이온화 경향은 반응열의 크기로 비교할 수 있다. 이를 이해하려면 금속에서 원자 하나가 떨어져 나와 수화(水化) 이온이 될 때까지의 과정을 알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금속은 많은 금속 원자들이 결합된 결정 구조를 이루고 있다. 금속은 주로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되는데 금속 원자 하나가 결정에서 떨어져 나와야 개별 이온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해질 용액에 담겨 있는 아연 금속(Zn)에서 원자 하나가 떨어져 나오고, 이 아연 금속 원자가 전자 두 개를 잃어서 아연 이온(Zn^{2+})이 된다. 이 반응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므로 아연 금속에서는 열을 흡수하는 반응이 나타난다. 이렇게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열을 흡수하는 반응을 흡열 반응이라고 한다. 이후 아연 이온은 전해질 용액 안에서 수화된다. 이 반응에서는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열을 방출하는 반응을 발열 반응이라고 한다.

금속의 이온화 경향에서 반응열은 일정한 온도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흡수되거나 방출되는 열의 양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반응열로 이온화 경향을 비교할 때에는 흡열 반응에서의 열과 발열 반응에서의 열을 합한 값으로 비교한다. 반응열은 부호를 붙여 표시하는데, 일반적으로 발열 반응이 일어날 때의 열은 양으로, 흡열 반응이 일어날 때의 열은 음으로 표시한다. 이온화 경향의 정도는 반응열의 값이 클수록 커지기 때문에 이온화 경향의 정도는 발열 반응에서의 열의 크기, 흡열 반응에서의 열의 크기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온화 경향의 크기를 기준으로 금속 원소를 나열한 것을 이온화 서열이라고 한다. 이온화 서열을 보면 화학전지에서 어떤 금속이 양극이 되고 어떤 금속이 음극이 될지를 쉽게 알 수 있다.

[문항 3] 윗글의 흐름에 따라 ㉠에 알맞은 내용을 쓰되, ‘이온화 경향’이란 말을 넣어 15자 이내로 쓰시오(단, 띄어쓰기로 인한 빈칸은 글자 수에 포함시키지 않음).

[문항 4] ‘이온화 서열’을 중심으로 윗글의 내용을 <보기 1>과 같이 정리할 때, <보기 1>의 ①, ②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보기 2>에서 찾아 각각 쓰시오.

<보기 1>

이온화 현상이 일어날 때 일정한 온도에서 반응열의 값은 이온화 서열의 앞쪽에 있는 금속일수록 크다. 두 가지 금속이 담겨 있는 용액 속에서 이온화 현상이 일어날 때 이온화 서열에서 앞쪽에 있는 금속 원소에서는 (①)이/가 일어나며, 두 금속을 도선으로 연결하면 이온화 서열에서 앞쪽에 있는 금속이 (②)이/가 된다.

<보기 2>

양극, 음극, 전자, 원자핵, 산화, 환원, 방출, 수용

■ 예시 답안

[문항 3]

구리가 (은보다) 이온화 경향이 크기/강하기/높기
구리의 이온화 경향이 (은보다) 크기/강하기/높기
은이 (구리보다) 이온화 경향이 작기/약하기/낮기
은의 이온화 경향이 (구리보다) 작기/약하기/낮기

풀이

전해질 용액 속에 두 금속을 넣었을 때 전하가 발생하는 화학전지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전자의 방출과 수용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산화 환원 반응이다. 두 금속 중 산화가 일어나기 쉬운, 즉 전자가 방출되기 쉬운 것을 이온화 경향이 크다고 말한다. 전류는 전자가 흐르는 방향과 역방향으로 표현되기에 산화가 일어나는 쪽이 음극이 된다.

붉은 황산 용액 속의 아연판-구리판에서는 아연판에서, 염화나트륨 용액 속의 구리판-은판에서는 구리판에서 산화가 일어난다. 즉 이온화 경향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산화가 일어나는 쪽이 결정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에 따라 극성이 상대적으로 결정된다.

[문항 4]

① 산화, ② 음극

풀이

이온화 서열이란 금속 원소들(과 수소)을 이온화 경향이 큰 것부터 작은 것으로 일련 배열한 것을 말한다. 보통 ‘(리튬, 포타슘(칼륨), 칼슘, 소듐(나트륨))-마그네슘-(알루미늄, 아연, 철)-(니켈, 주석, 납)-(수소, 구리)-(수은, 은)-(백금, 금)’의 순서로 기술된다. 앞쪽에 있을수록 산화 환원 반응에서 산화가 일어나기 쉽고 전극에서는 음극이 된다. 이것은 또한 산화 환원 전위의 순서이기도 하고 반응열의 값의 크기의 순서이기도 하다.

■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문항 3	‘구리, 은, 이온화 경향’과 ‘크다/작다’가 들어가면서 모두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다음 네 개를 정답으로 인정하여 8점을 부여하고, 그 외의 진술은 0점으로 처리한다. 문맥상 ‘오보다’는 유추할 수 있기에 ‘오보다’가 없어도 정답으로 처리함. ‘강하다/약하다’, ‘높다/낮다’도 ‘크다/작다’와 문맥상 의미가 상통하기에 정답으로 처리함. 아래가 정답으로 인정할 만한 내용들. “구리가 (은보다) 이온화 경향이 크기/강하기/높기” “구리의 이온화 경향이 (은보다) 크기/강하기/높기” “은이 (구리보다) 이온화 경향이 작기/약하기/낮기” “은의 이온화 경향이 (구리보다) 작기/약하기/낮기”	8점
문항 4	①에 들어갈 것은 ‘산화’, ②에 들어갈 것은 ‘음극’이다. 둘 다 올바르게 기술했으면 8점, 어느 하나만 올바르게 기술했으면 4점, 둘 다 잘못 선택했으면 0점.	8점

문항 5~6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초시는 이날 저녁에 박희완 영감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딸에게 하였다. 실패는 했을지라도 그래도 십수 년을 상업계에서 논 안 초시라 출자를 권유하는 수작만은 딸이 듣기에도 탄 사람인 듯 놀라웠다. 딸은 즉석에서는 가부를 말하지 않았으나 그의 머릿속에서도 이내 잊혀지지는 않았던지 다음 날 아침에는, 딸 편이 먼저 이 이야기를 다시 꺼내었고, 초시가 박희완 영감에게 묻던 이상으로 시시콜콜히 캐어물었다. 그러면 초시는 또 박희완 영감 이상으로 손가락으로 가리키듯, 소상히 설명하였고 일 년 안에 청장*을 하더라도 최소한도로 오십 배 이상의 순이익이 날 것이라 장담 장담하였다.

딸은 솔깃했다. 사흘 안에 연구소 집을 어느 신탁 회사에 넣고 삼천 원을 돌리기로 하였다. 초시는 금시발복이나 된 듯 뛰고 싶게 기뻐다.

“서 참의 이놈, 날 은근히 멸시했겠다. 내 굳이 널 시켜 네 집보다 난 집을 살 테다. 네깻 놈이 천생 가궤*지 별거나…….”

그러나 신탁 회사에서 돈이 되는 날은 웬 처음 보는 청년 하나가 초시의 앞을 가리며 나타났다. 그는 딸의 청년이었다. 딸은 아버지의 손에 단 일 전도 넣지 않았고 꼭 그 청년이 나서 돈을 쓰며 처리하게 하였다. 처음에는 꽤 나오는 노역을 참을 수가 없었으나 며칠 밤을 지내고 나니, 적어도 삼천 원의 순이익이 오륙만 원은 될 것이라 만 원 하나야 어디로 가랴 하는 타협이 생기어서 안 초시는 으실으실 그, 이를테면 사위 녀석 격인 청년의 뒤를 따라나섰다.

일 년이 지났다.

모두 꿈이었다. 꿈이라도 너무 악한 꿈이었다. 삼천 원어치 땅을 사 놓고 날마다 신문을 훑어보며 수소문을 하여도 거기에는 축향이 된단 말이 신문에도, 소문에도 나지 않았다. 용당포와 다사도에는 땅값이 삼십 배가 올랐느니 오십 배가 올랐느니 하고 졸부들이 생겼다는 소문이 있어도 여기는 감감소식일 뿐 아니라 나중에, 역시, 이것도 박희완 영감을 통해 알고 보니 그 관변 모 씨에게 박희완 영감부터 속아 떨어진 것이었다. 축향 후보지로 측량까지 하기는 하였으나 무슨 결점으로인지 중지되고 마는 바람에 너무 기민하게 거기다 땅을 샀던, 그 모 씨가 그 땅 처치에 곤란하여 꾸민 연극이었다.

돈을 쓸 때는 일 원짜리 한 장 만져도 못 봤지만 벼락은 초시에게 떨어졌다. 서너 끼씩 굶어도 밥 먹을 정신이 나지도 않았거니와 밥을 먹으려 들어갈 수도 없었다.

㉠“재물이란 친자 간의 의리도 배추 밑 도리듯 하는 건가?”

탄식할 뿐이었다.

[중략 부분 줄거리] 서 참의가 실의에 빠진 안 초시를 위로하지만 결국 안 초시가 죽음을 택하고 만 것을 발견한다.

파출소로 갈까 하다 그래도 자식한테 먼저 알려야겠다 하고 말만 듣던 그 안경화 무용 연구소를 찾아가서 안경화를 데리고 왔다. 딸이 한참 울고 난 뒤다.

“관청에 어서 알려야지?” / “아니야요 아스세요.”

딸은 펄쩍 뛰었다.

“아스라니?” / “저…….”

“저라니?” / “제 명예도 좀…….”

하고 그는 애원하였다.

“명예? 안 될 말이지, 명열 생각하는 사람이 애빌 저 모양으루 세상 떠나게 해?” / “…….”

안경화는 엎드려 다시 울었다. 그러다가 나가려는 서 참의의 다리를 끌어안고 놓지 않았다. 그리고

“절 살려 주세요.”

소리를 몇 번이나 거듭하였다.

“그럼, 비밀은 내가 지킬 테니 나 하자는 대루 할까?” / “네.”

서 참의는 다시 앉았다.

“부친 위해 보험 든 거 있지?” / “네, 간이 보험이예요.”

“무슨 보험이던…… 얼마나 타게 되누?” / “사백팔십 원요.”

“부친 위해 들었으니 부친 위해 다 써야지?” / “그럼요.”

“에헴 그럼…… 돌아간 이가 늘 속사쉴 입구퍼 했어. 상등 털 사쓰를 사다 입히구 그 우에 진견으로 수의 일습 구색 마쳐 짓게 허구…… 선산이 있나 문힐 데가?” / “웬걸요 없어요.”

“그럼 공동묘지라도 특등지루 널찍하게 사구…… 장례식을 장하게 해야 말이지 초라하게 해 버리면 내가 그저 안 있을 게야. 알아들어?” / “네에.”

하고 안경화는 그제야 핸드백을 열고 눈물 젖은 얼굴을 닦았다.

*

안 초시의 소위 영결식이 그 딸의 연구소 마당에서 열리었다.

서 참의와 박희완 영감은 술이 거나하게 취해 갔다. 박희완 영감이 무얼 잡혀서 가져왔다는 부의 이 원을 서 참의가

“장례비가 넉넉하니 자네 돈 그 계집애 줄 거 없네.”

하고 우선 술집에 들러 거나하게 곱빼기들을 한 것이다.

영결식장에는 제법 반반한 조객들이 모여들었다. 예복을 차리고 온 사람도 두엇 있었다. 모두 고인을 알아 온 것이 아니요, 무용가 안경화를 보아 온 사람들 같았다. 그중에는, 고인의 슬픔을 알아 우는 사람인지, 덩달아 기분으로 우는 사람인지 울음을 삼키느라고 껌 껌 하는 사람도 있었다. 안경화도 제법 눈이 젖어 가지고 신식 상복이라나 공단 같은 새까만 양복으로 관 앞에 나와 향불을 놓고 절하였다. 그 뒤를 따라 한 이십 명 관 앞에 와 꾸벅거리었다. 그리고 무어라고 지껄이고 나가는 사람도 있었다.

그들의 분향이 거의 끝난 듯하였을 때

“에헴.”

하고 얼굴이 시뻘건 서 참의도 한마디 없을 수 없다는 듯이 나섰다. 향을 한 움큼이나 집어 놓아 연기가 시커멓게 올려 솟더니 불이 일어났다. 후 후 불어 불을 끄고, 수염을 한 번 쓰다듬고 절을 했다. 그리고 다시

“헴…….”

하더니 조사(弔辭)를 하였다.

“나 서 참의세 알겠나? 흥…… 자네 참 호살세 호사야…… 잘 죽었으니 자네 살았으문 이만 호살 해 보겠나? 인전 안경다리 고칠 걱정두 없구…… 아무턴지…….”

하는데 박희완 영감이 들어서더니

“이 사람 취했네그려.”

하며 서 참의를 밀어냈다.

박희완 영감도 가슴이 답답하였다. 분향을 하고 무슨 소리를 한마디 했으면 속이 후련히 트일 것 같아서 잠깐 멍칫하고 서 있어 보았으나

“으흠…….”

하고 울음이 먼저 터져 그만 나오고 말았다.

- 이태준, 「복덕방」

*청장(淸帳): 장부(帳簿)를 청산한다는 뜻으로, 빚 따위를 깨끗이 갚음을 이르는 말.

*가궤(家儉): 집 흥정 붙이는 일을 업으로 삼는 사람.

[문항 5] <보기>는 안 초시가 자살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다. 윗글의 ㉠을 바탕으로 <보기>의 ①에 들어갈 안 초시가 자살한 이면적 이유를 10자 이내로 쓰시오(단, 띄어쓰기로 인한 빈칸은 글자 수에 포함시키지 않음).

<보기>

안 초시의 자살의 표면적 이유	안 초시의 자살의 이면적 이유
부동산 투자의 실패	①

[문항 6] <보기>는 문학의 표현 기법 중 하나인 반어에 대한 설명이다. 이를 참고하여 윗글의 등장인물의 대화 중, 반어가 가장 잘 드러난 말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쓰시오.

<보기>

반어는 전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뜻하는 것과는 반대로 표현하는 방법이다. 문맥을 통하여 청자나 독자가 본래의 의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과 조건 아래에서 사용하는 것이므로 오히려 의미를 강조하는 효과를 거둔다.

■ 예시 답안

[문항 5]

딸과의 불화

풀이

이 작품은 1930년대 경성을 배경으로 급변하는 사회 질서에서 소외된 세대의 좌절과 몰락, 젊은 세대의 위선적인 행태 등을 형상화한 소설이다. 작품의 제목이기도 한 ‘복덕방’은 안 초시와 서 참의, 박희완 등 급변하는 세대에 적응하지 못한 노인들이 모여드는 공간이다. 안 초시는 부동산 투기로 일확천금을 꿈꾸다가 몰락하는데, 이 과정에서 식민지 자본주의의 실태가 사실적으로 드러난다. 한편 무용가로 성공했으면서도 아버지를 홀대하는 안경화의 모습을 통해서도 당시 신세대들의 이해타산적 면모가 드러난다.

안 초시의 자살의 일차적 원인은 부동산 투기의 실패에 따른 좌절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소설 속의 다양한 상황들을, 예컨대 안 초시의 독백이나 안 초시의 사후에 발생한 안경화의 행동들 등등을 유추하면 그 이면에는 딸인 안경화와와의 불화가 개입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항 6]

(서) 참의

풀이

‘반어’는 전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말하고자 하는 의미와는 반대로 표현하는 방법이다. 예컨대 지각한 학생에게, “참, 빨리도 왔구나.”와 같이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반어는 문맥을 통하여 독자가 본래의 의도를 추론할 수 있는 조건과 상황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의미를 강조하는 효과를 거둔다. 작품 속에서 서 참의가 죽은 안 초시에게 하는 율조림은 이런 반어적 표현을 통해 안 초시의 죽음이 지닌 비극성을 한층 더 부각하고 있다.

■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문항 5	다음과 같이 배점함. 8점 - 딸과의 단절(냉대, 불화) or 가족공동체(가족관계, 부녀관계)의 붕괴(파탄, 단절), 친자간의 불화, 딸의 불효 등(부녀관계)의 파탄을 표현할 경우) 4점 - 딸의 부정적인 모습만 언급하되, 안 초시와의 불화를 언급하지 않은 경우. 예) 나쁜 딸 4점 - 딸에 대한 안 초시의 감정(‘미안함’ 등)은 드러나 있지만 원인 제공자로서의 딸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 예) 딸에 대한 미안한 감정	8점
문항 6	(서) 참의 (8점)	8점

써봄

기출로 연습했다면, 이제 써보고 바로 첨삭받자.

Google Gemini 기반 한국어 논술 자동 첨삭 서비스

01

4개 영역 점수

논리구조 · 근거타당성 · 주장명확성 · 언어표현 영역별로 점수를 매겨 줍니다.

02

상세 피드백

강점, 개선점, 구체적인 제안사항까지 한 번에 확인합니다.

03

일괄 첨삭

교사·강사는 학생 답안을 최대 10편까지 한꺼번에 올려 처리할 수 있습니다.

04

간편한 업로드

PDF · DOCX · TXT 파일을 그대로 올리면 됩니다.

이용 안내

무료 체험	회원가입 시 3회 무료 분석
개인 플랜	월 9,900원
교사 플랜	월 29,900원

논술 수험생 · 논술 교사와 강사 · 학원과 교육기관



writegrow.net

QR 코드를 스캔하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